



1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1호

(루계 제783호)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의 기치높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김 정 은

차 례

조선의 1월(시)	조 광 철(4)
새해의 축원(시)	홍 민 식(5)
위대한 태양의 노래가 더 높이 올려퍼지게 하자(론설)	최 언 경(6)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9)
우리의 새해(시)	최 련(10)
단편소설 우리의 멋	김 자 경(11)
주체문학의 대강	(28)
우리의 희망찬 새해	리 영 철(25)
인민의 축복이 되자(가사)	최 승 덕(5)
함께 가자 새 승리를 향하여	김 정 순(26)
시 조국에 드리자 새해축배를	정 동 찬(26)
새해의 들길	리 영 일(27)
신발에 대한 담시	박 희 구(37)
그날 그 한밤에 외 1편	김 덕 선(40)
조국의 귀중함을 심어주시려(혁명일화)	(28)

○○○○○○○○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난다 ○○○○○○○○

조선의 자랑 《광명성-3》호여!	박 현 철(32)
우주엔 조선의 자리길이 있다	리 명 옥(32)
우리의 환희	윤 봉 식(33)
《조선문학》 축전상시상결과	(69)

《새해 2013년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
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
을 열어 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입니다.》

김 정 은

새해
결의
묵음

- 영예로운 사명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윤 경 찬(29)
백두산에서 다진 결의를 잊지 않고 황 명 성(30)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더 많이... 한 정 아(30)
평론의 권위를 높여 나가겠다 박 춘 택(31)

단편
소설

- 잊을수 없는 누나 김 택 룡(41)
사랑을 안고살라(실화문학) 오 광 천(56)
하얀 돛배 김 철 호(70)

◇ 수 필 ◇

- 못 잊을 1월의 그날로부터 박 경 철(38)
별들이 웃는 밤에 박 혜 란(54)

- ◇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 김 영 철(34)
◇ 어머니의 목소리 문 기 창(34)
뜨거운 진정이 낳은 감명깊은 철학세계(평론) 권 선 철(34)

— 시 —

- 더 뜨거워지라 나의 고향아 전 승 일(39)
비료 쏟아지는 날 최 정 용(53)
아기의 출생증을 받아들고 김 경 석(55)
복눈이다 쌀눈이다 김 충 기(79)
나의 포전아 심 복 실(80)
애국의 열정으로 불타는 참신한 성격형상(단편) 김 정 평(68)

표지3면: 《그대는 어머니》(노래)

조선의 1월

조 광 철

원수님의 모습으로
밝아온 새해의 러명
원수님의 신년사로
희망과 신심에 넘친 이 강산

이 땅 그 어디나 눈부신 은빛세계
아득히 펼쳐진 1월의 솟눈길은
올해에도 우리가 내짚어야 할
새 발자국 기다리는듯
큰 발자국 기다리는듯

희망 넘치는 1월이어
장엄하게 시작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또 한돌기 자랑찬 년륜을 아로새기며
찬란히 밝아온 이 아침
힘껏 신들메를 조이며 정렬하는
천만가슴은 걱정으로 들끓어라

처억처억 들려오는 귀에 익은 발걸음소리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던가
어버이를 잃고 목놓아우는 비애의 바다에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어 함께 가자 하시던
김정은원수님의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처억처억
우리는 이렇게 걸어오지 않았던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원수님의 엄숙한 구령에 맞추어
일터마다 전야마다 초소마다에서
진군 또 진군 우리는 달려왔어라

그렇게 걸어온 자옥마다에
하늘을 떠받든 창전거리의 살림집
웃음소리 넘치는 유원지들
유구한 력사가 펼쳐진 민속공원
인민의 행복을 펼치고 또 펼쳐놓으며
우리는 한해사이에

세월을 앞당겨 비약하고비약하였나니

그렇게 가리라 2013년
숨결도 보폭도 하나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발걸음 맞추어
100년 200년을 앞당겨올
기적의 첫걸음을 내짚는 1월이어

한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우신
우리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시여
또다시 우리에게 출발명령을 내리신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그 길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가리니

가리라
주체의 우리 당기 높이 추켜들고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세계에 존엄높은 우리 조국을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하고 강대한
불패의 백두산대국으로 펼쳐가리라

맹세하노라
2013년이어
이해가 저무는 마지막날까지
우리는 네앞에 뗏뗏하리라
전승 60돐 승리자의 광장
공화국창건 65돐 대축전장에
우리는 당당히 들어서리라
그 걸음으로 우리는 열두달을 줄기차게 노도쳐
가리라

오, 2013년의 위대한 승리를 내다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며
경애하는 그이의 발걸음따라
선군조선의 1월은 폭풍친다
최후승리의 그 언덕을 향하여!

새 해의 축원

홍 민 식

새해의 이 아침 소리없이 내리는 함박눈은
왜 이리도 가슴에 뜨거운것인가
원수님의 신년사로
밝아온 새해
희망과 신심으로 차넘치는 새해여

흰눈처럼
티없는 순결의 세계와 함께
내 가슴속에 가득히 차오르는것은
아,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에 대한 생각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불타는 마음

장군님 말기신 천만군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정으로 아픔을 가셔주고
정으로 친숙해지고
정으로 따뜻하신 품 우리 원수님

그렇게 한해가 흐르지 않았더냐
병사들과 팔을 끼고 사진도 찍으시고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과 6월의 소년단원들
7월의 전쟁로병들과 8월의 청년들...
그 가슴들에 안겨진 그 정으로 날과 달을 달구며

아직도 가슴뜨겁구나
최대열점지역 장재도와 무도에 펼쳐졌던
위대한 사랑의 그 화폭
창천거리 평범한 가정들에 넘치던 그 정
은 나라가 눈물속에 보았고
은 세상이 경탄속에 보았거니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이에 대한 매혹의 열기
그이를 따르는 흠모의 마음 뜨거운 이 땅
그이의 품에 안겨
이리도 후더웁고 환희로운것이구나

인민의 리익 인민의 편의를
언제나 첫자리에 놓으시고
장군님 정을 다해 뿌리신 씨앗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우시고
풍만한 열매로 주렁지우시는
그이는 정녕 인민사랑의 태양

그이 모시여
우리의 천만복이 약속되고
아름다운 희망과 미래가 꽃피나는 이 땅에
해빛은 쏟아져 눈부셔라
창조의 노래는 끝없이 울리여라

소리없이 내리는 함박눈아
너처럼 너처럼 백옥같은 마음안고
이 땅우에 창조와 행복의 열매만을 가꾸어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려니

아, 그이를 모시여
희망과 신심이 넘치는 이 아침
가슴속 가득히 차오르는 소원
우리의 태양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이시여
세월이 다하도록 영원히
부디부디 건강하시라!

가 사

인민의 총복이 되자

최 승 덕

마른 길 걸으면 자욱이 없고
생눈길 헤치면 자욱이 남네
인민의 행복위해 발이 닳도록
쉽없이 뛰고뛰는 총복이 되자
아 인민의 총복이 되자

비바람 불어도 가림이 없고
눈바람 세차도 웃으며 가네
인민의 마음속에 꽃이 피도록

쉽없이 가고가는 총복이 되자
아 인민의 총복이 되자

자신을 위한 걸음 트랙에 남고
인민을 위한 걸음 조국에 아네
원수님뜻 받들어 한생을 바쳐
쉽없이 뛰고뛰는 총복이 되자
아 인민의 총복이 되자

위대한 태양의 노래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

최 언 경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첫 신년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걱정과 환희를 안고 새해의 장엄한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찬란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높은 평마루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폭풍쳐가는 우리의 총진군대오에 위대한 태양의 노래가 승리의 진군가로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노래와 함께 시작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우리 혁명은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역사의 준엄한 폭풍우, 눈보라만리, 불길만리를 헤치고 승승장구해온 승리와 영광의 역사이다.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자랑스러운 100년사가 이를 뚜렷이 증명해주고 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100년사는 파란많은 수난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운 영광스러운 역사인 동시에 위대한 태양의 노래와 함께 전진하며 승리해온 역사이다.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따라 승리하는것이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이라면 위대한 수령찬가, 태양의 노래는 대오의 진두에 펴릴 휘날리는 붉은기와 같이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혁명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 기치,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한 작품은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

우리의 수령송가는 깊은 역사적뿌리와 전통을 가지고있으며 혁명투쟁에서 그 어떤 다른 노래와도 대비할수 없는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였다.

우리의 수령송가는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혁명의 개척기에서부터 창작되였다.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울려 퍼진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혁명시인 김혁만이 아닌,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조선혁명가들과 2천만겨레의 환희의 폭발이였다.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2천만 우리 동

포 새별을 보네》라는 조선혁명가들의 이 신념과 의지는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에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는데서 힘있는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이어받은 우리의 수령송가문학은 해방을 맞은 그날로부터 주체시문학의 확고한 주류를 이루고 줄기차게 발전하면서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해방직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혁명시인 리찬이 창작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함으로써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혁명송가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서 우리 인민을 영웅적위훈으로 힘있게 고무한 제일의 혁명송가로 되였다.

우리의 영웅적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미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전후 재더미만 남은 폐허우에서 전설속의 천리마를 타고 내달으며 세기를 주름잡아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수령의 성스러운 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며 수령송가도 대를 이어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곳곳이 계승해왔다.

우리 인민은 사상 최악의 역경인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국의 운명 지키려 철령을 넘어 몇천리, 락원의 길을 여시려 강계를 찾아 또 몇천리 험난한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걸음걸음 따르고 간절히 그리며 공훈국가합창단이 부르는 정일봉의 우뢰소리와도 같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선창에 전민대합창으로 화답하며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올렸다.

위대한 장군님을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로 격조높

이 칭송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표현이다.

우리의 수령송가는 온 인류가 부르는 만민칭송의 송가로 되고있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에서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는 경이적인 사변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며 따르고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성대히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첫막을 울리는것이 전통화되고있다.

인류문에서 수천년에 노래도 많고 송가도 많았지만 이처럼 한 나라의 령도자에 대한 노래를 온 인류가 심장으로 부른 레는 없었다. 진정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백두의 천출위인들에 대한 만민칭송의 세계적송가이다.

우리의 수령송가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세월의 끝까지 변함없이 더 힘차게 울리고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오늘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친구들마다에서 수령영생의 송가로 높이 울리며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환하신 영상을 새겨주고있으며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서 높이 휘날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와 더불어 언제나 우리 천만군민을 새로운 승리로 고무추동해주고있다.

참으로 세기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위대한 태양찬가의 장중한 선율을 심장에 새길 때면 가슴그들먹이 차오르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격정을 누를길 없다.

이 궁지, 이 자라는 인생만복중의 최상최대의 복인 수령복, 장군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것이다.

이 위대한 태양찬가를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한것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자기 수령을 충정다해 높이 모시고 받들줄 아는 우리 작가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궁지이다.

오늘 우리는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력사적전환기에 서있으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결연히 분발해나서야 할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시기에 서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폭풍쳐가는 군민대진군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백두산천출위인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우리 조국은 강성부흥할것이며 우리 인민은 통일된 삼천리강산에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세세년년 행복하게 살아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미래이시다.

우리는 위대한 태양송가의 전통을 이어 내 조국의 하늘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송가가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대의 엄숙한 요구이고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작가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도리이다.

우리 작가들은 이 엄숙한 시대의 요구에 화답하여 이미 《발걸음》,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한마음 따르겠습니다》, 《불타는 소원》과 같은 노래를 창작하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에게 안겨주었다.

《발걸음》,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꽃같이 계승해나가는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격동적인 환희의 마음을 담은 송가이다.

우리 인민군병사들과 인민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노래를 사랑하며 힘차게 불렀다.

가사의 《2월의 정기 뿌리며》, 《2월의 기상 떨치며》, 《2월의 위업 받들며》 등 구절구절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나가는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충정, 격찬의 정으로 충만되어있다.

가사의 서정구조는 간명하지만 그가 주는 사상은 참으로 심원하다.

가사는 《척척척척》하는 힘찬 발걸음소리로 시작하여 중간과 마감에 다시 《척척척》발걸음소리를 반복해줌으로써 그 힘찬 한결음으로 온 강산을 울리고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참으로 장쾌하게 그리고 격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이처럼 심원한 가사의 숭고한 사상과 풍만한 서정은 그와 잘 어울리는 선률에 의하여 더더욱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어준다.

참으로 가요 《발걸음》은 가사도 곡도 특색있고 훌륭한 명시에 명곡이다.

온 나라 전체 군민이 누구나가 정을 담아, 신심에 넘쳐 사랑해 부르는 이런 훌륭한 명작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것은 조선의 크나큰 자

랑이고 영광이다.

가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는 우리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좌우명이며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본원천인 수령결사옹위, **김정은**장군결사옹위에 대한 신념의 송가이다.

수령결사옹위,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이 항일혁명투사들로부터 이어받은 가장 귀중한 혁명 전통인 동시에 우리의 수령송가문학이 대를 이어 지키고 빛내어갈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송가에는 항일선렬들의 최대의 념원인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을 지켜 태양옹위의 백두산총대를 역세게 들어쥐고 하늘땅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천만의 심장인신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목숨으로 사수해갈 우리 인민군대의 억척불변의 신념이 되성마냥 세차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첫시기에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와 같은 수령결사옹위의 송가가 높이 울려 퍼진것은 수령송가문학의 자랑인 동시에 우리 인민의 행복이다.

가요 《한마음 따르렵니다》는 위대한 수령의 위업, 태양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송가, 열화와 같은 충정의 송가이다.

이 송가의 고유한 특징은 3개 절 전반에 걸쳐 선군혁명의 초행길을 헤치시여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면서 가장 전형적인 생활적계기에 초점을 두고 그 위업을 훌륭히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참으로 생활 그대로 눈물겹도록 감동적으로 칭송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진정 하늘같이 믿고따르던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잃고 피절은 우리 인민의 가슴에 천백배의 힘을 주시고 신념의 기둥이 되여주신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우리 수령님 한평생 키우시고 우리 장군님 한생 아끼신 우리 인민을 한품에 뜨거이 안아 사랑을 주시고 정을 다해 주시는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하늘에 새기시고 아버지장군님의 그 뜻을 기치로 드시고 붉은기 높이 휘날리며 태양의 위업을 빛내가시는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

하기에 가오는 넘쳐나는 신심을 안겨주시고 끝없는 행복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일편단심 따르고 받들려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충정의 맹세를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가요 《불타는 소원》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이어가시며 인민을 위한 길을 걷고 또 걸으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운명, 우리 행복이라고 노래하면서 그이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소원을 노래하고있다.

주체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께 송가 《조선의 별》을 삼가 드렸듯이, 1970년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신 그 영광, 그 환희를 노래한 송가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전인민이 심장으로 높이 불렀듯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천만군민의 절절한 마음과 소원을 담은 송가를 드리게 된것은 뜻깊은 역사적사변이며 선군조선의 영광이다.

이제 우리는 태양조선의 하늘가에 위대한 태양의 노래가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를 이어가며 백두산위인들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창작해온 조선의 시인, 작가들에게 시대가 주는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사명이다.

오늘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우리 인민과 온 인류의 심장을 통채로 틀어잡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매혹과 흠모, 신되는 하늘끝에 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주석단에 높이 모신 태양처럼 환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천만군의 무게로 힘있게 울리는 그이의 연설을 들으며 우리 인민은 천지가 떠나갈듯 한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눈물로 온 심장을 적시였다. 그것은 진정 심장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끝없는 환희와 기쁨의 눈물, 신념과 충정의 분출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의 최고정수를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절대적 충실성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만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지난해 설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인사를 드리신 그길로 대원수님들의 령도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전쟁도발책동으로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험계선에 이르렀던 그 시각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인 장제도와 무도를 찾으시여 쌍안경으로 적진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는 미래를 략관하는 사람들입니다. 혁명 그자체가 원래 미래에 대한 꿈이나 새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시작되는것입니다.》

《혁명적신념과 의지와 략관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3대특질,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품격을 이루고 있는 3대요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적신념과 의지는 미래에 대한 략관에 기초할 때 더욱더 강한것으로 되고 혁명의 최후승리가 이룩될 때까지 확고히 견지되는것입니다.》

《혁명이란 사상의지나 규률만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사상의지, 도덕의리와 함께 략만적인 감정정서를 가지고 하는것이 혁명입니다. 나서자란 고향산천과 부모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감정을 떠나서 애국주의가 싹터날수 없습니다.》

《항일혁명의 길에서 희생된 모든 투사들은 다 혁명승리에 대한 불변의 신념과 풍부한 감정정서를 지닌 략관주의자들이였습니다.》

을 노력보시며 원썬적멸의 명령을 내리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욱을 이어 끊임없이 새겨가시는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의 운명이 수호되고 우리 인민은 이 세상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인민사랑의 그 숭고한 덕망이며 고매한 품모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평범한 병사들과 팔을 결고계시는 모습이며 외진 섬초소의 군인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이며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불을 다정히 다독여주시고 귀여운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환히 웃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다.

인민극장의 평범한 관람석에 앉으시여 평양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는 그이, 수수한 농립모를 쓰시고 룡라인민유원지건설장의 략간없는 계단을 오르시는 그이,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적어가시는 자욱자욱은 인민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자욱자욱이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리념을 확고부동한 생활신조로, 인생관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숭고한 인간애, 인민애의 최고화신,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에서 또한 특출한것은 문무를 완벽하게 겸비하시고 다재다능하신 천재중의 천재,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백두산의 기상 그대로이신 천출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충정의 최고화신, 비범한 군사적통솔력과 전략전술적지략을 지니신 희세의 선군령장,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과학기술과 체육에 이르기까지 세상만사를 환히 꿰뚫고계시는 천재중의 천재.

951호땅크를 타시고 멸적의 포성을 울리시며 조국통일의 기상을 안고 질풍같이 내달리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 이 땅을 주름잡으며 천하가 좁다하게 말을 몰아가시는 그이의 모습을 뵈오며 우리 얼마나 경탄했던가.

새해의 첫아침 온 나라 천만군민과 모든 가정들에 축복의 인사를 보내주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위업을 더욱 빛나게 이어나갈 불변의 진로를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근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얼마나 가슴설레었던가.

김정은동지와 같은 천출위인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태양조선의 크나큰 행운이고 영광이며 긍지이다.

우리 작가들은 이 행운, 이 영광, 이 긍지를 가슴뿌듯이 새기고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칭송하는 송가창작에 모든 힘과 정력과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모든 작가들이여,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시며 우리의 운명이시고 밝은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칭송하는 송가를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안겨주자.

하여 위대한 태양의 노래가 백두산대국의 하늘가에 세월의 끝까지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퍼지게 하자.

우리의 새해

최 련

하얗게
반짝이며
온 하늘 가득히
설눈이 내리는 이 아침

기쁨과 희망으로 가슴설레이며
원수님 신년사 구절구절 새겨보노라
새해에는 무엇이 기다릴것인가
우리의 새해는 무엇으로 빛날것인가

그러면 저 멀리 백두령봉에서
아침해가 찬란히 솟는듯
우리의 가슴속에 환희의 빛을 떨치며
붉게도 밝게도 솟아오르는 태양
아, 우리의 새해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기쁨의 새해

아버이를 잃은 아픔에 몸부림치며
피눈물의 언덕을 넘었던 우리들의
집집마다 사랑과 행복을 안고 찾아오신분
서해의 험한 파도를 넘으시여
병사들의 전우가 되신분

그이가 계시여
우리 언제나 햇빛넘치는 봄날에 살았더라
구름처럼 부푸는 꿈을 안고
노을처럼 불타는 소원을 안고
별처럼 빛나는 래일을 안고
너와 나 우리가 살아온
원수님 모신 세월의 행복이여

그 행복이
또 한해의 새날을 맞았으니
가슴울렁이며 새해를 바라보노라
그러면 눈앞에 다가오는 빛나는 리정표
미제를 타승한 전승 60돐
공화국창건 65돐

믿노라 원수님을 모셨기에
전승 60돐 그날 터치는 축포는

거대한 우주공간에 불길로 아로새기는
조선의 영원한 전승의 선언이 되리!
푸른 하늘에 높이 날리는 공화국기는
선군조선의 존엄을 더욱 높이 떨치리!

원수님이 계시여
새해는 얼마나 더 밝을가
요람에서 단잠 자는 아기들에게
어머니들은 다정히 속삭이노니
꿈을 꾸라고 하늘같은 큰 꿈을
좋아라 웃고 뛰노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스스럼없이 축복을 준다
복많이 받으라고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원수님이 계시기에
이 아침 피끓는 청춘들은
깨끗한 미소속에 서로 굳게 손을 잡는다
나래칠 하늘은 더욱 푸르고
달려갈 대지는 끝없이 열렸으니
새해에 더 힘껏 날자고 더 빨리 달리자고

원수님이 계시기에
공장에서 전야에서
땀젖은 얼굴들에 궁지와 희열이 넘치고
아늑한 집집의 창가마다에
아름다운 녀인들의 파스한 미소 비껴라

오, 원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노라 더욱 번영할 새해를
그이가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래일이기에
그이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념이기에
그이가 우리의 사랑이고 정이기에

우리는 믿는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대도
두려움없이 나아갈 희망과 신념의 새해를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우리의 운명이신 그이를 우러러
온 나라 인민이 삼가 큰절을 올리노라
—부디 안녕하십시오



김 자 경

행복의 꽃물결, 환희의 꽃물결이 넘쳐흐르는 공연무대...

대극장에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음악 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되고있었다.

관현악과 합창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은 강성국가의 평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정과 풍만한 정서를 담은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종목이 바뀔 때마다 남먼저 박수를 쳐주시며 출연자들을 고무해주시었다.

녀성독창 《강성부흥아리랑》이 끝나자 무대는 푸른 하늘아래 금나락 설레이는 풍년벌로 바뀌었다.

이어 덩더쿱장단의 흥겨운 음악이 장내에 울리었다.

무용수들이 풍년벌을 가꾸는 농장원들의 기쁨과 랑만을 약동적인 춤가락에 담아 펼쳐놓았다.

무용수들은 멋들어지게 바가지장단을 치면서 춤의 흥취를 더욱 돋구었다.

민속무용 《돈돌라리》였다.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었다.

그이의 시선은 연분홍저고리에 담청색치마를 입고 맨앞에서 등장한 한 무용수에게로 옮겨지였다.

가름하고 선이 고운 얼굴에 매혹적인 미소를 짓고 발랄하고 재치있게 춤을 추는 그, 민속무용의 고유한 특성을 개성적인 춤가락에 담은 그의 모습은 참으로 우아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더없이 기쁘시여 뒤줄에 앉은 인민 예술가 한청인을 돌아보시었다.

《안무가동무, 저절 보시오. 리순동무가 얼마나

춤을 잘 춥니까. 볼수록 멋있소.》

그이의 안광에서는 언제나와 같이 따뜻한 미소가 넘쳐흐르고있었다.

어깨춤을 기본으로 하는 그의 춤가락들은 향토적 색채가 뚜렷하면서도 서정적이였고 박력이 느껴지면서도 아름다웠다. 팔놀림을 어깨춤과 유기적으로 배합한 그의 물동은 또 얼마나 해학적이고 멋들어진가.

조선의 민속무용 《돈돌라리》의 민족적색채를 가장 명료하게 담은 고유하고 이채로운 춤가락이였다.

무용수 리순의 행복넘친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장군님의 눈앞에는 문득 두해전 어느 겨울날이 떠오르시었다.

...

함박눈 내리던 그날 **김정일** 동지께서는 새 세기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새롭게 형상한 민속무용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몸소 극장에 나오시었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활달한 걸음으로 시연회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낮익은 창작가들과 인사를 나누시며 그들의 안부를 물으시다가 뒤편에 서서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한청인을 띄여보시었다.

《안무가동무, 그동안 건강했습니까? 이번에도 좋은 무용을 만들었겠지?》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이깎나무처럼 쭉 빠진 체구에 정기도는 눈매를 가진 젊은 안무가를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미소가 어리었다.

무용배우시절을 거쳐 안무가로 성장한 그는 지금까지 민족적인 춤가락들을 수많은 찾아내여 훌륭한 무용작품들을 내놓은 재능있고 전도유망한 안

무가였다.

이번에도 아름답고 독특한 무용을 창작했으리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그의 마음은 더없이 기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자, 여기 앉아 함께 무용을 봅시다.》

그이께서는 따뜻한 친화력이 흘러넘치는 정깊으신 눈길로 자리를 권하시고 그와 나란히 의자에 앉으시었다.

잠시후 심사석이 어두워졌다.

다음순간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자주색무대막앞으로 사뿐히 나온 소개자가 청맑은 목소리로 시연회시작을 알리었다.

장군님께서는 보시던 무용대본을 덮어놓으시고 무대를 바라보시었다.

원래 민속무용 《돈돌라리》는 오래전부터 북청지방 바다가녀인들이 즐겨추던 《달래춤》에서 유래되었다.

해마다 봄날이면 모래산에 모여 달래를 캐던 그 지방 녀인들은 휴식참마다 민요 《돈돌라리》를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추었다고 한다.

1930년대에 와서 이 춤은 조국해방의 념원을 담은 군중무용으로 발전하였다.

그때 사람들은 《돈돌라리》를 《동틀날》, 다시 말하여 《해방의 날》이라는 뜻에 담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한다.

물산이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다울뿐아니라 명인과 재사들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반일애국감정이 그 어디보다 높았던 《돈돌라리》의 고향 북청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발자취도 어려있는 력사의 땅이었다.

1937년 장백현 도천리에서 지하정치공작임무를 수행하시던 어머님께서는 국내의 혁명조직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그해 여름 함남지방에 나오시었다.

어느날 천렵놀이로 위장된 비밀모임을 조직하시고 조국광복회 회원들과 함께 애국렬사 리준의 아들을 만나주신 어머님께서는 그에게 일제를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에 적극 펼쳐나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뜻밖에도 일본순사들이 나타날줄은...

련락을 받은 조국광복회 회원들은 모두가 《돈돌라리》를 부르며 신속히 춤판을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경쾌하면서도 개방적인 춤가락으로 녀들을 야유했는데 어머님께서도 사람들과 어울려 흥겹게 바가지장단을 치시며 노래를 부르시었다.

녀들이 아무런 기미도 못 차리고 돌아가자 사람들은 왜녀들을 멋지게 속여넘긴 통쾌한 마음으로 더욱 흥겨운 춤판을 벌리었다.

북청지방의 그 《돈돌라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춤판이 펼쳐지는 곳에서는 달리던 기차도 속도를 늦추고 손님들은 창문이며 승강대에 몰려나와 춤구경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과 해방후 일부 편협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 춤은 점차 인민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있었다.

1959년 10월 북청땅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장원들이 추는 《돈돌라리》를 보시고 우리의 민속무용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재생의 동틀날을 맞이한 《돈돌라리》였다.

1970년대 중엽,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정서, 지방적색채가 담겨진 이 무용을 지방예술단에서 형상하도록 해주시었다.

그리고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는 새 세기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새롭게 형상하도록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몸소 극장에 나오신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큰 기대감을 가지시고 무대우에 펼쳐지는 무용을 주의깊이 보아주시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안색은 점점 어두워지시었다.

특색있고 멋들어진 《돈돌라리》의 고유한 멋을 거의나 찾아볼수 없는 무용이였다.

손동작에 무리하게 속도를 가하면서 손목재간을 람용한것을 비롯하여 하나하나의 춤가락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리 민속무용의 고유한 멋을 전혀 느낄수 없으시었다.

놀라우시었다.

이게 과연 민속무용 《돈돌라리》란 말인가. 그리고 한청인은 어떻게 이런 무용을 내놓았는가.

그이의 심중은 무거우셨다.

한청인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앓음새를 고치신 다음 무용수들을 차례로 유심히 바라보시었다.

한청인의 안해 리순을 찾으시는것이였다. 하지만 낮익은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의혹이 갈마드셨다.

민족적정서가 짙으면서도 우아하고 개성이 뚜렷한 춤가락으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리순은 왜서 이 무대에 출연하지 않았는지...

벗들어지고 성격화된 그의 춤가락들이 선히 떠오르셨다.

《부채춤》과 《양산도》와 같이 서정성이 강한 무용뿐 아니라 《3인무》나 《쟁강춤》처럼 속도감 있으면서도 박력있고 대조가 강한 성격적인 그의 춤가락들은 언제나 볼 맛이 있었다.

춤가락의 밀바탕에 흐르는 향토적색채는 또 얼마나 인상적이었는가. 그런데...

잠시후 심사석이 환히 밝아지었다.

시연회가 끝난것이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장군님께서서는 시연회에 참가한 창작가들을 향해 돌아앉으시었다.

《그동안 새 작품을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만큼은 작품이 잘되지 못했습니다.》

서운한 표정으로 창작가들을 둘러보시던 그의 시선은 한청인에게서 멎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부르시었다.

머리를 수긋하고 앉아있던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무생각에는 무용이 어떻습니까? 이 무용에서 민족적인 정서가 느껴집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한청인은 머리를 숙이며 떠들거리었다.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 좀...》

《잘 몰랐다?》

장군님께서서는 말끝을 여물쿠지 못하는 안무가의 말을 조용히 되뇌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묻고싶으셨다.

《청인동무, 이 무용이 정말 동무가 만든것이 옳습니까? 동무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것이 난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앉으라고 이르시었다.

《무용을 현대감이 나게 형상한다고 해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까지 다 없애버려서는 안됩니다. 이 무용은 손동작에서 향토적인 성격을 잘 살려야 합니다. 지금도 어떤 장면은 외국무용을 보는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춤가락을 새것으로 보고 창작에 도입하는것은 민족성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좌중에는 몹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무용대본을 한청인에게 내미시었다.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무용을 다시 잘 만들어보시오.》

믿음이 담겨진 어조로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창작가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춤가락이며 무용음악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싶으셨지만 계획된 다음일정을 미룰수 없으시었다.

나들문쪽으로 몇걸음 옮기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한청인쪽으로 돌아서시었다.

리순이 생각이 떠오르신것이다.

《작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보니 리순동무생각을 미처 못했구만. 그래 갈매기쳐녀는 잘 있습니까?》

뜻밖의 물으심을 받은 한청인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실리었다.

《예, 잘 있습니다.》

자아드는 목소리로 대답을 드린 그는 인츰 눈길을 떨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언제인가 한청인이 안무한 무용 《포구의 갈매기》에 출연하였던 리순을 그려보시며 또다시 친근하게 물으시었다.

《그런데 그 동무가 왜 이번 작품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한청인은 얼굴을 붉히며 긴 팔을 모아잡고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저...》

머뭇거리는 그를 대신하여 곁에 서있던 나이지숙한 예술단단장 림승진이 한발 나서며 리순은 무용수로서 나이도 있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 극장생활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단 말이지요?》

림승진단장의 말을 되뇌이시는 장군님의 심중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의혹이 잔물결을 일으키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나들문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극장을 나서신 장군님께서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승용차에 오르시었다.

밤하늘에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림춘이 지난 때여서인지 배꽃같은 함박눈이 평평내려도 파스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밤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밤하늘에 고요히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을 차창으로 이윽히 내다보시었다.

지금까지 훌륭한 무용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던 한청인이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그렇게 뜻이 모호하고 의도가 명백치 않은 얼치기작품을 내놓았는가. 꿈도 크던 리순은 왜 서둘러 무대를 내렸는지...

물론 건강상태가 나쁠수도 있지만 무용강사생활이야 할수 있지 않겠는가...

되새길수록 석연치 않은 생각이 눈덩이처럼 커지었다.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차창밖으로 눈내리는 수도의 밤거리를 내다보시던 그이의 뇌리에는 문득 리순을 처음 만나시었던 일이 떠오르시었다.

이제는 퍼그나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동해안지구 농장들의 가을걷이실태와 예상수확고를 료해하시고 돌아오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차창밖을 내다보시었다.

벼가울의 설참인지 큰길에서 얼마쯤 떨어진 논에서는 노래 《돈돌라리》에 맞추어 흥겨운 군중무용이 펼쳐지고있었다.

승용차를 멈추게 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어 길곶에 나서시었다. 그러시고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그쪽을 바라보시었다.

가을걷이를 도와주러 나왔던 지원자들과 농장의 젊은이들이 반쯤 가을한 논에서 서로 쌍을 이루기도 하고 다같이 원을 짓기도 하면서 흥에 겨워 춤을 추고있었다.

그들가운데서도 파란색장화를 가뜰히 받쳐신은 몸매 갈람한 나 어린 처녀가 유묘하게 눈길을 끌고있었다.

가름한 얼굴에 담겨진 표정도 이쁘고 섬세하지만 보다 인상적인것은 조선춤의 고유한 특성과 향토적 색채가 짙은 룰동이었다.

귀밑에서 남실거리는 단발머리며 홍조가 비끼는 애된 얼굴로 보아 녀학생이 분명한데 춤가락이 다양하면서도 기교적인데다가 개성이 뚜렷하고 성격적이었다.

군중무용의 흥취를 더욱 돋구어주는것은 구성지게 울리는 덩더궁장단이였다.

누런 낫양푼에 띄이고나왔던 샘물을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던 녀인들은 그 물우에 바가지를 얹어 놓고 덩더궁장단을 치면서 건드러지게 가락을 뽑았다.

구수한 난알향기와 함께 실려오는 룰동적인 화풍, 흥에 겨운 노래소리...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풍년벌의 이채로운 풍경을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논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장군님께서도 수령님의 뒤를 따라 걸으시었다.

그제야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환성을 울리며 논두렁을 가로질러 달려나왔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인사를 일일이 받아주시고 가을걷이실태와 농장살림에 대하여 물으신 다음 팔

에 매달려 발을 동동 구르는 녀학생을 돌아보시었다.

《춤을 잘 추더구나. 이름이 뭐냐?》

수령님의 물으심에 녀학생은 청아한 목소리로 《리순입니다.》라고 대답올렸다.

이름도 얼굴처럼 얄전하고 고운 리순에게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다정히 물으시었다.

《중학생같은데 이다음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하겠니. 웬?》

일요일이라 동무들과 함께 부모님들의 새참을 가지고나왔던 리순은 눈매고운 얼굴에 수집음을 담고 곁에 서있는 녀인을 살며시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속삭이였다.

《이럴 땐 어쩔 좋아요. 예?》

방금전에 멋지게 바가지장단을 치던 풍만한 체격의 녀인이 황송한 몸가짐으로 한발 나섰다.

《수령님, 이 앤 제 딸입니다. 노래랑 춤이랑 하두 좋아하길래 이다음 우리 마을 애들을 가르치는 교양원이 되라고 일렀습니다.》

녀인의 소박한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환히 웃으시었다.

《유치원교양원도 춤을 잘 추어야지. 하지만 리순에게엔 무용가의 천성적인 재능이 있으니 무용배우로 키우면 더 좋을것 같소.》

《무용배우로 말입니까?》

너무도 벽찬 사랑의 말씀을 받아안은 녀인은 가슴이 부풀어오르게 숨을 들이쉬였다.

그때로부터 몇년후 지방예술단의 공연을 보아주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무용배우로 자라난 리순을 반갑게 만나주시었다.

그리고 훌륭한 무용수가 되라고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다.

그후 리순은 재능있는 안무가인 한청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장군님의 생각은 언제인가 한청인에게서 재미나게 들으셨던 그들의 결혼이야기로 이어지였다.

어느해 봄 평양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음악무용대공연이 진행되였다.

그때 무용배우로 대공연에 참가하였던 한청인은 같은 종목에 찬조출연한 리순을 처음 알게 되였다.

류달리 수집음 잘 타는 이 처녀가 앞날의 안무가가 될 푸른 꿈을 안고사는 젊은 청년의 눈에 담겨지기 시작한것은 아름다운 용모나 사심없는 헌신성 때문만이 아니였다.

달과 달을 이은 창조의 나날에 한청인은 처녀의 뛰어난 재능에 완전히 매혹되었던 것이다.

대공연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리순을 바래우며 그는 휴가를 받고 인츰 뒤따라 내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저… 우리 어머니 아마…》

흰 저고리고름을 손가락에 감았다풀며 처녀는 고개를 외로 틀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쨌다는거요? 만약 날 퇴박 놓으면 그날로 동물 업고 뿔테요!》

위낙 울퉁불퉁이 센 한청인은 더운 숨을 내그으며 긴 팔을 흔들었다.

정말 그때로부터 한주일 후에 그는 리순을 찾아갔다.

처녀앞에서는 비록 호기를 부렸지만 정작 집에 도착하고보니 솜총각의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듯 쿵쿵 뛰었다.

한청인은 널뛰듯 쿵당거리는 가슴을 애써 달래이며 조심스럽게 처녀의 집에 들어섰다.

그날 한청인이 처음 만난 사람은 리순의 어머니였다. 그 여인은 진짜 함경도왕드살이었다.

남편에 비해 체통도 목소리도 두배나 크고 성격 또한 개방적인 그 여인은 총각을 보자 첫눈에 흥— 코방귀를 꺼며 돌아앉았다.

새색시같은 남편을 제껴놓고 집안살림을 좌지우지하는 그는 외동딸만은 사내다운 사내한테 시집보내겠다고 땅땅 별러왔다는 것이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 여인이 딸을 두고 하늘이나 바다나 하고 코를 잔뜩 높이는데는 그 지방풍습때문이기도 하였다.

북청지방에서는 예로부터 청명날이면 한해농사를 시작하는 기쁨을 안고 온 동네가 모여 흥겨운 춤판을 벌리곤 하였는데 여기에서 춤을 잘 추는 처녀는 마을에서 제일 용감하고 일 잘하는 총각에게 시집을 갔다.

하여 리순의 어머니는 인물곱고 마음씨곱고 춤 잘 추는 딸에게 반드시 훌륭한 총각이 나설거라고 철석같이 믿고있었다.

그런데 천리길을 달려온 평양총각은 이목구비 바로 배기고 키쫘은 있지만 살결이 해말썽하고 허리가 한줌만 한 무용수였다.

《자네에겐 내 딸을 못 주겠네.》

누구든 기가 꺾이고 단박 주눅이 들게 하는 억양이 센 북관사투리로 여인은 몽들하게 잘라 말하였다.

순간 평양총각의 가슴에 불이 확 당기었다.

《왜 못 준다는겁니까? 예? 무용배우는 같은 예술인과 살아야 행복하답니다.》

눈빛이 여물고 목소리가 찡찡한 총각은 나 죽었소 하고 쉽게 물러갈 잡도리가 아니었다.

자기앞에 차레진 떡그릇도 끌어당기지 못할 꿈생님인줄 알았더니 웬걸…

총각의 반발심은 뜻밖에도 여인의 마음에 쏙 들었다.

(사내답구나!)

그때 여인의 눈은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후 여인은 총각앞에 다가앉아 정색을 지으며 다짐을 받아냈다.

《임자 우리 애를 계속 춤추게 해줄텐가?》

여인의 드살에 다소 기가 죽었던 한청인은 그제야 턱을 건뚫 쳐들었다.

《그건 절대 근심마십시오. 우린 무용세계를 떠나선 못사는 사람들이랍니다.》…

재미나고 인상깊게 들으셨던 그들의 결혼이야기를 상기하신 장군님의 마음은 저으기 무거우셨다.

우리 식이 아닌 춤가락들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리순은 왜서 무용에 참가하지 않았는지. 예술에 대한 남다른 사랑에 서로가 매혹되어 일생을 약속한 그들사이에 혹시 금이 간것은 아닌지…

그이의 생각은 더욱 깊어지시었다.

차창밖에서는 배꽃같은 함박눈이 내리고있었다.

×

민족악기들의 구성진 울림속에 무용 《돈돌라리》는 계속되고있었다.

시각적으로 안정되고 뜻이 선명한 예술적형상, 작품의 내용을 더욱 아름답게 부각시켜주는 구도의 조형미…

우아하고 황홀한 물동과 멋들어진 바가지장단으로 무용은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관람하는 한청인의 마음은 그지없이 설레이었다.

자기 몸의 한 부분처럼 너무도 눈에 익은 춤가락들이건만 볼수록 새삼스럽게 안겨들었다.

무용수들을 바라보던 그의 눈길은 안해에게서 떴었다. 순간 그는 예리한 바늘에 가슴을 찔리운듯 눈을 꼭 감았다.

생의 기쁨과 희열에 넘친 안해의 모습은 왜서인지 한없는 피로움을 하소연하며 찰랑찰랑 눈물을 머금고 쳐다보던 어제날의 모습을 상기시켜주었다.

야속하구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피로했던 지난날이 되새겨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한청인은 가슴저린 추억을 털어버리고 무용의 세계에 심취되려고 애썼다.

하지만 무대우에 펼쳐지는 화폭들은 새뽕안 운무 속에 휩싸여 연기처럼 사라지고 눈앞에는 피로움에 모대기던 지난날만이 우렁이 떠올랐다.

푸른 물결 아름다운 드넓은 바다를 잃고 울밑에서 애절하게 눈물짓던 갈매기처녀의 그 모습과 함께...

...두해전 여름.

민속무용 《돈돌라리》를 새롭게 형상할데 대한 창작과제를 받아안은 한청인의 가슴은 새로운 열망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지금까지 내놓은 작품들과 달리 이번에는 인물과 체격 그리고 물동에서 현대감이 나는 젊은 배우들로 화려하고 이채로운 현대무용의 본모기를 만들리라.

하여 처녀시절 지방예술단에서 4인무 《돈돌라리》에 출연하였던 안해의 이름도 창조성원명단에서 단호히 그어버리었다.

(나이는 둘째치더라도 육체적으로 보나 물동의 특징으로 보나 이제는 낡고 촌스럽거던....)

그러던 어느날 아침이었다.

그날도 한청인은 안해와 나란히 출근길에 올랐다. 극장으로 걸음을 옮기던 리순은 무엇때문인지 한동안 좀자르더니 힘겹게 말쑥지를 떼었다.

《저... 난 아무래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무대생활을 더 할것 같지 못하군요... 여보! 당신 지금 내 말을 들어요?》

줄지어선 가로수들을 바라보며 무용의 구도에 대하여 생각을 이어가던 한청인은 어느때없이 깔깔해진 안해의 눈길앞에서 자기를 수습하였다.

《듣고있소. 헌데 왜 그러오?》

《글쎄... 내 몸이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젠 무대생활을 아예 그만두고 집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저... 당신생각엔 어때요?》

한청인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아예 집으로 들어가겠다구? 건강때문에?)

그는 모국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동안 안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연보라빛수건에 감싸인 안해의 희맑은 얼굴에는 그 어떤 생각과 아귀를 짓지 못해하는 이름 못할 모지름이 담겨져있었다.

(무엇때문일까?)

한청인의 마음은 착잡하였다. 사실 안해는 며칠

전부터 무슨 생각에 골똘해지곤 하였었다.

한청인은 방금 안해가 던진 말이 창조성원명단에서 제외된 고까운 감정이 내포된 도전적인 태도의 반영이 아니겠는가 하고 머리를 굴리었다.

그는 곧 머리를 저었다.

정말이지 안해는 관절염이 심해서 해토무렵이나 절기가 바뀔 때면 다리가 부어오르고 그 동통때문에 공연이나 연습때는 물론 잠결에도 신음소리를 내곤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한청인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과 한동안 다투었다.

(안해의 의향을 지지해줄까? 아니면 끝까지 예술인대오에 있어야 한다고 말해줄까?)

문득 딸에게 일생 무용을 시키겠는가고 다짐을 받던 가시어머니의 길동그런 얼굴과 톡톡치 않은 눈빛이 확대되어 다가들었다. 어쩐지 그 눈빛앞에 땃땃치 못한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안해의 의향을 전제로 자기의 생각을 이어나갔다.

무용계에서 적지 않게 이름을 날리고 공훈배우의 명예도 지니었으니 이제 배우생활을 그만둔다고 별로 후회될것은 없지 않겠는가. 물론 건강이 담보된다면 별문제지만 구차스럽게 자리지킴이나 해선 무엇하랴.

지난날 제아무리 예술적재능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해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것을 알았을 때에는 신속히 자기의 설자리를 찾는것도 현명한 처사이다. 애착이나 욕망만으로는 현실을 대할수 없지 않는가.

결국 안해는 현실과 욕망사이의 간격을 괴롭지만 인정한것이라.

이윽고 그는 안해를 건너다보았다.

《당신생각이 그렇다면 가정을 돌보면서 병치료를 받는것도 좋을것 같구만. 뽀뽀뽀해도 건강이 첫째가 아니요?》

그는 험험한 태도로 웃음을 지으며 안해의 생각을 지지해주었다.

구두앞코숭이를 내려다보며 하많은 생각에 잠겨 걸던 안해는 걸음을 멈추고 눈길을 들었다.

《고마워요. 정말...》

그는 입안소리로 속삭이듯 중얼거리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방금 자기가 한 말과는 정반대의 뜻을 말하고있었다. 원망과 야속함이 담겨진 물기머금은 그의 눈빛은...

(그렇다면... 무대를 내리겠다는 말은... 그 말은 진심이 아니였는가?)

한청인의 마음은 더더욱 번거로웠다. 안해의 그

눈빛이 오래동안 너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눈빛이 자기의 광면적인 태도를 투시해보며 말없는 저주를 보내는것만 같아 은근히 두려웠다.

안해 역시 내성적인 성미 그대로 자기의 진심을 깊숙이 묻어둔채 폐사로운 생활을 이어나갔다.

아름하고 미묘한 감정들의 보이지 않는 마찰은 안해가 서둘러 수속을 끝내고 극장에서 나오는것으로 마무리된듯싶었다.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난 어느날, 바로 눈이 오던 그날 저녁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돈돌라리》 시연회가 진행되었던것이다. 한청인은 퇴근시간이 켜 지나서야 집으로 들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그의 마음은 괴롭기 그지없었다.

퇴근해들어온 남편을 여느때없이 반갑게 맞아준 안해는 저르기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장군님께서 당신이 만든 〈돈돌라리〉를 보아 주셨는지요?》

한청인은 피로운 표정으로 안해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갑자기 떠오르는것이 있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렇소. ... 장군님께서 당신의 안부를 물으시 더구만.》

《그이께서 저의 안부를요?》

안해는 심호흡을 하며 두손을 가슴앞에 모아잡았다. 류달리 생기를 머금었던 그의 눈가엔 한없는 그리움과 말 못하는 애절한 피로움이 소리없이 고래치고있었다.

안해는 서둘러 눈곱을 닦으며 다시 물었다.

《장군님께서 무용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

《시연회는 잘되었겠지요?》

끝이 없을것 같았다. 안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대답을 줄수 없는것으로 하여 한청인은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그는 더 말을 못하고 옷방으로 올라갔다.

피로와하는 남편의 표정에서 시연회결과를 짐작한 안해는 더이상 물음을 던지지 않았다.

안해를 피하여 옷방으로 올라간 한청인은 책상에 마주앉았다. 그는 심란해지는 마음을 달래이며 의자등받이에 기대어 스르시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

맥없이 드리운 팔에 파끈한 감각이 느껴졌다.

슬며시 눈을 떠보니 유치원생인 딸 진아의 별같은 눈동자가 새물새물 춤추며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밥잡수세요.》

두가닥으로 귀엽게 머리를 쏜진 팔에는 그 머리에 쏘힌 빨간 딸기방울이 흔들리게 팔을 잡고 흔들었다. 생글생글 웃으며 다시금 팔을 흔드는 팔애를 보고서야 그는 움쭉 의자에서 몸을 솟구었다.

아래방에 내려오니 앞치마를 두른 안해가 날렵한 손동작으로 밥상을 챙기고있었다. 팔밥에 김치깍두기, 도라지생채와 민물고기튀기 그리고 메주장에 푹추를 넣어 끓인 두부찌개...

밥상에 다가앉은 한청인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식생활에서도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언제봐야 김치깍두기에 두부찌개라니까...)

지난해 몇달동안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공연활동을 벌리고 돌아온 다음부터 왜서인지 그는 안해가 만드는 요리가 점점 단조로와보이면서 무엇인가 불만스러워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안해도 그때 함께 갔었는데 아직도 때뻑이 못한것이 자못 리해가 안되었다.

언제인가 생일초청을 받고 안해와 함께 찾아갔던 동창생네 집에서는 얼마나 산뜻하고 이채로운 요리를 만들었던가. 그런데...

그는 흥심없이 수저를 놀리었다.

팔애의 밥그릇에 토막낸 고기튀기를 놓아주던 안해가 눈길을 들었다.

《여보, 이번무용이 그전에 내가 출연했던 4인무 〈돈돌라리〉와 전혀 다른가요?》

한청인은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숙이었던 얼굴을 쳐들었다.

《당신은 또 그 옛적의 4인무타령이요?》

그는 흥심없이 수저를 놀리다말고 다시 옷방으로 올라갔다.

책상에 다가앉은 그는 가방속에서 안무구성안을 꺼내어 펼쳐놓았다. 시연회에 내놓은 무용을 보시고 하신 장군님의 심려어린 말씀이 또다시 귀전에 울려왔다.

그이의 말씀대로 무용전반에 일관시켜야 할 민족정서와 향토적인 색채를 어떻게 춤가락에 담을 것인가.

오랜 예술활동을 통하여 팔동작을 위주로 상체의 동작이 많은 동양춤뿐아니라 하체동작이 많은 서양춤에 대해서도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은근히 어깨를 높여오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일인지 이렇다 할 춤가락이 떠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새것의 탄생이란 끝없는 탐구와

모진 진통을 동반한다고 말한다. 땀과 시간에 정비례하여 얻어지는것이 알찬 열매라고도 했다.

하다면 정녕 나의 노력이 아직 부족했던 말인가. 아니, 나는 할수 있는것 다했다. 그렇다면 현실과 욕망의 불일치는 어디에서 온것인가. 무능? 침체?... 무능한자에게는 시간도 땀도 헛된 몸부림과 시간낭비에 불과한것이다.

습관대로 여러가지 춤동작을 표기해보던 그는 문득 연필을 든 손을 멈추었다. 은근히 풍겨오는 인삼분크림향기... 그 향기가 습배인 안해의 체취를 느낀 한청인은 고개를 돌렸다.

안해의 사려깊은 눈길이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여보, 이걸 좀 보아주지 않을까요?》

한청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안해가 조심스럽게 책상위에 내려놓는 크지 않은 학습장에 눈길을 주었다.

《이건 또 뭐요?》

그가 심드렁해서 묻자 가름한 얼굴에 어쭙은 미소를 그리며 안해는 책장을 번져보였다.

《이건 제가 짬짬이 찾아본 춤가락들인데... 당신이 새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가 해서요.》

《?!》

《저... 그러구 〈돈돌라리〉엔 바가지장단이 들어가야 제멋이 나지 않을까요? 내 그래서...》

안해는 조심스레 자기 의향을 내비치며 손가락으로 몇개의 표기된 춤가락들을 가리키었다.

순간 한청인의 얼굴에 쓴웃음이 피어올랐다.

이윽고 그는 못마땅한 눈길로 안해를 쳐다보고는 말없이 그 책을 옆으로 활- 밀어놓았다.

철썩! 무용표기집이 몸부림치듯 책장을 날리며 방바닥에 떨어졌다.

명암이 뒤바뀐채 정지된 화면처럼 굳어진 안해의 얼굴, 파르르 떨리는 긴 속눈썹...

잠시후 발치에 떨어진 무용표기집을 주어진 안해는 흐느낌소리를 씹어삼키며 아래방으로 내려갔다. 그의 흐느낌소리는 수천개의 예리한 바늘이 되어 한청인의 온몸을 찔러주는것 같았다.

그는 별치 않은 일로 안해의 눈물을 자아낸 자기 자신이 민망스러워 숨을 후- 내뿔었다. 어쩐지 요즘엔 안해의 모든것이 눈에 거슬리기만 하였다.

힘에 부친 편습이며 무대생활을 그만두면 나아지려니 했던 안해의 병은 점점 더 심해지는것 같았다. 출근시간과 공연시간에 맞추어 드바빠 뛰어다닐 때에도 온 집안에 넘쳐나던 웃음소리는 여운도 없이 사라지고 안해도 집도 다같이 생기를 잃고 퇴

색해버린듯싶었다.

한청인은 불만을 자아내는 가정사말사를 털어버리듯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는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춤동작을 표기해보았다.

오로지 창작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것은 그의 드림없는 생활신조이고 지론이었다. 창작을 위한 사색의 날과 달이 흘렀다.

현실체험까지 마친 한청인은 드디어 새로운 안무 구성안을 완성할수 있었다. 그는 직접 무용형상지도에도 뛰어들었다. 무용발표회를 앞두고는 아예 창조현장으로 침식을 옮기었다.

드디어 깡그리 심혈을 바친 무용을 발표회에 내놓는 날이 왔다.

심사석에 나온 사람들을 보자 그의 가슴은 후두둑 떨리었다. 과연 어떤 평가가 내려질것인가.

옥죄여드는 가슴을 애써 달래이던 그는 심사석의 불이 꺼지고 조명등이 켜지자 끝내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불안과 우려는 공연한것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에 진행된 예술위원회는 말그대로 안무가의 구태의연한 창작태도에 대한 강한 비판모임이었다.

유람식현실체험의 결과라고 비평하는 창작가도 있었고 현실을 무시하는 예술지상주의라고 모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고 제기하는 일군도 있었다.

예술위원회모임이 끝나자 한청인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밖으로 나왔다. 귀전에는 안무가때문에 무용수들만 고생한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던 어느 녀배우의 목소리가 증폭되어 들려왔다. 되새길수록 모질고 아픈 매였다.

불쑥 반발심이 솟구쳤다. 유람식현실체험? 예술지상주의? 다음순간 저도 모르게 김빠진 한숨만 길게 새어나왔다.

머리를 수긏하고 걸음을 옮기던 그는 지하건능길 앞에서야 자기가 지금 집으로 가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언제 층계를 올라 7층 9호앞에 이르렀는지. 그는 기계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밤늦게 들어와도 문소리나기 바쁘게 마주나와 모자며 가방을 받아주던 안해의 총총걸음소리가 웬일인지 들려오지 않았다.

(또 자리에 누웠는가?)

전등을 켜고 집안을 둘러보던 그는 우뚝 굳어지었다. 싸늘한 기운만 떠도는 빈방이었다.

(다들 어디 갔는가?)

이런저런 추측을 하던 그는 급히 책상앞으로 다

가갔다. 집을 비울 때마다 안해가 사연을 적은 글 쪽지를 책상우에 놓아두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다를가...

《진아 아버지!

병치료를 받기 위해 친정집으로 갑니다. 창작전 투로 바쁜 당신을 잘 도와드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만 얹어준 저를 욕 많이 해주세요.

진아를 데리고갑니다. 그동안 집살림은 누이에게 부탁했으니 잘 돌봐줄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삼시에 가슴속으로 서늘한 바람이 휘익— 불어치더니 마음은 그지없이 서늘퍼지었다.

다시금 굴줄을 더듬던 그는 편지쓴 날자에 눈길을 박았다. 이를전이었다. 그제야 자기가 며칠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멋진 무용》을 만드느라고?

그는 더이상 자기를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전신의 맥이 삼시에 쭉 빠지고 아래도리가 매시시해났다. 그는 물먹은 토담처럼 허물어지듯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

민속무용 《돈돌라리》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밀도가 높은 절정장면의 기교동작들은 관중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 새로운 열정과 환희를 가슴뿌듯이 안겨주었다.

물둥이야말로 얼마나 풍부한 언어를 가지고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종 만족하신 웃음을 지으며 무용을 보여주셨다.

강성국가의 새봄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 감정을 박력있고 약동적인 춤가락에 담아 펼쳐놓는 무용수들...

장군님의 사색은 또다시 무용과 함께 새롭게 성장해온 한청인과 리순에게로 이어지셨다.

...

그날 아침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세번째로 록화기의 시동단추를 누르시었다.

동해안지구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여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을 밝혀주시고 새벽녘에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현지지도강행군길에 쌓이고쌓인 피로도 푸실새없이 야전열차에서 내리시는 걸음으로 집무실에 들어오시었다.

해당 부문 일군들로부터 발표회에 내놓았던 무용

록화테프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한시바삐 그것을 보고싶으셨던것이다.

한청인이 며칠전에 당조직을 찾아가 유아독존적인 자기의 창작태도를 허심하게 비판하였다는 보고를 들으신 장군님이시었다.

그동안 창작적고충이 컸을테지...

전화로 예술단단장과 한청인을 부르신 그이께서는 이제 그들이 오면 함께 식사라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며 록화기앞에 앉으시었다.

새롭게 편곡된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무용은 먼 저번시연회에 내놓았던것보다 얼마간 나아지기는 했지만 기교본위적인데다가 통속화되지 못하였고 또 기본춤가락이 없는 무용이였다. 때로 기발하면서도 화려한 동작들도 있지만 향토적인 정서를 감득하기 어려웠고 민족적인 향기도 느낄수 없으셨다.

또다시 허물어지는 기대와 믿음...

예로부터 창작가의 사상과 감정, 지향과 취미는 그가 내놓는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한다.

그래서 작품이자 곧 창작가라고 말하는것이다.

하다면 이 무용은 그대로 한청인이 아니겠는가.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내놓은 작품이 너무도 웅변적이고 직관적이 아닌가.

바로 그래서 안해마저 이 무용에서 제외시킨것이 분명했다. 더우기 안해의 재능을 하찮게 여기는 남편에 대한 야속하고 고까운 생각이 리순으로 하여금 무대를 내리게 하였으리라. ...

문득 리순이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집에 들어갔다고 하던 림승진단장의 말이 생각나셨다.

장군님의 눈앞에는 리순을 비롯한 관록있고 재능있는 예술인들의 모습이 한명한명 떠오른다.

그들은 모두가 예술로 당을 받들고 혁명에 이바지하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며 재사들이다.

생각을 이어가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문소리에 눈길을 드시었다.

집무실에 들어온 사람은 예술단단장 림승진과 한청인이였다.

《아! 예술단동무들이 왔구만. 어서 오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그들을 반겨 맞아주시었다.

《자, 안무가동무는 이쪽으로 오시오.》

웅색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춤거리던 한청인은 그제야 웅접탁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마음은 친근하신 장군님의 말씀과 인자하신 모습이 안겨주는 자애넘친 정으로 하여 한결 개운해지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들에게 따뜻이 안부를 물으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림승진단장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었다.

《단장동무, 요즈음 예술단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있습니까?》

안경테를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난 단장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창조에 힘을 집중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음악무용작품들을 형상하고있다고 정중히 말씀올리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예술부문에서 민족음악과 민족악기를 중시하고 민족적인 선물을 살려나가며 여기에 양악기를 잘 배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다시 림승진단장에게 물으시었다.

《지금 무용배우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합니까?》

잠시 머뭇거리던 단장은 무용배우들이 어려운 나라사정을 생각하면서 영양제를 요구하지 않고있으며 자기도 역시 그 문제에 무관심하였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영양제뿐아니라 배우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조용하나 저력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그이께서는 탁상일력의 빈 자리에 배우들의 영양제 문제며 종합검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적으신 다음 그밑에 두어번 밑줄을 그으시었다.

펜을 놓으신 그이께서는 한청인을 바라보시었다.

《요즘 리순동문 잘있습니까? 병때문에 집에 들어갔다는데 좀 어떻습니까?》

다정하신 그이의 물으심에 한청인은 당황해진 어조로 대답올리었다.

《조금 나아졌는데 얼마전에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친정집에?... 그 동무 친정집이 북청에 있지? 〈돈돌라리〉의 고향...》

황금나라 물결치는 풍요한 들판과 과일향기 넘쳐나는 청춘과원이며 갈매기 춤을 추는 푸르른 바다를 그려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답답한 어조로 다시 물으시었다.

《청인동문 이번무용을 만들면서 안해와 춤가락을 의논해보았습니까?》

한청인의 얼굴은 삼시에 화끈 달아올랐다.

《저... 사실은...》

그는 마른침을 삼키며 말끝을 흐리었다.

뭐라고 말씀드리랴.

안해쪽에서 먼저 무용을 론하려는것조차 시답지 않아하며 밀막아버렸던 자기가 아니던가.

더우기 남편을 돕기 위해 춤가락을 찾아내여 그것을 하나하나 표기해넣은 무용표기집까지 매정하게 밀어던진 자기가 아니던가...

자책에 잠겨있는 그에게 앉으라고 이르신 그이께서는 마주앉은 두사람을 건너다보시었다.

《방금전에 발표회에 내놓았던 무용을 보았습니다. 그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멋, 다시말해서 민족의 향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앉음새를 고치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물동의 예술인 무용에서 민족의 향기는 바로 춤가락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의 동작에 기초한 무용물동은 그 나라 인민들의 생활양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민족적정서에 맞게 다듬어지기때문에 민족적인 색채를 띠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무들도 잘 알것입니다. 그런데 창작실천에서는 그것을 왕왕 어긴단 말입니다.》

손세를 써가시며 무용예술의 본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한청인과 림승진단장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우리의 문학예술도 마땅히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예술을 창조한다고 하여 남의것을 본따거나 남의 비위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한다는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것, 우리의 멋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우리의것이란 주체성의 밑천이며 민족성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춤을 추어도 우리 장단에 맞추어 우리의 멋으로 춤을 추고 음식도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 우리 음식, 민족요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 안무가동문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혹시 평양랭면이나 설기떡보다 마카로니나 샌드위치를 더 좋아하진 않습니까?》

한청인의 얼굴은 귀뿌리까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앞에는 물기머금은 안해의 눈빛이 확대되어 안겨들었다.

메주장에 푹고추를 넣어 끓인 얼벌벌한 두부찌개며 김치깍두기를 즐겨 밥상에 놓아주던 안해를 손티를 벗지 못했다고 은근히 불만스러워해온데 대한

자격지심으로 가슴은 비틀리운듯 아파왔다.

돌이켜보면 안해가 무대를 내린것은 건강상태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소박당한 쓰라린 마음과 억울한 심정에 대한 자기나름의 몸부림이었다.

결국 남의것에 현혹되어 안해를 무시하였고 또 그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것이 아닌 열치기무용을 내놓은것이다. ...

속죄와 반성으로 고백치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듯 한청인을 이윽도록 지켜보시던 그이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탁엿을 천천히 오가 시였다.

지난날 《포구의 갈매기》, 《3인무》를 비롯한 수많은 무용작품에 출연하여 개성적인 물동으로 인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온 재능있는 배우가 다름아닌 남편에게서 배척을 당하다니...

우리의것과 인연이 없는 이색적인 사상독소란 이렇게도 모질고 집요하단 말인가.

가슴이 빠근해지쳤다.

장군님께서서는 뿔어오르는 의분을 지그시 누르시며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셨다.

그이의 생각은 깊어지쳤다.

오늘 시대가 발전하고 나라와 지역들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간, 지역별로 각이한 분야에서의 협조와 통합추이가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들의 창조와 건설을 위한 투쟁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주는데서 의의가 큰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남의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은 자기 인민, 자기 민족을 무시하고 예측과 자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은것이 아니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한청인네 한 가정의 일을 놓고서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존엄 있고 행복한 생활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활적인 문제라는데 대하여 더더욱 절감하게 되시였다.

창가에 서시여 못새들이 지저귀는 정원을 내다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돌아서시여 한청인이네와 마주 앉으시였다.

《우리의것을 사랑한다는 말의 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위에 일떠세우려는 강성국가도 바로 그 사랑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서는 집무실에 떠도는 무거운 분위기를 가셔버리시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럼 우리 함께 춤가락을 찾아봅시다.

우리의 멋으로 가꾸어지고 번영해갈 우리의 태양, 강성국가의 동틀날을 이 땅위에 안아오려는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의지를 담은 새로운 춤가락을 말입니다.》

(강성국가의 동틀날! 강성국가의 동틀날!)

한청인은 마음속으로 그이의 말씀을 몇번이고 곱씹어보았다.

새로운 창작적흥분으로 온몸이 찌릿해지였다.

《그래 청인동문 어떤것이 〈돈돌라리〉의 원색 춤가락인것 같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소탈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한청인은 당황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현대 무용의 본보기를 부르짖으며 그 어떤 새로운것을 운운하였지만 원색춤가락 하나 똑바로 찾지 못한 자기자신이였다.

그의 가슴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환멸과 자책감이 도랑물처럼 흘러들었다.

인상적인 그의 몸가짐을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빙긋이 웃음을 지으시였다.

《〈돈돌라리〉에는 향토적색채가 짙은 자기의 멋과 기본춤가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결치는듯 하는 팔의 놀림과 손을 들었다 내리우며 어깨춤을 추는 동작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민속무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춤가락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순간 한청인의 머리속에서는 번쩍! 번개가 일었다.

가지가지의 춤가락으로 뿌연 안개속같이 흐려졌던 그의 머리가 그 번개빛과 함께 삼시에 창창 밝아지는듯싶었다.

그는 온몸에 넘쳐나는 환희의 분출에 못이겨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장군님! 이제는, 이제는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다?》

그이께서는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그것만으로는 아직 안됩니다. 좀더 노력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시오.

그리고 무용소도구는 꽃이 아니라 양푼을 이고 나와 멋들어지게 바가지장단을 치면 향토적인 색채가 더 살아날수 있을겁니다. 소도구선택도 잘해야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을 실감있게 형상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장군님께서서는 화려하고 특색있는 무용을 그려보시듯 한동안 명상에 잠기시였다가 한

청인에게 물으시었다.

《리순동무가 지금 몇살입니까?》

《서른네살입니다.》

《서른넷… 그래 그 동무가 무대생활을 그리워하진 않습니까?》

《…》

《무대가 그리울 겁니다. 갈매기가 바다를 떠나서 못사는 것처럼… 청인동무, 우리 그 동무를 무대에 다시 세워줍시다. 서른네살이면 아직 몇년은 춤출 수 있소. 그의 건강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진 그이의 말씀에 한 청인은 목이 꺾 메어올랐다.

《장군님!》

그는 흐려드는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장군님께서는 그에게로 한걸음 다가서시었다.

《동무가 처가집에 찾아가 리순동무를 데리고 오시오. 그리고 이번절음에 가을풍경도 감상하면서 며칠간 현실에 몸을 폭 잠그고 안해와 함께 춤가락도 의논해보시오. 그러면 아마 좋은 무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한청인은 자꾸만 목이 메어올라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열도와 폭과 깊이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이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 앞에 머리만 깊이깊이 숙어질 뿐…

×

어느덧 무용은 끝났다.

무대에서는 어은금병창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절절하고 서정적인 음악이 울리었다.

은혜로운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강성부흥할 내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을 노래하는 녀가수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청인의 눈앞에는 무용이 완성되던 못 잇을 나날들이 또 다시 안겨왔다.

...

노르스름한 석비레로 매질한듯 잘 닦은 도로를 따라 허리에 빨간 띠를 두른 빠스는 경쾌하게 달리었다.

길녘의 높다란 벼랑이며 산자드락에 피어난 하얀색, 보라색 들국화들이 청초한 자태로 길손들에게 웃음을 보내주었다.

처가집이 가까와올수록 한청인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고무줄에 칭칭 감겨진듯 은근히 옥죄여 들었다.

빠스에서 내린 그는 낮익은 마을에 들어섰다.

집집의 창가마다 저녁해빛이 어리어 눈부시게 반

짝이고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있었다.

어느덧 처가집앞에 이른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집이었다. 결혼후 첫해와 그 이듬해에 몇번 다녀가고는 몇년동안 발길을 끊어온 처가집…

예대로 낮다란 대문은 어서 오라 반기는듯 열려져있는데 처마아래 주렁주렁 매달린 고추타래들은 처가집식구들의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정을 말해주는듯 저녁해빛에 반사되어 피같은 빨간빛을 내뿜고있었다.

문득 매운맛이 도는 시원하고 향긋한 김치가 떠오르며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해마다 가을이면 가시어머니가 보내주는 고추로 빨갛게 김치도 해넣고 크고작은 단지마다 메주장이며 젓갈을 담그던 안해의 모습도 떠올랐다. 김치각두기의 쟁한 맛을 음미해보던 그의 가슴은 별안간 와작 저러들었다.

색다른 요리를 만들줄 모른다고 친지들이 집에 찾아오는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안해를 탓해온 자기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다음순간 원망스러움이 담겨진 처가집부모와 표정이 근엄한 만치남이며 안해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아마 줄폭탄을 퍼부올테지. 하지만 난 그들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대문안에 들어섰다.

이때 부엌문이 활짝 열리며 문가에 가시어머니가 나타났다.

한청인은 한발자국 다가섰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조용히 울리었다.

김이 문문 오르는 돼지물바غه뜨를 들고 토방을 내려서던 녀인은 그제야 사위를 알아보고 우뚝 멈춰섰다.

《아니, 이게 진아 아범 아닌가?》

바غه뜨를 내려놓고 황황히 다가선 녀인은 두팔로 사위를 와락 부둥켜안았다.

《예구, 맨날 골골거리는 색시 데불구 사느라 열매 심들었소.》

남다르게 드살이 센만큼 인정도 눈물도 곱으로 많은 녀인은 몇년만에 찾아온 사위를 어루만지며 그냥 울고웃었다.

한청인은 가시어머니에게 몸을 맡긴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잠시후 편채반응이 일어난듯 아래, 웃방문이 벌컥벌컥 열리며 낮익은 모습들이 달려나왔다.

《아버지!》

포르릉— 새처럼 날아온 딸애가 별 눈을 반짝이며 팔에 매달렸다.

옷방문을 열고 나온 안해는 문설주에 기대어 눈굽을 닦으며 말없이 반기었다.

원망과 기쁨이 엇갈리는 안해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는 순간 한청인은 속죄의 마음을 안고 말없이 웅크렸다.

(어보! 리순이! 내가 왔소! 그토록 귀중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찾으려고 이렇게 달려왔소! 우리의 운명과 사랑의 보호자이신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요!)

심장의 더운 피가 삼시에 급류를 일으키며 온몸을 찌릿이 달구어주었다.

그날 저녁식사를 마친 처가집식구들은 미닫이문을 활짝 열고 아래옷방에 빙— 둘러앉았다.

가시어머니가 들여다놓은 삶은 고구마와 사과를 들면서 처남들은 올해농사작황에 대하여 한동안 이야기꽃을 피웠다.

화제는 점차 평양소식으로 이어지었다.

한청인은 집안식구들에게 처가집으로 내려오게 된 사연을 모두 터놓았다.

《어머니, 절 육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어머니와 한 약속을 어기구 집사람을 무대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춤 잘 추는 저 사람을 다시 무대에 세워주자고 하시며 안해를 데리고 오라고 나를 여기로 보내주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장군님께서 나를요?》

한편에 앉았던 리순이 어깨를 솟구며 눈을 흘겼다.

물기어린 목소리로 떠들거리던 그는 곁에 앉은 어머니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물결치듯 오르내리는 동그란 어깨…

안해의 흐느낌소리에 가슴이 뭉클 젖어든 한청인은 리순의 손을 더듬어쥐고 말없이 꼭 잡았다.

절절한 사죄와 애정의 마음을 안고 두번다시 변함없을 맹세를 다짐하면서 은근히 손에 힘을 주었다. 사랑을 고백하던 못 잊을 그 봄날, 그 저녁처럼…

그날 밤 처가집식구들은 기쁨속에, 웃음속에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축산반에 나갔던 가시어머니가 여느때없이 병글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래일 농장 결산분배한담데. 진아 아범두 나와서 구경하오. 분배날엔 젊은이들이 춤추구 노래랑

부르며 굉장함메.》

한청인은 싱긋이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그럴새가 없습시다. 우린 하루빨리 무용을 만드어야 하니까요.》

그의 대답에 가시어머니는 철썩 무릎을 쳤다.

《내 그만 자네들의 시간을 뺏을번 했구만. 에구, 촌에 뭘 구경할게 있겠다구…》

그는 허까지 끝끝 찼다.

다음날 날래게 아침밥상을 거두고 령감까지 차비시켜 앞세운 너인은 자기도 청비단으로 지은 반회장저고리를 보란듯이 차려입고 나섰다.

부엌에 내려온 그는 번쩍번쩍하게 닦아 선반에 얹어놓았던 양푼을 내리우고 바가지까지 척 담아 들었다.

《그것도 가지고나가는냐, 어머니?》

리순이 웃음어린 눈매로 물었다.

《아무렴, 오늘 춤 안 추면 언제 추겠니? 우리 농사군들 춤엔 이것이상 없단니까.》

그는 이제라도 장단이 울리면 한바탕 춤을 출듯 어깨를 들썩이며 싱글벙글거렸다. 이윽고 양푼을 이고 한손에 외손녀의 손을 잡은 가시어머니는 호기있게 집마당을 나섰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한청인은 안해와 함께 무용흐름을 엮어나갔다.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기본춤가락에 맞추어 무용을 완성하느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그들이었다.

한청인은 삼면거울앞에서 룰동을 이어가는 안해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입장단을 쳐주며 무용을 련결시켜보던 그는 눈살을 찌프리며 머리를 저었다. 아직도 무용흐름에서 인위적인것이 느껴졌다.

무엇때문일까?

이때 앞마당에서 승용차 밋는 소리가 들렸다. 열결에 창박을 내다보던 그는 우뚝 굳어졌다.

농장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하고있는 만처남이 어떤 사람을 안내하며 급히 마당에 들어서는것이였다.

《자, 어서 인사하오. 군당위원회 비서동지요.》

그는 흥분된 얼굴로 뒤따라들어온 풍채좋은 사람을 소개하였다.

《평양에서 온 안무가동집니까?

자, 어서 우리와 함께 갑시다.》

얼떠름한 기색으로 서있는 한청인과 리순을 번갈아보며 일군은 찾아온 사연을 말해주었다.

《우리 군을 현지도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이곳 농장에서 결산분배모임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안무가와 무용배우를 거기에 꼭 참가시키라고 말씀하시

였습니다. 새로운 무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장군님께서요?》

걱정으로 가슴을 들먹이던 한청인은 곁에 선 안해의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리순의 눈가에도 불안개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만치남의 거듭되는 재촉을 받고서야 그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들이 탄 승용차는 문화주택마을을 지나 분배장으로 꾸러진 리문화회관앞에서 멎었다.

분배장에서 울리는 농악소리에 끌려 걸음을 옮기던 한청인은 우뚝 멈추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희한한 광경앞에서 삼시에 취해버린것이었다.

드넓은 마당에서는 뽕파리며 북, 장새납에 맞추어 《돈돌라리》 춤바다가 펼쳐지고있었다.

푸른 하늘가에 웃음꽃을 날리며 손복춤을 추는 농장원처녀들과 어울려 열두발상모를 신나게 돌리는 건강미 넘쳐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그대로 한쪽의 아름다운 화폭이었다.

갈노전을 퍼놓은 한켠에서도 가시어머니를 비롯한 녀인들이 뚱뚱뚱 바가지장단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그 노래, 그 장단에 맞추어 마을의 늙은이들이 좋다! 좋지! 흥에 겨워 곱새춤을 추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노래인가. 얼마나 흥겹고 광만적인 우리의 춤가락인가.

진정 우리 땅, 우리의 하늘아래서만 찾아볼수 있는 우리 장단, 우리 노래, 우리의 멋이었다.

춤바다를 바라보는 한청인의 마음은 류다른 흥분으로 높뛰었다.

문득 춤을 추고싶은 욕망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곁에 선 안해를 돌아보았다. 리순의 어깨도 흥분으로 가볍게 오르내리었다.

드디어 희열에 넘친 두 눈빛이 마주쳤다.

(여보! 어서!)

한청인의 눈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어깨나란히 춤판에 들어섰다.

마음속에 안무구성안을 활짝 펼쳐놓은 한청인은 안해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흥에 겨워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보배산천에 돈돌라리요

리순은 발짓하게 상기된 얼굴에 함뿔 웃음을 담고 풍년벌을 가꾸는 농장원들의 기쁨과 행복을 춤가락으로 펼쳐놓았다.

산에 가면 산이 모두 황금산이라

열매가 주렁저 돈돌라리요

한청인은 열심히 춤을 추면서도 안해와 사람들의 춤동작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하나 표기해나갔다. 양푼에 바가지를 띄운 소도구도 춤동작보표에 첨부하면서...

신기하게도 무용전반이 쭈욱— 판통되었다.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보배산천에 돈돌라리요

들에 가면 들이 모두 풍년벌이라

금나락 넘쳐나 돈돌라리요

넘쳐나는 희열과 흥분을 안고 무용흐름을 익혀가던 한청인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아! 이것이 아니라!

민족의 토양에 깊고깊은 뿌리를 내리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무용을 창작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장군님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향해 목청껏 웨치고싶었다.

자기의것을 진정으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더 빛내어나갈 수 있다고!

×

폭풍같은 환호소리가 장내를 진감했을 때에야 한청인은 공연이 전부 끝났다는것을 깨달았다.

끝결에도 그리던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한 예술인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열광의 환호를 올리었다.

장군님께서는 친근한 답례로 손을 흔드시며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고 관람자들에게도 인사를 보내시며 관람석을 나서시었다.

어느덧 사람들의 물결에 합류되어 객석을 나오던 한청인은 자기를 찾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안해가 흥분된 얼굴로 다가왔다.

《여보! 장군님께서 우릴 부르셨어요.》

《당신과 나를?》

사무치는 행복으로 굳어졌던 그는 안해의 재촉을 받고서야 서둘러 걸음을 옮기었다.

휴게실에 들어서는 창작가들을 반갑게 맞아주던 장군님께서는 한청인과 리순을 보시고 친히 마주걸어오시었다.

그이를 우러러 리순은 감사의 큰절을 올리었다.

이름없는 농촌마을소녀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우리의 희망찬 새해

리 영 철

송이송이 내리는 눈송이도
축하의 꽃보라로 뿌려지는 새해
가지마다 눈꽃을 피워올린 나무들도
축복의 꽃다발인양 향기 풍기는 새해
우리의 새해는 희망찬 새해

2013년

원수님의 새해축복에
아이들이 기뻐하고
어른들이 기뻐하고
온 나라 사람들모두가 기뻐하누나

따사로운 해빛이 눈부시게 비쳐드는
행복의 집집마다 새 년력을 걸어놓고
희망에 부푼 가슴들
안아보고 또 안아보는
뜻깊은 명절날들이여

어찌 기뻐하지 않으랴
붉은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이
아기를 품어안은 어머니들이
그 이름 자랑스런 우리의 청년들과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그 로병들이

못 잊을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 불러주신 대회장에서
받아안은 영광을 되새겨본다

원수님과 나는 약속이 있어
원수님의 넓은 품에 달려가 안길 그날만을
너도나도 그려보며 맞이한 새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조국청사에 위대한 경륜을 아로새길 이 한해
우리 맞이할 날과 달들은
원수님 마련해주신 뜻깊은 명절날들로
가득차있거늘

—새해를 축하합니다
흰눈처럼 깨끗한 인사와 인사
정답게 울려퍼지는 거리와 거리들에
흐르는 꽃물결, 뚜렷이 찍혀지는 저 발자국들은
경축의 열병광장을 향해서 가는 승리자들의 모습
영광의 대회장을 향해가는
복받은 사람들의 발걸음

희망차다
은혜로운 해빛만을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품에
사랑의 화원 행복의 화원으로 아름답게 만발할
우리의 세월은 영원무궁하리라
그것으로 오, 그것으로
우리의 새해는 희망차다

찾아주시고 오늘은 또다시 한생토록 나래펼칠 넓고
푸른 바다를 안겨주신 뜨거운 그 사랑에 삼가 큰
절을 올리는 갈매기치녀...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일으켜주시며 앞으로도 계속
춤을 추라고 따듯이 고무해주시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서는 창작가들을 둘러보시었다.

《오늘 공연이 잘되었습니다. 사상예술성도 높
고 우리의 정서가 흘러넘치는 종목들로 잘 편성했
습니다. 특히 〈돈돌라리〉가 멋있었습니다. 강성
국가의 동틀날을 부르는 좋은 춤이였습니다. 안무
가동무가 이번에도 좋은 춤을 만들었습니다.》

영광과 행복의 상상봉우에 오른 한청인의 눈굽은
또다시 젖어들었다.

무용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춤가락과 소도구에 이
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통채로 안겨주시는 장군님!

공연 매 종목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시

던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는 오늘 공연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순회
공연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순회공연을 통하여 사회주의강성국
가를 일떠세우는 우리 인민의 기상을 다시한번 높
이 과시해야 합니다.》

손세를 써가시며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는 그이의
안광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
으로 틀어쥐고 우리 민족이 후손만대 안겨살 행복
의 요람, 주체로 존엄높은 인민의 락원을 이 땅에
펼쳐주시려는 위대한 구상과 무한대의 담력이 빛
발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한청인과 리순의 가슴
은 한없이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가꾸어가시는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을 우리의 노래와 장단으로 더욱 아름답게 꽃피
워갈 굳은 마음으로 뜨겁게 뜨겁게 불타고있었다.

함께 가자 새 승리를 향하여

—나의 새해축하장—

김 정 순

새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받으시라 나의 새해축하장을
들끓는 북변 철의 도시에서
온 나라 방방곡곡의 그대들에게
쇠물같은 글발을 보낸다

얼마나 벅찬 한해를 보냈거나
서로의 불꽃튀는 일터들에서
드바빠 살던 우리
새해를 맞는 오늘 또다시
길지 않은 새해인사 보내거니

부디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보내는 인사는 짧아도
기나긴 열두달의 부락
다 담은 나의 새해축하장

함께 가자 나의 벗들아
우리 성실한 로력을 바쳐온 지난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가슴에 새기고
애국의 열정 끓이며
새해의 날과 달을
비약의 나라에 없고 맞고 보내자

한껏 재워진 태엽과도 같이
우리 한생애 가득찬 날과 날은
값없이 보내면 영원히 잃는것
값있게 보내면 영원히 우리의것

어찌 그저 빛없이 보내랴
천금같은 날과 날을
마치도 그 날과 달은
정렬한 병사들의 대오인듯
탄창가득 재워진 총알인듯
앞으로!
날자마다 나에게 구령을 치는듯
나의 구령 날과 달이 기다리는듯

나에겐 보이는구나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틀어쥐신
삼백예순다섯날이
위대한 선군혁명실록에
금문자로 새겨질 폐지로

창조하며 전진하는 삶만이
그 폐지에 새겨 빛나리라
우리의 생은 끝나도
이 땅에 남긴 투쟁의 자욱자욱은 길이 남아
세월에 세대에 전해지리라

그 뉘가 이 한해를
추억의 갈피에 소중히 간직할것인가
그 뉘가 이 한해를
값높이 빛내였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아
새해를 맞는 그날에 축하장에 남기자

조국에 드리자 새해축배를

정 동 찬

사랑하는 야금기지
나의 동지들이여
어서 새해축배를 들자
구내선 철길에 쇠물남비행렬도 나란히

줄지어 서있거니
출선구 터쳐놓고 축하연 차리세
새해의 첫 쇠물 마중함에

철의 도시 식솔들 다 모인셈이니
용해공과 일꾼들 흥금없는 사이
복받은 철의 도시 녀성들의 웃는 얼굴들
해당화처럼 붉게 피었구나

로의 바닥쇠물까지 다 쓸자면
아직도 출선은 시작인데
누구나 생각은 한뼘으로 이어진다
내닫는 쇠물길에 실리는 그리움 그리움
이렇듯 훌륭한 쇠물경치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으면

길지 않은 쇠물도랑에 넘치는 쇠물 보시고도
기쁨에 넘치시여
야전숨웃자락 제끼시던 장군님
조국이 기다리는 곳으로 어서 가라고
그이의 뜨거운 배웅속에 떠나던 쇠물
이 아침엔 눈굽을 적시며 흐르누나

이 강산 물들이는 노을처럼 피어나고
찬란한 내 조국의 미래처럼 비끼라고
아버이장군님을 그리며
새해 첫아침 첫 교대 쇠물절경 펼치니
못 견디게 그리워 쇠물처럼 타는 마음

하나 둘 셋 어서 대이라
남비가득 철철 넘치게 붓고싶은 쇠물
이 쇠물 생명수로 마시는 조국의 대지
아름다운 철의 무지개를 걸어놓고
강철의 무성한 숲으로 우거질게다

사랑하는 나의 동지들이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을 위하여
어머니조국에 드리자
철철 넘치게 실은 쇠물남비 덩실한 축배잔우에
보아라 새해맞이 해 등실 떠오른다

새 해의 들길

리 영 일

새해의 첫아침
거름을 듬뿍 싣고 들로 나가는 길
원수님의 신년사 자자구구 새겨보며
대원수님들의 유훈도 구절구절 곱씹으며
온 마을이 가는 길

포전휴게실이 있는 저 언덕길로
아버이수령님 자주 오시였다고
할아버지의 눈굽은 축축해지고
금옥같은 말씀을 적은 보물진 수첩을
우리 관리위원장은 자주 펼쳐보고...

장군님 오셨던 그날
그이께 회상기발표모임을 보여드린
청년작업반 분조장
거름실은 트랙터로 몰아가다 말고
현지도도표식비앞에 꽃 한송이 정히 놓는다

수령님과 장군님과 내 고향이
깊은 정을 맺은 이 길
대원수님들은 영원히 우리 포전에 계신다고

한밤에도 새벽에도 때없이 나와보며
농민의 마음 세워보는 이 들길

한짐한짐 거름짐마다에
그리움을 실으며 맹세를 실으며
새해엔 분조농사 더 잘 꽃피워
모두가 다수확을 내는 애국농민이 되자고
온 마을이 흥성인다 떠들썩인다

아무렴
농민이야 쌀을 많이 내야지
쌀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지켜
오직 한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쌀로써 높이높이 받들어모셔야지

숫눈길 폭폭 밟으며 거름 싣고가는
사람들 가슴마다 신심이 가득 넘치는데
어허 해가 솟는다
대원수님들의 축복이 있고
원수님 이끌어주시는 밝은 전망이 있어
고향벌의 앞길은 밝구나 휘황찬란하구나

|| 주체문학의 대강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가 인민의 념원과 요구로 제기된다고 하여 투쟁과 노력이 없이 저절로 원만히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사업을 자각성과 자연발생성에 맡겨서는 목적의식적으로 폭넓고 통이 크게 벌려나갈수 없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도 로동계급의 당의 유일적인 지도에 의하여서만 목적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사업으로 될수 있으며 확고한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힘있게 전개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다.》

혁명일화

조국의 귀중함을 심어주시려

우리 백두산혁명장군의 천만장병들이 언제나 늘 즐겨부르는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이 세상에 나온 지 여러해가 지난 주체86(1997)년 1월 21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내가 지켜선 조국》은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창작한 노래인데 곡도 좋고 가사도 좋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참으로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가사에도 있는것처럼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이 조국의 귀중함을 잘 알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준엄한 날에도 《내가 지켜선 조국》과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적들과 싸워이기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노래를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당시)에서 형상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은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참으로 생각이 깊어졌다.

주로 독창곡으로 불리워지던 한편의 노래를 합창으로 잘 형상하여 병사들과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조국애를 더욱 깊이 심어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뜨겁게 어려와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그 믿음을 안고 창작가들은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합창곡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오늘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은 공훈국가합창단의

힘있고 전투력있는 노래들을 들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한다.

금잔디 밟으며 첫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
내 자란 조국이 하도 소중해
가슴에 총안고 전호에 썼네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

많은 경우 예술소조공연에서 독창으로 불리우던 이 노래가 하늘땅을 뒤흔드는 퇴성벽력처럼 무진장한 성량이 울려나오는 공훈국가합창단에서 폭이 넓게 형상되어 울림으로써 그 사상적위력은 비할바없이 커지게 되였다.

하여 이 노래는 군인들은 말할것도 없고 인민들이 사는 곳 그 어디서나 높이 울리는 노래로 되었고 들을수록 내가 지켜선 조국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사상감정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하며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용사들로 자라나 조국의 부강번영에 한몸 다바칠 애국의 맹세로 심장을 끓게 하였다.

하기에 이 노래형상에 깃든 사연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들으며 한편의 노래를 가지고서도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애국심을 더욱 깊이 심어주시려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김 정 은

— 새해결의묵음 —

영예로운 사명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깊은 신년사를 심장깊이 새기며 새해를 맞는 이 아침 《조선문학》잡지에 새해결의를 발표한다고 하니 별로 생각이 많아진다. 그것은 이 글이 작가로서 우리 문단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다지는 엄숙한 서약이기때문이다.

나는 나이로 보나 창작경험으로 보나 젊은 작가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수령형상문학의 본보기적인 작품들을 많이 창작한 판록있는 로작가들이 하나, 둘 우리곁을 떠나가고 이제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우리 젊은 작가들의 어깨우에 많이 지워졌는데 나는 아직 작가로서 초학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들끓는 현실은 나에게 초학도라는 구실로 자기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사명감을 떨어버릴수 없다는것을 자각케 하여준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지만 수령형상문학 창작은 우리 작가들이 자기의 량심으로, 절대적인 의무로 간직하고 대를 이어가며 해야 할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 4.15문학창작단의 작가들은 오늘까지 그 영예로운 사명감에 충실했다.

지난해에도 우리 4.15문학창작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해방전야》, 《운명》과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오성산》, 《영원한 력사》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3인1당》을 옮긴 장편소설을 내놓았다.

올해에 우리 작가들은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사실 절세의 위인들께서 조국과 인민, 혁명앞에 한생토록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는 수령형상문학창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

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영원토록 길이 빛날 크나큰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 업적은 우리 작가들이 대를 두고 쓰고 또 써도 다 쓰지 못할것이다.

오늘은 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받들어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그 위대한 발자취를 한자욱도 놓침없이 따라서자면 우리 작가들이 신들메를 든듯히 조이고 부지런히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안타까운것은 나 자신이 작가로서 수령의 그 위대한 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하여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바로 이런 위인이시다! 하고 세상에 뽐뽐이 내놓을만 한 명작을 창작할수 있는 능력과 자신심이 부족하다는것이다. 아마도 이 고충은 내가 작가로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모자라는 능력을 탓하며 맥을 놓고 주저앉을수는 없다. 심장의 붉은 피를 찍어 쓰는 심정으로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쓰고 또 쓰는 것으로써 나를 작가로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한다.

나는 올해에 어버이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령도 업적을 형상한 장편소설을 창작완성한데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간석지건설령도업적을 형상한 새 장편소설창작에 달라붙어 연말까지 초고를 내놓으려고 한다.

조국과 인민, 시대앞에 지닌 작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감이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 사명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노력하고 분발하자!

나는 이 글을 단순히 이 한해의 결의로만 쓰는 것이 아니다.

4.15문학창작단 작가
윤 경 찬

백두산에서 다진 결의를 잊지 않고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의 첫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 누구나 크나큰 포부와 희망을 안고 새 결의를 다진다. 시인인 나역시 여기서 폐외로 되지 않는다.

이해엔 꼭 좋은 시가들을 더 많이 쓰리라, 이렇게 마음의 신들매를 한껏 조이며 서둘러 새해의 첫 진군길에 오른 나의 눈앞에는 지난해 시인들과 함께 걸었던 백두산답사행군길이 밝혀온다.

머리에 흰서리가 불린 인생의 로년기에 멀리 흘러간 군사복무의 나날들을 다시 불러 찾은듯 나는 병사시절의 마음 그대로 군복에 붉은별이 달린 모자를 쓰고 배낭을 지고 백두산을 찾았다.

그날의 감격과 환희는 끝이 없었다.

병사시절에 올랐던 혁명의 성산 백두산, 구름을 뚫고 치솟은 장군봉마루에 서서 백두산의 해돋이를 가슴에 안았다. 잡것이란 티끌만 한것도 남기지 않고 다 이 세상밖으로 휘뿌려던지는 백두산폭풍에 몸을 잠그었다. 시정의 바다인듯 조용히 굽히는 천지의 맑고 푸른 호심에 마음을 비쳐보았다. 그때의 나의 느낌과 충격은 이렇게 환호를 터뜨렸다.

아, 시의 세계는 백두산에 있구나! 시를 쓰자, 저렇듯 열렬하고 기세차고 정서가 풍만한 시가들을 쓰고 또 쓰자.

백두산위인들의 위업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시가작품들을!

나의 이 결심은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있는 시인들의 결의모임에서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지향과 요구로, 사명감으로 굳어졌다.

그렇다, 나는 새해에 백두산에서 받아안은 충격

과 감동을 사색과 탐구의 역센 나래로 활짝 펼치고 거창한 선군시대의 의지와 숨결이 맥박치는 시, 하여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시가작품들을 쓰겠다.

민족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수령을 결사옹위하여 걱정을 터쳤던 혁명시인들처럼 태양송가들을 쓰는데 나의 심혼을 바치고 온넛을 깡그리 불태우겠다.

결의와 실천은 결코 가까운것이 아니다.

나는 마라손선수가 되어 결승선을 향해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달리고 또 달리겠다. 나의 이 모습을 백두산이 항상 지켜본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달리는 시의 행군길에는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과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할 승리의 광장이 펼쳐져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한생을 군사복무의 길을 군가와 함께 걸어온 시인으로서 나는 장엄한 승리의 광장에 전투적랑만과 생활의 향기가 짙은 시가의 다발을 안고 들어서겠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몸과 마음을 세워놓고 쓰는 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쓰는 나의 시가 우리의 《광명성-3》호가 날으는 푸른 하늘가에 충정의 메아리로 울리게 하겠다.

나는 이것을 새해의 실천으로 선후배시인동지들 앞에 확인하고싶다.

시인 황 명 성

사회주의물명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더 많이...

새해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준다.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의 뜻깊은 신년사를 받아안고 더 밝고 광활한 전망을 신심에 넘쳐 바라보며 새해 주체102(2013)년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그 어느때보다도 크나큰 격정에 넘쳐 새로운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 따라 기어이 강성국가의 휘황한 미래를 하루빨리 이 땅위에 펼칠 비상한 각오가 모두의 마음속에 활활 타버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경축한 지난 한해는 우리 혁명력사에 특기할 전변을 아로새긴 기적의 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영원히 이 땅에 굽이쳐흐르게 하시려 불철주야 헌신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발자국따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앞에서 피눈물을 뿌리면서 다진 맹세를 지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위훈을 수놓아왔다.

하늘을 꿰지름듯 높이 솟은 현대적인 창전기리, 백만년의 력사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게 건설된 평양민속공원,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떨치며 또다시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전례없던 대기적이었다고 대비약이었다.

우리 소설가들도 시대의 숨결을 타고 어느때는 수년 걸리던 장편소설, 중편소설창작초고들을 몇달 동안에 끝내였고 현실에 깊이 들어가 선동성이 강한 단편소설들과 실화문학, 수필 등 다양한 글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일떠선 인민들을 고무하였다.

올해는 우리 소설가들이 더 큰 자욕, 더 빠른 걸음을 내짚을것을 요구한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조국의 비약에 보폭을 맞추자면 보통 각오가 없이는 안될것이다. 시대가 바라고 인민이 즐겨읽는 명작창작이 모든 소설가들의 당면한 새해목표로 되어야 한다.

위대한 사랑의 전설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내 나라, 군민대단결의 굳센 힘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빛내일 새해는 우리의 문단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많은 소재들을 작가들에게 제공하게 될것이 아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오른다.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다. 승리에 대한 희망과 신심이 북돋을

더욱 억세게 들어잡게 한다. 다만 걱정되는것은 나의 재능이다. 새해의 벅찬 현실, 아름다운 생활을 호흡하고 감수하는 능력을 높이자면 시대의 박동에 자신을 따라세우며 과감한 창작실천활동을 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난해 과학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을 쓰면서 창전거리건설장에 나가 단편소설과 여러편의 실화문학, 수필들을 발표했던 경험을 살려 올해에도 새 세기 산업혁명의 앞장에 선 과학자들속으로 깊이 들어가 어머니당에 깨끗한 량심을 바치고있는 시대의 전형을 더 많이 찾아내어 우리 문학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한몫 하겠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겠다.

소설가 한 정 아

평론의 권위를 높여나가겠다

새로운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는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맞는 이해의 첫아침은 류다른 감정과 환희를 불러준다.

뜻깊은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며 희망찬 새해를 신심과 락관에 넘쳐 바라보는 이 시각 우리 모든 평론가들의 가슴은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한다 해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따라 선군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나갈 충정의 맹세로 뜨겁게 불타오르고있다.

지난해에 우리 평론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장엄하고 격동적인 한해의 날과 달들을 깊은 사색과 탐구로 이어오면서 새로운 대고조 시대 문학창작을 선도하는 가치있는 평론들을 창작하여 문학의 새 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데서 자라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미래관에 대한 감동깊은 화폭》, 《세기의 언덕넘어 영원히 울려퍼질 수령흠모의 송가》, 《하나를 위한 심장에서 고동치는 충정의 메아리》, 《독특한 구성의 매력과 성격형상》 등 많은 평론들은 우리 당의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고 시대의 지향과 인민들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작품이 창작되도록 작가들을 도와주고 훌륭한 창작성과 경험을 일반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고 만족할수 없는것이 우리들의 심정이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 평론가들은 지난해에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사상리론적대가 정확히 서고 내용의 과학리론적심도가 보장된 평론, 창작실천에 적극 이바지하는 무게있고 격이 있는 명작평론을 많이 써내지 못하여 평론의 권위를 높이지 못한 자

책감도 느낀다.

올해에 우리 평론가들은 평론의 권위가 서야 문학창작활동에서 당의 문예정책이 철저히 구현될수 있고 선군문학이 힘있게 전진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평론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려고 한다.

나는 새해에 불타는 열정을 안고 평론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결심과 함께 선군문학을 선도하는 평론가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정열적인 독학가가 되어 실력가형의 평론가로 철저히 준비하려고 한다.

우리는 새해에도 **김정일**애국주의를 체현한 선군시대의 전형적성격창조에 대한 문제에 모를 박고 사색과 탐구를 기울이며 피타는 노력을 바쳐 철학적깊이가 있고 미학적주장이 강렬한 평론을 쓰려고 한다.

또한 지나온 년대들에 인민이 사랑하는 명작을 내놓아 문단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작가들의 창작적개성을 보여주는 작가론적평론창작에 힘을 넣으려고 한다.

평론창작의 혁신은 평론가들의 혁신적안목과 올바른 창작자세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다.

올해에 우리는 높은 문학정신과 미학적리상을 가지고 우리 시대 인간과 생활을 탐구하고 작가들의 창작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창작적고충을 같이 체험하면서 작가의 창작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도와주는 립장에서 평론활동을 벌려나가겠다.

우리 식 평론의 특성을 더 잘 살리고 시대가 요구하고 선군문학창작실천이 절실히 바라는 가치있는 명작평론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기쁨을 드리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것이 새해를 맞으며 다지는 우리들의 결의이다.

평론가 박 춘 택

조선의 자랑 《광명성-3》호여!

박 현 철

12월의 창공에 인공지구위성이 떴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긍지
우리의 영광인
《광명성-3》호 2호기가 높이 날은다

불줄기를 내뿜으며
화광을 일으키며
대지를 박차고 솟구친 우리의 위성
나는 지금 땅 위에서 너를 노래하지 않는다
지금 내 마음은 너와 함께 우주를 날거니

선군의 내 조국이 세계우에
더 높이 솟아오른 력사의 이 시각
한눈에 보여오누나
기쁨과 감격에 울고웃는 강산
만세의 환호성 진감하는
우리의 선군조국 사회주의 내 나라

날으자
조국과 인민의 뜨거운 축복 안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더 높이 솟구치자
제국주의자들의 정수리에

너의 그 불줄기를 휘뿌리며

진정 너는
우리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우리 생활 우리 미래 우리의 힘
너는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인민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위해
위대한 대원수님들 바라신 념원이거니

우리의 《광명성-3》호여!
위대한 대원수님들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하늘가를 날으며
어서 어서 아뢰이자
김정은원수님의 그 손길에 받들려
백두산대국의 무궁번영을 담보하며
내가 우주에 솟구쳐올랐음을

아, 진정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내 나라의 역센 퍼덕임
선군조선의 장엄한 기상이어
지금 우리의 《광명성-3》호는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떨치며
이 행성을 굽어보고있어라!

우주엔 조선의 자리길이 있다

리 명 옥

지구를 박차고
우주에 날아오른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영웅하도다
자랑차도다

이 행성 온 우주를 뒤흔들며 올려퍼지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장엄한 선율에
지금 온 나라 인민이 울고웃는다

세월이 안고왔더냐
거리거리에 마을과 마을들에
불꽃튀는 이 나라 일터마다에
세차게 일어번지는 환희의 열풍 감격의 파도

말해다오 세월아
어떻게 우주에 조선의 자리길이 새겨졌는가를
얼마나 시련에 찬 준엄한 나날들을 거쳐
얼마나 눈물에 젖은 만단사연들을 안고
오늘의 이날이 또 왔는가를

아, 못 견디게 젖어드는 장군님 생각이여
오늘의 이 조선의 영광을 위해 견고걸으신
못 잊을 강계의 눈보라길이 보여오고
눈보라 초소길 풍랑속 배길...
자욱자욱 선군장정 천만리가 다 보여온다

정녕 그것이 아니었더냐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이 아니었더냐
광활한 조선의 자리길을 우주에 억척같이
새기며
우주의 찬란한 별로 빛을 뿌리는
주체조선의 《광명성-3》호여
너는 우리 장군님의 리상
너는 우리 장군님의 기쁨

세기의 창공높이 솟아오른 《광명성-3》호
너는 우주의 별만이 아니다
사회주의 이 강토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
만년미래를 담보해주는 우리의 힘
이 행성이 부럽도록 기어이 일떠세울
선군조선 강성국가의 창창한 모습

아, 행복이고 영광이고 더없는 자랑이여라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후손들이 길이 복락할
강성국가의 자리길을 우주에 새긴
《광명성-3》호여
이 행성에 더 높이 더 크게 올려다오
백두산장군들의 영생불멸의 송가를!

우리의 환희

윤 봉 식

대지를 박차고 우주를 치뚫으며
번개마냥 날으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여
너의 그 장한 모습 바라보는 가슴속에서
환희의 웨침이 터져나온다
—우리의 위성이 하늘을 날은다!

아, 위성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우주를 휘어잡는 무진막강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힘을
온 세상에 보란듯이 펼쳐며
12월의 하늘가에 날아올랐구나

들으십니까 어버이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에 떠받들려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그리고 장한 우리 위성의 장쾌한 소리를
온 나라에 차넘치는 환희의 만세소리를

하늘가 아득히 날아오른 위성이여
우주에 닿은 너의 그 높이는
어버이 우리 장군님 조선을 안으시고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오신
애국헌신의 천만리가 잇닿은 높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펼쳐가시는
조국과 민족의 존엄의 높이 아니더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높으신 뜻을 받들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안아올린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의 위력 위성

세계여 보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아가는
힘찬 이 모습 크나큰 이 영광

기쁨이다 자랑이다 영광이다
우리의 대원수님들 안겨준 존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빛내주시는 그 존엄을
심장마다 지니고사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임이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할
영광과 환희가
하늘땅에 차넘치는 경사의 이날
사람들이여 가슴후련히
온 세상에 긍지높이 웨치자
—우리의 위성이 하늘을 날은다!
우리의 위성이 세계를 굽어본다!

가사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

김영철

나의 아버지 청춘시절
강선의 로앞에서 흘렸네
눈내리는 십이월에
쇠물뽑던 용해공이
나의 아버지였네

나의 어머니 청춘시절
해주와 하성에서 흘렸네
첫 렬차 떠나보내며
울고웃던 그 처녀가
나의 어머니였네

나의 보람찬 청춘시절
대를 이어 조국에 바치리
그날의 아버지처럼
그 나날의 어머니처럼
아 빛나게 살리

어머니의 목소리

문기창

사랑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 들을수록 아 정다워
그결에 있어도 멀리 있어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정다워

민음에 넘쳐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가슴에 새길수록 아 뜨거워
새벽길 걸어도 밤길을 걸어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뜨거워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
꿈에도 못 잊어 영원히 못 잊어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따르리

평론

뜨거운 진정이 쌓은 감명깊은 철학세계

권선철

우리는 노래를 사랑한다. 또 즐겨부른다.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담기고 우리의 꿈과 리상이 비껴있으며 우리의 열정과 기개가 맥박치는 노래와 함께 승리의 진군복소리를 크게 울려온 우리 혁명이기때문이다.

선군조선의 태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받들어 온 세계가 보란듯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와 신념의 메아리로 높이 울려가는 수많은 노래들속에 깊이있는 형상적 여운과 정서적감화력으로 끝없는 사색을 펼쳐주고 의미깊은 철학세계를 안겨주는 노래가 또다시 우리의 심장을 울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에서는 표현으로 한몫 보려고 할것이 아니라 전체 시형상을 통하여 한덩어리의 생동한 화폭을 펼쳐놓으면서 많은것을 련상시키고 깊은 여운을 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

끝없는 련상과 깊은 형상적여운.

여기에 오래전에 창작된 노래가 새로운 의미와 정서적충격을 안고 오늘에 와서 더 크게 불리워지고 래일에도 영원히 높이 울려갈 영원한 생명력, 항구적인 형상적견인력이 있다.

하다면 그런 련상과 여운은 어떻게, 무엇으로 오는가. 시에 맥박치는 시인의 진정, 이를 놓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저 한다.

추억, 사색, 여운

노래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의 가사형상은 전반적으로 추억과 회고의 감정정서적색갈을 띠고 유순하게, 평범하게 흘러간다. 요란한 주정도, 현란한 시어도, 걱정 of 소용돌이도 없이 매우 소박하게 엮어진 시형상이지만 가사의 밑바탕에 흐르는 사상정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나의 아버지 청춘시절
강선의 로앞에서 홀렷네
눈내리는 십이월에
쇠물뽑던 용해공이
나의 아버지였네

보다싶이 아버지의 청춘시절에 대한 추억의 감정이 그 어떤 미사려구에 둘러싸인 표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친 청춘 그자체에 대한 직관적표상으로 드러나고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표현에서가 아니라 전체의 시형상을 통해 얻어지는 생동한 화폭은 얼마나 많은 편상을 깊은 사색으로 깔아주고있는가.

천리마운동의 거세찬 봉화가 타오른 강선, 온 세상이 다 아는 강선이어서 그 강선의 로앞에서 홀렷다는 아버지의 청춘시절에 대한 추억은 뜨겁다. 《눈내리는 십이월에 쇠물뽑던 용해공》이었다는 시형상은 결코 인생길의 한 구간인 아버지의 청춘시절을 강선의 로를 배경으로 보여주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강선의 로앞에서 흐른 아버지의 청춘시절은 눈내리는 십이월이라는 자연의 계절적, 시공간적제시와 쇠물과 용해공이라는 대상현상의 제시만을 주는것이 아니라 그 용해공의 심장에 끓던 충정의 바다를 헤쳐보이고있다.

《눈내리는 십이월》이 불러오는 추억은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해도 다 저물어가는 주체45(1956)년 12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겹쌓이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 힘을 주시고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었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구호가 아니라 쇠물로 당을 받들고 수령을 옹위했던 용해공—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궁지와 자량의 정서로 무게있게 흐른다. 영원히 녹지 않는 12월의 흰눈을 안고 쇠물을 뽑던 그 용해장에 누구나가 마음을 잇대이고 바쳐온 청춘들, 아버지들이 안겨온다.

강선의 용해공의 심장속에 끓던 충정의 열과 녀이 웅건하고 깊이있는 시형상세계를 통해 천리마 대고조시기 인간들의 전인민적인 감정정서세계로 느껴지도록 《나》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끝없이 잇대여지는 편상을 깊은 사색의 세계로 이끌고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도 자못 절절하고 뜨겁다.

해주와 하성에서 흘러보낸 어머니의 청춘시절에 대한 표상을 《첫 렬차 떠나보내며/울고웃던 그 처녀》로 제시한 《나》의 궁지와 자부심도 역시 간고하고 시련에 찼던 혁명의 길에 조국의 어려운 짐을 스스로 걸머진 청춘의 열정과 망심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찬탄의 정서로 담담히 흐르고있는것이다. 해주—하성철길공사장에 나뻐치던 청춘의 열정과 담력이 자랑찬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 방불히 그려진다. 우리모두가 다 아는 력사적사건과 사실에 대한 제시를 통해 독자들의 편상의 계기를 해당 년

대기의 전투마당으로 이끌어간 시형상은 거기에 바쳐진 어머니의 청춘에 대한 궁지로움의 감정정서를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형상으로 이어주고있다.

가요의 1절과 2절에서 노래된 사상감정은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에 대한 추억의 감정으로 시작되어 그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친 이 나라 청춘들의 고귀한 행적에 대한 사색의 세계를 거쳐 마침내 뜨거운 정서적충격을 날고있다.

나의 보람찬 청춘시절
대를 이어 조국에 바치리
그날의 아버지처럼
그 나날의 어머니처럼
아 빛나게 살리

《보람찬 청춘시절》에 대한 해명이 1, 2절의 시련과 결부되어 직관적으로, 형상적으로 명백하게 주어져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바칠 때 조국과 더불어 빛나는 청춘시절에 대한 강렬한 형상적주장이 그들처럼 조국에 청춘을 바치리라는 호소적열정으로 뿜어진것이다.

《나의 보람찬 청춘시절/대를 이어 조국에 바치리》라는 시줄에 노래의 사상적알맹이가 심어져있다. 어머니조국에 바치여 보람차고 빛나는 삶에 대한 궁지로움을 계승의 철학으로, 그렇게 이어져 빛날 세대와 세대의 혁명의 녀의 계승으로 풀어낸 여기에 노래의 형상적주장이 뿜어올린 정서적여운의 우렁찬 메아리가 있는것이다. 평이하고 순탄하게 흘러가는 가사의 구절구절에 읽고나면 사색하게 하고 《나》의 청춘과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정서적여운이 짙은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을 돌이켜보는 추억이 진실하고 것처럼 살리라는 마음속 진정이 뜨거운데 있는것이다.

평범하달만치 일반적인 추억의 세계를 조국에 바친 아버지, 어머니의 보람찬 청춘시절에 대한 가슴뜨거운 추억의 세계로 이끌어감으로써 그 추억의 서정이 의미깊은 사색의 물결을 타고 전세대의 녀를 그대로 이어갈 새 세대 청춘의 신념과 의지의 메아리로 울려나오도록 한데 있는것이다. 여기서 《나》의 추억은 단순히 지나온 년대에 대한 시공간적화폭의 재생이 아니라 혁명선배들의 투쟁정신에 대한 감회깊은 추억이며 그 정신을 꿋꿋이 이어갈 정서적양양의 줄기찬 흐름이다.

누구나가 《나》의 추억을 사랑하며 그 추억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합치고싶어한다.

보람차게, 빛나게 살려는 청춘의 기백과 열정이 뜨거운 추억과 깊은 사색의 세계를 타고, 의미깊은 정서적여운의 강렬한 울림을 타고 심장과 심장으로 끝없이 메아리친다.

그때처럼, 그들처럼...

진정이 뜨거우면 감흥은 크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가장 뜨거우면서도 깨끗하고 진실하다. 그래서 그 뜨거움과 깨끗함이 터쳐올린 부름, 그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이 뿜어올린 웨침은 더욱 강렬한것이라.

하기에 우리는 다심하고 따뜻한 사랑을 천만자식에게 베푸는 당, 멀리에 있건, 가까이에 있건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비바람, 눈보라를 다 막아주는 당의 뜨겁고 인자한 모습을 어머니에 비겨 많이 노래한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손길, 다정한 눈빛과 타이름에 이르기까지 사랑에 젖고 뜨거움에 넘치고 믿음에 불타는 절절함이 스뵈어 어머니의 진정에 비겨 위대한 우리 당의 거룩한 모습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노래하고싶어 몸부림치는 시인들이며 자식들이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도 그 수많은 노래들중의 하나로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된 어머니당의 뜨거운 목소리를 심장으로 들으며 그 뜨거운 심장으로 노래하고싶어하는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웨침이다.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끝없이 울리는 우리 당의 목소리를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향도의 손길, 혁명의 한길로 부르는 따뜻한 부름으로 감수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느낌이 시형상세계를 통해 감득된다.

향도의 당과 혁명전사사이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식들사이의 혈연의 관계로 시화하면서도 단순히 낱아키워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온 나라를 보살피는 혁명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승화시킨 여기에 노래가 거둔 사상에술적성과의 한 측면이 있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형상이 새로운 시적의미를 담고 깊은 사색을 펼쳐주는 요인은 결코 우리 당의 위대한 모습을 사랑과 믿음의 정서로 노래하려고 애쓴 흔적에만 있지 않다. 우리 당의 목소리를 노래함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가장 정답고 친근하면서도 뜨거운 모습으로 부각시킨 형상적의도에 맞게 한 가정이 아니라 온 나라에 울리는 위대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승화시킨 형상세계에 있는것이다.

가사는 음미할수록 깊은 사색의 세계를 펼쳐주도록 그 형상력이 심원해야 한다. 한두마디의 표현으로써가 아니라 전체 시형상을 통해 펼쳐지는 생동한 화폭에 의해 한생 체험한 실생활과 느낌이 주는련상의 세계가 잇닿게 되고 그를 통한 사색과 감흥의 열도가 깊어지게 되는것이다.

이 땅의 천만자식들의 마음속 진정이 매개 절의 시형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더욱 깊어짐으로써 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된 우리 당의 목소리라는 철학적해명이 진실하고 뜨겁게 안겨온다.

사랑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 들을수록 아 정다워
그결에 있어도 멀리에 있다 해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정다워

어머니의 사랑은 한 집안문턱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당의 사랑에는 결에 있는 자식은 물론 멀리 있는 자식도 한품에 안아 소중히 품어주는 뜨거운 열과 정의 세계가 있다.

하기에 가사의 1절에서 노래된 사상감정은 사랑에 젖은 어머니당의 목소리를 끝없이 그리고 따르는 그리움의 정서로 서정흐름의 첫 매듭을 풀어내고있다. 항상 그 언제나 몸가까이 느껴지는 우리 당의 손길이며 보살핌이요 멀리 있을수록 더욱 뜨겁게 느껴오는 어머니당의 사랑이다.

가사의 2절에서 깊어진 사상정서는 믿음에 넘쳐있는 어머니당의 목소리를 새겨안으며 새로운 신심과 열정에 넘쳐 래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힘을 가다듬는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속 진정이다.

가사의 3절에서 터쳐진 형상적주장은 어머니의 그 목소린 한 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린다는 격정의 웨침이며 영원히 그 목소리를 따르리라는 격앙된 정서적충격으로 노래된 우리 당의 위대한 향도의 손길과 이끄심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확신이며 그 메아리이다.

사랑과 믿음으로 뜨거운 우리 당의 그 목소리를 지녀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굳히고 그 목소리를 안고 승리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 이 나라 천만군민의 장한 모습이 어머니의 뜨거운 진정을 온몸으로 감수하는 자식들의 감동의 격류를 타고 펼쳐진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 가장 깊은 곳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창조와 위훈의 크나큰 힘은 바로 심장으로 느끼는 어머니당의 이 목소리를 모두가 항상 지니고 살기때문이다 아니겠는가. 어머니와 자식의 혈육적인 관계를 초월한 우리 당과 혁명전사사이의 땀수 없는 운명의 관계, 정과 의리의 관계로 깊이있게 이끌어간 시형상이다.

어머니목소리처럼 정답게, 뜨겁게 감수되는 우리 당의 그 목소리는 낱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를 두고 느끼는 체험세계에 기초하여 깊은 체험과 생활에 대한 정서적파악을 심화하여 일반화함으로써 풍부한 서정성을 구현하고 진실한 시형상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하였다.

가사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과 사색은 주로 어머니의 목소리에 집착되면서 감성적인것과 이성적인것의 통일체로서의 시인의 강렬한 느낌에 의하여 개방되고있다. 사랑에 젖어있고 믿음에 넘쳐있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정답게, 뜨겁게 감수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진실한 느낌이 한가정에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온 나라에 울리는 우리 당의 목소리에 대한 대비적고찰을 통해 위대한 그 목소리를 간직하고 끝까지 따를 신념의 메아리로 승화되는것이다.

신 발 에 대 한 담 시

박 희 구

내 한생 잊을수 없네
세월이 흘러 반세기 지난 오늘에도
항일혁명투사가 들려준 이야기...

끝없는 혈전과 눈보라속의 행군
대오는 깊은 산중의 부락에서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하루밤 머물게 되었네

머나먼 행군길에 닳고
퐁퐁 언 장군님의 신발
화로불에 다 말리우더니
화로가에 정히 놓고
전령병과 주인집 나어린 소년도 잠들었네

이른새벽 잠을 깬 전령병
제일먼저 찾아보았네 장군님의 신발
하나 보이지 않았네
옆에서 자는 소년의 이불깃 열어본 전령병
깜짝 놀랐네
장군님의 신발 작은 가슴에 꼭 그러안고
잠든 나어린 소년앞에

장군님의 무릎에 무릅없이 앉아
권총을 만져보던 그 당돌한 소년

너와 나의 앞날도 장군님께 달려있다고
전령병이 속삭이듯 말할 때
그처럼 빛나던 새별눈

어린 소년의 기특한 마음과 온기가 스민
신발을 받아드리고
한없는 애무에 넘치신 음성으로
장군님은 목메여 말씀하셨네

—애야 내 기어이 이 신발 신고
너의 가슴에 크나큰 조국을 안겨주마

오, 신발을 꼭 그러안고
꿈속에서 소년의 웃음짓던 얼굴이 어려와
장군님 항일전의 진두에서
눈보라를 헤치시는 걸음 그리도 뜨거우셨고
장군님 따라나선 항일의 대오
천고밀림의 장설을 녹이며
해방의 봄을 안고
조국으로 조국으로 진군하였네

내 한생 잊을수 없네
세월이 흘러 반세기 지난 오늘에도
항일혁명투사가 들려준 이야기
아직은 력사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결에 있어도 정답고 멀리 있어도 정다운 목소리,
새벽길 걸어도 뜨겁고 밤길을 걸어도 뜨거운 그 목
소리를 그리는 자식으로서, 혁명전사로서의 순결함
과 순진성에 가사의 형상세계의 진실성과 철학적인
사상의 심오성이 있다.

어머니없이 나는 못산다고 웨친 어느 한 시인의
목소리처럼 어머니의 목소리 영원히 따르리라고 토
로한 시인의 목소리도 뜨겁고 절절하다.

그 위대하고 숭엄한 모습은 우리에게 따뜻한 정
과 사랑을 주고 넘치는 힘과 열정을 준다.

어머니처럼 언제 어디서나 때없이 찾고 부르며
안기고싶은 당, 어머니처럼 타이르고 속을 쓰고 잠
못이루며 천만자식의 운명을 안고 밤을 지새우는
당,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당에 대한 찬가는
부르고볼려도 못다 부를 노래이며 웨치고웨쳐도 끝
없을 영원한 메아리이다.

은은히 울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
를 못 잊어 눈곱젖는 시인의 모습이 구체적인 시형
상을 통해 방불히 그려지는것도 뜨거운 진정을 그
대로 터쳤기때문인것이다. 꾸밈도 가식도 없는 진
정을, 보래지도 덜지도 않은 느낌 그대로 소박하
게 읊었을뿐이다.

어머니—위대한 당을 찾고 부르는 시인의 목소리여,

당을 따라 변심없을 그대의 마음을 믿고, 오직 당
을 따라 한길만을 역세게 걸어갈 천만자식들의 힘
찬 걸음새를 믿고 언제나 뜨겁게, 언제나 진실하
게 울려퍼지라.

×

서로 다른 양상, 서로 다른 대상의 시형상을 놓
고 하나처럼 찾아보는 경험이 있다.

뜨거운 진정만이 높은 형상력을 대신하고 풍부한
서정성을 규제하며 커다란 감흥을 안겨준다는것이
가사의 형상세계를 파헤쳐보고 얻은 진리이다.

진정이란 시인의 넓이고 열이며 정이다. 자기의
목소리가 숨배고 자기의 열정과 숨결이 깃든 진정
을 터놓을 때 그 진정에 독자들은 매혹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힘있
게 전진하는 혁명대오는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
절처럼 자기의 청춘시절도 빛내이려는 혁명의 새
세대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영원히 따르려는 천
만자식들이 도도한 흐름을 이루고있기에 언제나 당
을 따라 승리의 한길로만 곧바로 갈것이다.

이것이 가사의 형상세계가 남기는 또 다른 여운
이다.

못 잊을 1월의 그날로부터

박 경 철

새해가 밝아왔다.

아버이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을 뿌리며 천만국민이 한없는 그리움속에 새해를 맞던 그날로부터 꼭 1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 1년후의 새해는 너무도 벅차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깊은 첫 신년사를 받아안으며 맞는 새해인것으로 하여 돌이켜보는 마음 감개무량하기 그지없다.

지난 1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으며 무엇을 간직하였는가? 어찌하여 사람마다 지난 1년을 류달리 못 잊어하며 뜨거운 걱정과 눈물속에 추억하고 또 추억하는가?

나의 눈앞에는 저도 모르게 지난해 1월 2일 아침이 금시련듯 생생히 밟혀온다.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하고 가슴속 아픈 상처를 안고 맞는 새해여서 허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 그 다음날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시교외에 있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향해 길을 떠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킬 불타는 일념으로 새해공동사설을 받들고 첫전투에 펼쳐나선 그곳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현실체험도 하면서 창작전투를 벌리기 위해서였다.

어슴푸레 밝아오는 삼교천쪽에서 맵쌀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나의 기분은 여전히 맑지 못하고 발걸음조차 더디게만 옮겨졌다.

지난 기간 나는 이런 길을 많이도 걸었었다.

그때의 그 걸음은 얼마나 활기차고 씩씩하였던가. 헌데 오늘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걸을 때 길옆의 어느 한 방송선전차에서 방송원의 걱정애 넘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나는 저절로 발걸음을 똑 멈추었다.

후두둑 뛰노는 가슴속에선 환희의 불꽃이 튀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오종훈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나의 귀전에 아니, 심장속에 흘러들었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데 어서 105땅크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그달음으로 찾아왔다고 하시며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가실 굳은 의지를 담아 인민군장병들과 팔을 끼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는 그 소식은 나의 온 심장을 짹 틀어잡고 감격과 흥분으로 세차게 끓게 하였다.

나의 눈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몸에서는 산도 떠웁히고 바다도 메울 장수힘이 우쥌 솟아올랐다.

그리고 허전한 마음을 짹 채우며 그 어떤 역센 기둥이 바위처럼 자리잡는것이였다.

나는 씨엉씨엉 걸음을 다그쳐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정문앞에 이르렀다.

기업소로 들어서는 수많은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승리의 신심과 락판이 차넘치고있었다.

저들도 방금 방송원의 걱정애 넘친 그 목소리를 들었으리라. 그 소식이 저들의 가슴에도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리라...

이것은 나 하나만의 체험이 아닐것이다.

우리 인민모두가 그날을 이렇게 체험하였으리라.

못 잊을 그날로부터 365일은 꿈같이 흘렀다.

정녕 이 1년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으며 무엇을 간직하였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런듯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더욱 훌륭히 꾸려지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이다. 그다음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전국각지에 모셔진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들이다.

정녕 지나온 이 한해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 무치는 그리움속에 날과 달이 흐른 그리움의 한해

였고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역사적전환의 시기가 펼쳐진 영광과 승리의 한해였다.

우리는 지난해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잊을수 없다.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이 제정되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천만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살아가는 긍지와 영예를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는 감격과 환희의 순간들을 맞이했었다.

어디 이뿐이라.

언제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크고작은 온갖 은정어린 조치들과 인민에게 안겨진 행복의 창조물들 그리고 일편단심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갈 천만군민의 불변의 의지가 온 세상에 파시되었다.

오직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이어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가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길우에서 꽃피었다고 생각하니 험준한 철령의 산발과 초도와 무도, 장재도의 바다길, 판문점이 어려온다.

이 1년 365일 매일, 매 시각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뜻과 덕망, 그 담력으로 우리 혁명을 최후승리에로 이끄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은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었다.

그렇다, 지난 1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 혈통으로 곳곳이 이어지는 태양의 역사속에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을 보았고 그 태양이 뿌려주는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을 가슴후더이 느꼈으며 그 태양을 자기 삶의 억센 신념의 기둥으로 간직하였다.

아니, 못 잊을 지난해 1월의 그날에 벌써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선군조선의 광휘로운 앞날을 내다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신 신년사의 가르치심따라 새해의 진군길에 온 나라 천만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따라나섰다.

그 대오속에 나도 한사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사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 불멸의 태양기를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올 불타는 맹세로 심장을 태우는 새해의 첫아침이다.

더 뜨거워지라 나의 고향아

전 승 일

온 한해 쇠물을 끓이며
뜨겁게 달아올라
선군조국 이 강토우에
후더운 열기 한껏 뿜어친
철의 도시 나의 고향아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너는 또다시 큼직한 걸음 내짚었구나
온 나라 전선이 소리쳐 찾는
강철의 산악을
듬직한 두어깨우에 떠메고

거대한 강철로 용광로들이
쇠물이 끓는 자기의 동가슴을 풀어헤쳤다
잘 익은 강피 붉은 비단처럼 밀어내는
압연기의 톨마다 번개가 일어번진다

강철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할
내 고향 철의 도시
너를 믿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이해에도 승리의 작전도
온 세상앞에 엄숙히 펼친것 아니냐

수천도 불덩어리가 되어
시련의 차디찬 세월에도
조국을 훈훈히 덥혀온 나의 고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떨쳐가시는 백두산대국을
강철의 산악으로 받들어가려니

믿어다오 조국이어
오직 불을 안고 나라의 맏아들들이 사는 나의
고향은
낮이나 밤이나 폭풍치고있음을

그날 그 한밤에 외 1편

—구장객주집앞에서—

김 덕 선

세월은 멀리 흘러갔건만
그날의 객주집은
초가이영 소복이 지붕에 얹고
옛모습 그대로 서있구나

우리 수령님
광복의 천리길 걸으시던 그날
여기에 들리시여 한밤을 지새신 그 사연
세월을 넘어 전해주고전해주는 집

밤은 깊어 가물거리는 등잔불
꺼져가는 조선의 운명을 바로잡으시듯
등잔심치 돌구고돌구시며
그 한밤 수령님 듣고계셨다

돈벌러 집떠난 아들의 생사 알길없어
금전판을 찾아왔던 어머니
아들이 굴에 묻혀 죽었다는 소식에
목놓아울던 피울음소리

그밤 수령님 듣고계셨다
새벽이면 어데론가 떠나가야 할 사람들
피를 태우는 한숨소리
강도 일제놈들을 저주하며
씩씩 소여물 썰던 외양간의 작두질소리

하늘의 별들도 지쳐 잠들었건만
나라 잃은 설움 너무도 가슴 아프시여
망국의 비운 너무도 무거우시여
잠드시지 못한 어리신 수령님

그날 그 한밤에
수령님은 인민의 어깨에서 노예의 멍에를 벗겨
주시려
자신의 한몸에 너무도 무거운
조국의 운명을 걸머지시었나니

여기서 수령님은 한밤을 지새우셨어도
그 한밤에 조선독립을 위해 지새울
수난의 긴긴밤들을 다 지새우신듯
겨레의 고통을 다 안아보신듯

집이여 성스러운 집이여
그날 그 한밤 그 누구도 몰랐어라
조국을 찾을 큰 뜻을 품으신 우리 수령님
여기 이 초가집에서 하루밤 쉬고가시였음을

그 세월은 저 멀리 흘러갔건만
그날의 객주집은 여기 서있구나
이 집에 어려있는 그날의 수령님모습과 함께
그날에 수령님 내다보신 내 조국의 모습과 함께

진정 몰랐습니다

진정 몰랐습니다
항공군부대 비행훈련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저의 가정을 찾아주시길줄은 진정 몰랐습니다

식사준비를 하는데 찾아와 미안하다고
자애로운 웃음 함뱉 지으신 그이
저의 집 가족사진을 보아주시며
행복한 가정이라 하시는 말씀

아, 어쩌면 어버이장군님 그 인정인듯
그 품에 안겨 걱정을 터뜨릴 때
저의 어깨 다정히 어루만져주신
그이의 품은 어버이장군님의 품이었습시다

그 품에 안겨 눈물흘리는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실줄은 정녕 몰랐습시다
최고사령관이 비행사의 안해들에게
남편들을 부탁하고 간다고 전해달라는 말씀

그리도 겸허하신 말씀
그리도 인정깊으신 말씀
저에게 하실줄 몰랐습니다
진정 몰랐습니다

아, 최고사령관 그이의 당부
이는 비행사들을 한생 사랑하는
우리 안해들의 사랑을 천만배로 더한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이었습시다

이는 비행사들은 나라의 보배라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사랑을 그대로 안고
우리 비행사들에게 정을 주신것입니다
자신의 모든것을 다 주신것입니다

그 사랑 그 정이 은빛날개되어
우리 비행사들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우리들은 남편들과 생사를 같이하며
내 나라에 푸른 하늘을 펼쳐갑니다



김택룡

1

유격대원 강주명은 밀영으로 돌아가는 길을 잘 알고있었다. 하지만 우정 왕청같은 방향을 잡아 그냥 산밭을 타고있었다. 혹시 밀정한테 뒤를 밟힐가봐서였다.

...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

...

저절로 코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도 그럴것이 입 대하여 처음으로 받은 단독임무를 제때에 흠할나위 없이 수행하고 부대로 돌아가고있었던것이다.

한창 인적없는 룡선길을 다그치던 그는 불시에 걸음을 똑 멈췄다. 시야에 특이한 광경이 안겨왔던 것이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찬찬히 내려다보느라니 류달리 깊게 패인 으스스한 골짜기의 넓다란 밀바닥 공지에서 군용차들이 뿌연 먼지를 뿜어올리며 뺨뺨게 오고가고있었다. 련속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는 차들의 적재함에는 건설자재가 툴림없는 갖가지 짐들이 그득그득 실려있었다. 직감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안겨왔다. 앙큼하기 짝이 없는 쪽발이놈들이 이 험한 산중에다 비밀특수공사를 벌리는게 아닐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당장 내려가서 자세하게 탐지하고싶은 생각이 불쑥 치밀어올랐다. 그러던 주명은 갑자기 자기의 오른쪽귀방울을 손가락으로 잡아채듯 꼭 비틀어댔다. 반드시 참아야 할 정황에 드닥쳤을 때 그가 저도 모르게 하는 버릇이다. 아니야, 내가 따로 임무를 받은것도 아닌데 괜히 덤뻐다가 예상 못한 일이라도... 주명은 다시한번 옆결에 귀방울을 비틀어채고는 가던 걸음을 썩 썩 계속했다. 한참후 주명은 아름다리나무가 울창

한 산밭들을 누비며 어지간한 거리를 축내었다. 온몸이 땀으로 끈끈해졌다. 그와 동무하듯 줄곧 얼핏얼핏 눈에 띄우던 강물줄기도 차츰 가늘어지더니 더는 보이지 않았다.

강주명은 퍼그나 높은 어느 한 산마루의 평퍼짐한 곳에서 슬그니 엉덩이를 붙이고 주저앉았다. 잠간 다리쉽도 할겸 여기서 지형을 좀더 푹푹히 가려보고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는 얼굴에 질펀히 내뺐뺐을 무명손수건으로 벽벽 문대기면서 휘휘 돌레를 살폈다. 어데라없이 발밑이 시원스레 굽어보였다. 물결치듯 연줄연줄 뻗어내린 검푸른 산줄기가 드넓은 바다인양 시야를 가득히 채웠다. 그 광막한 밀림의 바다 한복판을 헤가르며 마치 날리는 땡기오리처럼 구불구불 꼬리를 짓다가 아득히 사라져버린 한줄기의 재빛흐름이 바로 룡문강이다. 그러니 룡문강의 시원지인 저기 샷갓모양으로 유표하게 봉긋 솟아오른 봉우리가 다름아닌 대청산이 분명하였다. 결국 주명은 대청산에서 줄기줄기 뻗어내린 산밭들을 내쳐 타고온셈이었다.

주명의 가느스름히 좁혀진 눈은 지척에 바라보이는 대청산봉우리에서 좀처럼 떨어질줄을 몰랐다. 그 덩지 큰 산봉우리가 눈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서는것만 같았다. 금시 열풍을 들이킨듯 가슴이 후끈해왔다.

아, 대청산! 범바위굴! 아!— 더불어 그의 귀전에는 맑고 쟁쟁한 방울소리가 연연히 울리어왔다. 째라랑... 째라랑... 째라랑...

순간 마음속깊이에서 터져나오는 애끓는 부름소리가 그의 목안을 짹 메웠다.

(누나! 선생님!...)

2

잡판목이 뒤엀킨 숲속에서 유난히 새하얀 자태를

드러낸 애어린 봇나무의 가느다란 몸에 다정히 연분홍빛을 끼었던 저녁해의 잔광이 어느새 스러져가고있었다. 엷은 저녁어스름의 막이 살포시 내려앉아있는것이였다. 땡벌의 무더위에 기가 눌린듯 잠잠해있던 풀벌레들이 그제사 조심조심 입을 열기 시작했다. 찌룩… 찌룩… 켓— 켓— 찌룩… 찌룩…

풀벌레들의 가냘프고 소심한 울음소리는 숲과 잇닿은 방목터우에 서린 고즈넉한 정적을 한층 더 짙게 했다. 바로 그때 담장처럼 높이 우거진 수풀을 와삭와삭 헤치며 허름한 적삼을 걸친 다부지게 생긴 소년이 뿌려진 돌덩이마냥 불쑥 뛰쳐나왔다. 그는 정신없이 사위를 두리번거리었다. 톡톡치 않게 모가 선 그의 두눈은 절망적인 불안에 싸여 허둥대었다. 별안간 소년의 입에서 사뭇 떨리면서도 매흔 부름소리가 길게 터져나왔다.

《벼룩아!—》

그 소리는 괴괴한 대기속을 잡아찢듯이 날카롭게 울었다.

누렁소 한마리가 흠칠 놀란듯 잡초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느릿느릿 소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놈은 《음—머》하고 거센 소리를 내지르다가 소년이 물푸레회초리로 사납게 후려치는통에 후닥닥 물러났다. 황소는 어린 물이군한테 애꿎게 얻어맞은것이 억울한듯 대가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리고는 한켠에 몰키여 서성거리고있는 제포래의 소들틈에 인차 숨어버렸다.

울상이 된 소년은 풀덤불을 뚫고 짓궂아헤치면서 여기저기를 황황히 더듬었다.

《벼룩아—아!—》

목청껏 웨치는 소년의 목소리가 또다시 정적을 깨트리며 날아갔다. 뒤이어 그의 입에서는 악에 반친 위협조의 말마디들이 줄달아 튀어나왔다.

《이 벼룩새끼, 너 또 죽어봐라. 오늘 또… 오늘 또…》

지금 소년은 방목소 일곱마리 가운데서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춘 애꾸러기 소 한마리를 찾아해매는중이였다. 날이 저물기 전에 소우리에 들어서지 못하면 양지주가 가차없이 개화장으로 그를 두들겨팼것이다. 털이 흠갈색인데다 반들거리는 눈알을 땡글땡글 돌리며 살쾅살쾅 결눈질을 곧잘하는 수놈 하나가 자주 외파로 떨어져나가 판전을 보는탓에 소년은 날마다 빠질빠질 속을 태웠다. 그래 소년은 패심한 그놈한테 《벼룩》이라는 밋살스러운 별명을 붙여주었다. 개벼룩처럼 날썰게 뛰쳐달아나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곤 하기때문이었다.

소년이 이번엔 아까와는 반대편으로 다급히 방향을 돌리는데 마침 수림속 오솔길을 총총히 걸어나오던 키가 늘씬한 젊은 녀자와 마주쳤다.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었다.

(?!)

소년은 와뜰 놀라며 굳어졌다.

《아니, 주명이 아니예요?》

뜻밖에 주명이네 송암마을의 야학선생이었다.

《선…》

눈이 휘둥그레진 주명의 입에서는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았다.

자주색갈의 크지 않은 보꾸레미를 옆구리에 끼고 녀선생은 억실억실한 눈에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주명의 아래우를 여겨보았다.

《이렇게 늦게까지 소방목을 해요?》

《저… 저…》

별로 자주 만나지 않던 야학선생인지라 주명은 서먹서먹한 마음부터 앞섰다. 그리고 어째선지 점직한 생각이 들었다. 주명은 고개를 외로 틀면서 잃어진 소 한마리를 찾는중이라고 떠듬떠듬 대답을 했다.

《가만, 내 방금 저기 산속길을 오느라니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산짐승일거라구 생각했었는데 그게 혹시 소인지 몰라요. 어서 가보지요.》

녀선생은 얼른 돌파서더니 활달한 걸음으로 앞장섰다.

정말 산짐승이 아니고 제발 그놈의 애꾸러기 벼룩이였으면… 주명은 덤벼치면서 녀선생의 뒤를 바짝 따랐다.

녀선생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날래고 힘찼다. 치마자락이 바람을 안은듯 펄럭였다. 그들이 스무 발자국도 채 못 가서였다. 거무스레한 중소 한마리가 오솔길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내려오고있었다. 벼룩이었다.

《아이— 소가 맞구나! 와— 와—》

야학선생이 반가운 소리를 터치였다. 순간 형언 못할 기쁨의 섬광이 주명의 얼굴에도 편뜻 비끼었다. 안타까움에 바닥까지 말라들었던 그의 작은 가슴이 활짝 열리는것 같았다. 했으나 그것은 맨 첫 감정일뿐이었다. 주명은 불시에 야학선생을 떠밀치듯 한발 앞질러나가 벼룩이의 코뚜레를 와락 꼬잡아쥐었다. 그다음 소몸뚱이의 어데라없이를 건주고 힘껏 채찍을 내리갈겼다.

《이 새끼! 이 벼룩이새끼! 이 새끼!…》

소의 잔등과 대가리에서 아츠러운 짹짹소리가 튕겨올랐다. 소는 매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대가리를 저으며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약이 오를대로 오른 주명의 채찍은 사정없이 도리깨질하듯 했다.

대갈통에 먼바로 타격이 딱— 딱— 하고 가해지는 찰나 회초리가 지끈 부러져나갔다. 동시에 주명이라도 허양 그 자리에 벌렁 나자빠졌다. 모진 매를 참다못해 벼룩이가 그만 벌떡 대갈질을 하는통에 코뚜레를 놓치고 휘딱 뿌려진것이다. 벌떡 솟구쳐일어난 주명이 《에—익.》하면서 이를 악물고 재차 달려들자 야학선생이 그의 팔을 쥘싸게 거머잡았다.

《됐어요, 주명이. 분풀이가 그만하면 지나쳤어요. 됐어요.》

앞뒤를 못 가리던 주명은 대번에 숙어들지 않을수가 없었다. 놀람게도 야학방에서 조용조용 글을 가르치는 녀선생의 손아귀가 여간 아니였다. 게다가

너선생의 딸마디는 얼마나 은근하고 부드러운가.

《주명이, 집집승을 때로 다스리자구 마구 접어들어선 안돼요. 좀 다르게 생각해보라요.》

이렇게 말하며 야학선생이 해벌에 탄 손으로 소잔등을 살그니 쓸어주자 느낌이 다른지 그 몸뚱이에서는 흠칠흠칠 전율이 물결쳤다. 주명은 얼른 외면했다.

《자, 빨리 내려가자요. 아니, 애꾸러기가 언제 벌써?!》

야학선생은 호호 소리내며 웃으면서 다급히 아래쪽을 가리켜보였다. 아닌게아니라 그들이 말을 하는새 벼룩이는 태연한 거동으로 스적스적 오솔길을 내려가고있었다.

《자, 우리도 어서...》

얼굴에 사뭇 즐거운 표정을 띄우면서 야학선생이 오히려 주명을 재촉했다. 주명은 피씩 게면쩍은 웃음을 보이고 부리나케 소의 꿈무늬를 쫓아 내달았다. 여섯마리의 소들도 벼룩이를 기다리거나 한것처럼 줄레줄레 물려와 떼를 지었다. 그리고는 마을쪽으로 우르르 곧추 향해가는것이였다. 주명과 야학선생은 슬슬 소무리의 뒤를 따르기만 했다. 다른 때 같으면 주명이가 팬스레 소들의 궁둥이에 찰싹찰싹 채찍질을 해대면서 부산을 피웠을것이나 지금은 몸가짐이 아주 조심스러웠다. 그는 은근히 야학선생의 눈치를 살피게 되였다. 왜 그런지 무슨 죄를 지은것처럼 주눅이 드는 마음을 어쩔수가 없었다. 야학선생은 주명의 그런 내속을 날날이 들여다본듯 그에게로 재빨리 다가왔다.

《주명이, 저 애꾸러기가 외파로 달아나 재미를 보는 곳엔 꼭 먹이풀이 많지요?》

《예- 그래요. 선생님, 정말 그래요!》

사실 벼룩이가 몰래 저 혼자 떨어져나가 시간을 보내는데는 폐외없이 먹음직스러운 풀이 많은 곳이였다. 그것이 한층 더 주명의 부아를 돋구군 했었다. 다른 소들은 체쳐놓고 저 혼자만 배불리려는 그 심보가 고약한 양지주와 꼭같은 몸쓸놈이라고 생각되군 했었다. 야학선생이 어쩌면 그런걸 다 환히 꿰뚫어 알가... 낯은 이미 어둡시그레해왔다. 오래지 않아 먹물에 잠긴듯 캄캄해질것이다.

주명의 심중에는 새로운 불안이 스며들었다. 미련한 소들때문에 야학방에 가서 공부를 배워줄 너선생의 귀한 시간이 늦어지지 않겠는가.

주명은 피곳 야학선생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너선생은 잎이 촘촘한 가느다란 나무가지를 한손에 들고 휘휘 내저으면서 소들과 보조를 맞추는데 음해있었다. 점점 우리가 가까와질수록 소들의 걸음은 빨라졌다. 혹시 어느 소가 풀을 뜯자고 제멋대로 멈춰서면 너선생은 그놈이 놀랄가봐 나무가지로 살갑게 엉치를 건드려서 인츰 무리에 들어서게 했다. 일핏 보면 소물이군은 주명이가 아니라 야학선생인것 같았다. 침착한 걸음걸이... 자연스럽고 활달한 몸짓... 소물이에 여념이 없는 야학선생의 그 모습은 불현듯 주명의 눈앞에 며칠전의 일을

방불하게 떠올렸다.

...그날 주명은 양지주한테 불리워갔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쪽두새벽이였다.

《야- 물이야-》

양지주는 늘쌍 주명이를 이름대신 그렇게 불렀다. 제집의 소물이군이라는것이다.

《너 이제 나루터사공놈한테 뛰쳐가서 좀쌀 두말값을 당장 갖다놓으라구 해라. 처먹은지가 사흘이 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오늘중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한말을 더 붙인다구 해라, 빌어먹을 사공놈... 알겠냐?》

주명은 알겠노라고 제격 대꾸를 한 다음 나루터로 장달음쳤다.

뒤고개를 헐헐 넘으며 보니 벌써 어느 수수밭에서 극성스레 김을 매는 한 녀자가 있었다. 한이랑을 다 매고나서 허리를 펴는 그 녀자의 얼굴을 띄여본 주명은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야학선생이였던것이다. 야학선생의 밧그레 상형된 이마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줄줄이 맺혀있었다. 검정치마를 가튼히 노끈으로 동여매고 손에 호미를 든 그의 모습은 신통히도 마을에서 흔히 보게 되는 보통농사꾼녀인과 다름이 없었다. 곱게 배긴 흰 차돌같은이가 드러나게 상냥한 웃음을 지으면서 야학선생이 물었다.

《신새벽에 어델 가요, 주명이?》

《저... 저기... 나루터에...》

목안으로 모래알을 넘기듯 갑자르던 주명은 때늦게야 굵석 머리를 숙였다. 너선생은 여전히 밝은 웃음을 보이며 무슨 말인가 더 꺼낼듯 하다가 그만 두었다. 그래서인지 주명은 멋없이 재차 꾸벅 고개를 숙이고는 나루터로 발길을 돌렸다.

걸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야 리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가다오다 야학선생을 그저 먼발치에서 두세번 얼핏 보았을뿐이고 직접 마주서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가.

동네에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어젠가 먼 고장에서 부모를 다 잃어버린 선생은 의지할데가 없어 이모가 살고있는 여기 송암리로 왔다고 한다. 그가 얼마나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지 마을에 들어선 첫날부터 이모네 집의 무성한 밭김매기에 두팔걸고 나섰는지 않는가. 게다가 지리지 못사는 가난뱅이네 집들을 허물없이 찾아가서는 힘을 아끼지 않고 일손을 도와준다고 한다.

두루 생각을 굴리며 주명이 나루터길목에 접어들는데 어린애를 포단에 싸업은 막동이 엄마가 힘지나쳤다.

(?!...)

만나기만 하면 지주집에서 밤낮 고생한다고 살뜰히 말을 건네군 하던 그가 주명이한테 눈길도 주지 않고 훌 지나쳐버린다. 후후 흐느끼는것 같기도 하는데 혹시 무슨 불상사라도?...

오래지 않아 강가에 외파로 매놓은 매생이가 주명의 눈에 띄었다. 마침 사공로인이 나지막한 초막

결에서 허연 머리를 어깨에 파묻고 나무등걸처럼 덩덤히 앉아있었다.

《할아버지.》

주명의 부름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마지못한듯이 고개를 들었다. 주명은 양지주가 하던 소리를 그대로 옮겼다. 그러자 로인은 대뜸 분통을 터뜨렸다.

《사람가죽을 뒤집어쓴 족제비같은 놈!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쏘팔을 안겨주더니 한말을 더 받겠지구? 버락 무서운줄 모르는 더러운 놈!...》

로인의 턱이 우물우물 떨렸다.

바로 그때였다. 조금전까지도 발에서 김을 매던 야학선생이 검은 머리카락을 흘날리며 주명이네 쪽으로 뺨다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곧바로 사공로인의 앞으로 뛰어와 똑 멈춰섰다. 얼마나 숨이 찬지 흰저고리에 팽팽히 감싸인 어깨가 키질을 했다. 한테다 맨발이었다. 검정고무신은 양손에 갈라쥐었는데 왼쪽엄지발가락에는 새빨간 피가 내배어있었다. 돌부리에 부딪친 것이 분명했다.

《아니?!》

사공로인이 두눈을 흘렸다. 주명이라도 별안간 상스럽지 못한 일이 생긴 것 같아 속이 꿈지럭했다.

《아버님, 몸이... 좀... 어떠세요?》

아직 채 숨을 가라앉히지 못한 녀선생의 말은 토막이 났다.

《어이쿠— 무슨... 무슨 액운을 만났는지... 야학선생님, 이 허리가 좀체... 어이쿠!—》

《아버님, 그러면 내가 대신 배를 부릴테니 승낙해주세요.》

《웨라구요? 야학선생님이?!》

《예.》

《노델 췌본적이 있소?》

《예, 어렸을 때 좀...》

《아니아니, 그쯤 가지군 안되웨다. 여기 나루는 다른데하구는 판 다르웨다. 물살이 여간 급하질 않수다. 자칫하다간 배두 사람두 한시에 물귀신이 되구맙네다. 오죽하면 방금 죽게 된 애를 업구와서 사정사정하는 막동이 에밀 되돌려세웠겠수. 내 그게 너무 가슴에 걸려 들어가 누울수가 없어 이러구 앉아있수다.》

그 순간 야학선생이 로인의 두손을 덩석 끌어잡아쥐었다.

《아버님, 애를 기어이 살려야 합니다. 발길을 매는데 막동이 엄마가 울면서 지나갈때 물었더니 애가 글썸... 아버님! 위급합니다, 막동이가!》

야학선생의 말을 확인하듯 어린애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막동이 엄마가 금시 쓰러질듯이 허둥허둥 나타났다. 등에 업었던 애를 가슴에 돌려안고 어쩔줄 몰라하는 그의 얼굴에는 콩알같은 땀방울이 비물흐르듯 했다.

《아버님!》

이렇게 한마디를 남긴 야학선생은 무작정 나루배 쪽으로 내달렸다.

《아, 아니, 선생님— 이... 이 노를!》

로인이 황급히 웨쳐댔다. 손살같이 되돌아와 노대를 받아친 야학선생은 순식간에 나루터로 달려가 단참에 매생이를 기슭으로 바투 던져왔다.

《여기, 여길 꼭 잡으세요. 막동이 엄마, 너무 근심마세요.》

얼없이 헤엄치는 막동이 엄마를 기우뚱거리는 배에 올려앉힌 야학선생은 시퍼런 강물에 힘껏 노를 박았다. 삐그덕—칠썸, 삐그덕—칠썸... 쪽배는 꿈무니에 허연 물거품을 토하면서 속도 빠르게 강 한복판으로 육박해갔다. 야학선생은 늘씬한 허리를 쭉쭉 굽구며 물동적으로 걸차게 노를 저었다. 어깨가 좁고 등이 휘우듬한 사공로인은 입을 형 벌린 채 굳어진듯 까딱 움직이지 않고 멀어져가는 배만을 지켜보았다. 손에 땀을 쥔 주명이라도 배가 기슭에 닿을 때까지 눈길을 떼지 못했다.

《어— 틀림이 없군! 사공네 자손이...》

마침내 사공로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중얼거려었다...

자신만만히 극성스레 소떼를 몰아가는 야학선생의 모습과 우쭐우쭐 노를 젓던 그날의 모습이 한테 어우러져 주명의 심중은 금시 후더운 물결에 잠겨드는 듯싶었다. 녀선생에 대한 믿음과 존경, 선망의 감정이 츤츤 츤츤 그의 가슴을 채웠다.

(나한테 저런 누나가 있었으면... 나한테도 저런 누나가...)

그러는새 벌써 양지주의 덩실한 소우리앞마당에 들어섰다.

주명은 흠칫했다. 양지주가 앓는 소느꼴모양 벌거우리한 초롱불을 내들고 소우리를 지키는 파수처럼 앙버티고 서있는 것이었다.

버락같은 고향이 터져나왔다.

《이놈, 이 물이새끼야, 어데 가 처자빠져있다가 이제야 들어오는거야? 그러다 소들이 살이라도 내리거나 한마리라도 잃어지거나라도 하면 그래 네놈새끼 몸값 열을 합쳐도 갚을상싶어? 응, 이 버러지같은 놈새끼...》

양지주는 무턱대고 개화장을 쳐들었다. 주명이가 습관적으로 목을 쭉 움츠리는데 낮으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가만!》

야학선생이 도담한 자세로 다가왔다.

《소가 잃어진것두 아닌데 왜 애한테 매를 드는 거예요?》

양지주는 흠칫하더니 무슨 상관이나는듯 주명이 쪽으로 다시 돌아섰다.

《이 버러지같은 놈새끼에겐 매가 제격이지...》

들으라는듯 지껄이며 개화장을 다시 쳐들자 야학선생은 성큼 다가서더니 개화장을 마주잡았다.

《아니?!...》

양지주와 야학선생은 서로 마주 쏘아보았다.

양순하고 선한 미소가 잔잔하던 선생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기는 듯싶었다.

그 눈빛에 기가 질렸는지 양지주는 개화장을 뒤흔들고 허둥지둥 집쪽으로 사라져갔다. 땀이 뒤를 리는지 애행— 하고 군기침을 툭아뻘으며 떨어지는 양지주의 뒤를 바라보던 주명은 그만에야 황홀한 감탄의 눈길로 선생을 바라보았다. 정말 이 선생님은 보통이 아니라라는 생각에 새삼스레 그가 돋보였다.

야학선생은 그러한 주명의 뒤더수기를 살그머니 풀어주었다.

《주명이! 저런 놈들은 약한 사람은 더 내리누르고 짓밟으려 해요. 가슴을 꼭 펴요. 자, 이제 가세요.》

《음—머》

이젠 제집에 다 왔다는듯 벼룩이가 먼저 웅글은 소리를 내뿔었다. 그 소리가 신호나 되는 것처럼 소들이 부산을 피우며 우리안으로 앞서들어갔다고 밀치락대기 시작했다.

《가만가만, 와— 와—》

너선생이 텅비는 소들을 가볍게 나무랐다. 그러자 마치 어른을 따르는 애들마냥 소들이 고분고분해졌다. 주명은 또다시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다. 야학선생이 꼭 무슨 마술을 부리는 사람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잠시후 너선생은 소우리의 대문짝까지 꼼꼼히 돌아준 다음 《주명이, 오늘 수고 많았어요.》하는 말과 함께 상냥한 웃음을 남기고는 총총히 떠나갔다. 너선생의 가벼운 발자국소리가 어둠속에 잦아든 뒤에야 주명은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고맙다는 인사말 한마디도 미처 못하지 않았는가.

(난 바보야, 바보, 알짜 바보...)

주명은 비로소 요즘 마을사람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며 각별히 떠받들리우는 야학선생의 마음속에 확실히 남다른 그 무엇이 있다고 선망을 품게 되었다.

3

짖랑... 짖랑...

주명은 불시에 눈을 뜨고 몸을 벌떡 일으켰다. 이젠 갑자기 웬 소린가? 간밤도 소여물을 써느라 한시간이 채 못되게 겨우 눈을 붙였던 주명이였다. 그레 졸음을 쫓느라 샘물터에서 푸푸 세면을 하고 난 후 나무그늘밑에 앉았었는데 깜박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머슴살이로 토끼처럼 밝아진 그의 잠귀는 그 어떤 미세한 음향도 놓쳐버리는 법을 몰랐다. 주명은 달콤한 잠을 깨운 별난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두릿두릿 살폈다. 짖랑... 짖랑... 듣기는 좋아도 귀에 설은 소방울소리였다. 두눈을 썩썩 비벼대면서 주명은 방울소리를 따라 발뼉발뼉 풀썩을 헤쳐갔다.

(?!...)

그는 얼떠름해졌다. 호함진 검푸른 일새들이 번들거리는 키쟁충한 오리나무아래서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를 단정하게 입은 낮익은 야학선생이 소 한마리를 붙잡고 무엇인가 열심히 손질을 하고있었다. 소인즉 다름아닌 애꾸러기 벼룩이였다.

《선생님!—》

《아, 주명이에요요? 한창 굳잠에 들었길래...》

야학선생은 소를 농칠가봐서인지 주명이한테로 몸을 돌리지 못한채 급한 목소리로 알은체를 했다.

가까이로 다가선 주명은 너무나 의외의 일에 또다시 두눈이 둥그래졌다. 야학선생은 성미 류다른 벼룩이의 모가지에다 얼핏 보기에다 아주 멋진 새 노란 조그만 종이 매달린 삼끈을 동여매느라 몹시 애를 쓰는중이였다. 소가 성가신듯 대가리를 휘저을 때마다 캄쭉스런 종은 쟁쟁한 소리를 자지러지게 울렸다. 짖라랑... 짖라랑... 짖라랑...

반짝반짝 금빛광채를 뿜는 그것은 참으로 욕심을 일구는 보배로운 물건이였다.

《야아!—》

주명의 입에서는 환성이 터져나갔다.

《주명이, 이제부터 아무때나 곧장 이 방울소리만 따라가면 될거예요, 아무때나.》

끈을 든든히 맛잡아매고난 너선생은 벼룩이의 이마뺨을 다독여주고는 다정한 눈매로 주명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두고보라요, 다른 소들이 이 애꾸러기뒤편을 줄 줄 따르지 않나.》

《!...》

주명은 히죽 웃으며 누가 금시 떼가기라도 할듯이 두손으로 방울을 움켜잡았다. 이제는 목이 터지게 웨치며 가시덤불속을 헤쳐돌지 않아도 될것이 아닌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주명은 별건 등허리가 쭉 드러나도록 머리를 굽혀 숙였다.

《호호... 뭐가 고마울게 있어요, 주명이?》

야학선생은 얼굴에 활짝 웃음을 실으며 벼룩이의 꿈무늬를 슬며시 떠밀었다. 그러자 벼룩이는 제법 뽀내듯이 풀밭을 향해 태평스레 스적스적 걸음을 옮겨갔다. 주명이가 신기해서 바라보는데 야학선생이 말했다.

《주명이.》

나직하나 다심한 목소리였다.

《예.》

《어때요, 글을 배울 생각이 없어요?》

《?!》

글을 배우다니, 이게 웬 말인가. 내가 야학생들처럼 공부를 한단 말인가. 어리둥절해진 주명을 보며 야학선생은 여전히 각근한 어조로 계속했다.

《우린 누구나 자기 나라 글을 꼭 배워야 해요, 마음대로 읽고 쓸수 있게 말이에요. 더구나 주명이 같은 나이에엔 열심히 배워야 해요. 주명이, 래일부터 이 방목지에서 내가 우리 글을 배워주겠어요. 이젠 소들이 제가끔 흠어져 애를 먹이진 않을테니

까요. 좋지요?)

《…》

머리를 짓속이고 잠자코 녀선생의 말을 귀담아들던 주명은 얼핏 고개를 들었다. 미소가 함박 어린 녀선생의 서글서글한 눈에는 지극히 따스하고 웅심깊은 빛만이 어려있었다. 주명은 벌쭉 웃는것으로 대답을 했다.

《그럼 오늘은 일이 좀 있어 가봐야겠어요. 래일 만나요, 주명이.》

멀어져가는 녀선생의 뒤모습을 말없이 바라우는 주명의 가슴은 은연중 후덥게 달아올랐다. 나도 우리 나라 글을 직접 쓰고 읽을수 있다니 참으로 신기한 옛말을 들은것만 같았다. 그런데다 오후에는 소들이 벼룩이의 방울소리를 따라 내내 한군데로 몰려다니는게 확실히 알리어 주명의 몸과 마음은 바람에 실려 뚱뚱 떠가는듯 했다. 한시바삐 래일이 왔으면, 래일이… 허나 그 부풀어오른 래일의 꿈을 모진 실망의 돌맹이가 휩 날아와 단박에 깨버릴줄을 그가 어찌 알았겠는가.

4

주명은 북방망이처럼 생긴 아편꽃에서 흘러나온 걸죽한 진액받기에 골몰하고있었다. 그가 여기 대청산 범바위골안에 들어온지도 나흘이 지났다.

탐욕이 끝없는 양지주는 술한 땅을 타고앉아 해마다 소작료를 끌어들여 여러개의 대짜고간을 그득 그득 채우고도 성차지 않아 돈벌이를 시작했는데 그 재미가 보통아닌것 같았다. 소값이 폭 떨어지는 겨울 장마당에 가서 제일 여원 사립소를 일여덟마리 늦게 사다가 이듬해 여름 한철 방목으로 피동피동 살을 찌워서는 목재판에 넘겨 비싸게 돈을 받아 폭리를 얻곤 했다. 그러고도 배가 차지 않은 양지주는 극비밀리에 야금야금 아편밀수로 단맛을 톡톡히 보고있었다. 대낮에도 사나운 짐승들이 나드는 범바위골의 인적없는 외진 수림 한가운데다 몇백평의 화전을 일구고는 몰래 아편을 심었다.

양지주집 심부름군로인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꿔서 여름에 날마다 진득진득한 아편진액을 받아놓으면 마름이 쥐도새도 모르게 날라가는데 올해는 늙은이의 손이 잘 놀려지지 않아 진액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팔팔한 주명을 그대신 범바위골로 떠밀어보냈다. 그리하여 오늘도 아침이슬이 걷히자마자 주명이는 아편밭에서 땀을 뺏고있는것이다. 그는 누르스레한 아편진액이 담긴 보시기를 들고 아편밭에서 나와 초막안으로 들어갔다. 혹시나 잃어질가봐 구석켠에다 그럴듯하게 감추느라 되는대로 무진 봇나무껍질들을 헤집고 아편진액을 모아놓는 낯함을 꺼낸 다음 보시기의 새로 받은 진액을 말끔히 쏟아넣었다. 사흘에 한번씩 마름이 도착고양이처럼 올라와서는 주명이한테 빈 그릇을 넘겨주고 아편이 그득찬 합을 비단보자기에 숨겨가지고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다. 주명은 나무껍질로 오늘 받아

낸 아편합을 대충 덮은 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신체 움직일줄 몰랐다. 어째선지 요즘은 속이 내치 답답하고 무겁기만 했다. 한참후 그는 아편을 숨긴 장소의 반대쪽으로 다가가 무드기 쌓아둔 피나무껍질들을 조심조심 헤치었다. 곧 작은 밭사발만 한 형겼몽치가 나타났다. 그것을 손에 집어든 주명은 겹겹으로 감싼 낡은 천조박을 한돌기한돌기 정성스레 풀어내었다. 그러자 참기름을 바른것처럼 반들거리는 새노란 쇠방울이 드러났다. 야학선생이 벼룩이의 목에 달아주었던 바로 그 소방울이었다. 주명은 범바위골로 올라오는 날 방목지로 부리나케 내달려가 누구도 모르게 벼룩이의 목에서 방울을 떼가지고 왔던것이다. 그는 하루에도 몇번씩 그것을 꺼내만져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낯으로 만든 물건이지만 조금도 차거운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또다시 방울을 쓸어만지던 그는 꼭지를 잡고서 공중에 대고 가만가만 흔들어보았다. 째라랑… 째라랑… 방울은 변함없이 참으로 고운 소리를 정겹게 울리었다. 그러자 어둑침침하던 초막안이 순식간에 환해지면서 몸이 따스한 솜무지에 잠겨지는듯 했다. 째라랑… 째라랑… 그 신비로운 음향은 차츰 주명의 귀전에 야학선생의 은근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변하여 한결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는것만 같았다. 더불어 야학선생의 미소어린 친근한 모습이 눈앞에 우렁치 떠올랐다.

(여기… 범바위골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선생님한테 우리 글을 한창 배울텐데…)

불시로 이런 생각이 갈마들면서 뺨뺨이 꿈을 했다.

(에익! 왜놈만치 뭉판스러운 양지주놈!…)

방울을 짹 움켜쥐는 그의 장알박힌 거치른 손이 부르르 떨리었다. 그는 급급히 방울을 형겅에 감싸쳐서 제자리에 가져다놓고 피나무껍질로 꼼꼼히 가리웠다. 그때였다. 느닷없이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주명이 있어요?》

그것은 귀에 익을대로 익은 야학선생의 그 음성이었다. 와뜰 놀란 주명은 초막문을 와락 열어제끼고 뛰쳐나갔다. 사실이였다. 자주색보꾸레미를 옆에 낀 녀선생이 상그레 웃으며 마주서있지 않는가.

《아니, 서… 선생님!》

《외진데서 교생이 많겠어요, 주명이.》

재차 울리는 녀선생의 살뜰한 말마디에 주명은 그만 눈뿌리가 찌릿했다. 인적없는 이 산막마지로 야학선생이 직접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주명이였다.

《공부때문에 올라왔어요. 전번에 글을 배워주겠다고 약속하잖았나요. 주명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요. 사실 주명이가 범바위골로 올라온 이틀날 나도 갑자기 어디에 간한 일이 있어서 떠났다가 어제야 돌아왔어요.》

《!…》

아, 얼마나 고맙고 친절한 야학선생인가. 늘 분주히 짬없이 지내면서도 나때문에 이렇게 멀고 험한 곳을 우정 찾아주다니, 주명이 몸둘바를 몰라하는데 녀선생은 문이 열려진 초막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디 주명이 살림을 좀 보지요.》

초막이 몹시 어지럽다는 생각에 당황해진 주명은 머밀머밀 뒤를 따랐다. 두사람이 서있기조차 벅차게 초막안은 배좁았다. 그리고 대낮인데도 컴컴했다. 팔뚝굵기의 나무로 모양을 대충 잡아서 떨기나무아지들을 두렵게 씌우고 그우에다 억새풀을 덮어 일주 비물막이를 해놓았을따름이었다. 잠자리의 습기를 방지하느라 마른 피나무껍질을 몇겹 깔았지만 맨땅이어서 눅눅했다.

《가마는 어데?》 하고 묻던 녀선생은 곧 입을 다물었다. 온돌이 없는데 어찌 가마가 있을수가 있는가.

《때식은 매일 어떻게 끓이나요?》

《그... 그건...》

주명은 뒤더수기를 굽적거렸다. 양지주는 아편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여기서 애당초 연기가 날아오르지 못하게 일체 불질을 엄금했다. 그러니 삼시마른음식밖에 먹지 못하는데 주명은 그것을 차마 음식이라고 입밖에 번질수가 없었다. 그가 더듬던 말끝을 채 맺지 못하자 녀선생은 구석켠에 되는데로 처박힌 허름한 자루를 들어다 아구리를 헤치었다. 땃사발이나 되는 거무튀튀한 보리쌀이 씹쓸한 냄새를 풍기며 드러났다. 필경 절반나마 뜯은 보리를 불에 타지도록 마구 닦아낸것이라는게 대뜸 알리는 질부스레기가 어지럽게 섞인 험한 난알이었다. 녀선생은 난알을 조금 집어 입에 넣더니 살근살근 씹었다. 그의 입안에서는 불시에 빠작 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했으나 녀선생의 이마에는 알릴듯말듯 잔주름이 일핏 지나갔을뿐이었다. 그는 말없이 돌을 뺄아 손에 쥐고 그것을 자꾸만 매만지었다.

손가락들이 눈에 띄게 떨리었다.

《이런걸... 이런걸...》

입속말처럼 뇌이는 녀선생의 눈에서는 갑자기 맑은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하지만 인차 손등으로 눈물을 재빨리 훔치었다.

《이게 다 누구탓이나요? 주명이, 이게 다?》 하고 격한 어조로 묻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기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대신 차갑고 매서운 서리발이 돋치었다.

《일본놈들이 우리 나라를 빼앗은탓이에요요. 양지주같은 지주놈들과 자본가놈들이 일본놈들과 한 짝이 되어 우리 인민의 피땀을 짜내기때문이에요요.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놈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선 주명이나 막동이 얼마나 사공할아버지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해요. 마음편히 살수가 없어요. 주명이, 그래서 지금 **김일성**장군님께서 수 많은 군사를 거느리시고 빼앗긴 우리 나라를 찾아가 싸우고계시는거예요.》

(**김일성장군님!**)

주명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가 작년 가을에 소를 팔러 가는 양지주를 따라 목재소에 갔을 때 로동자들이 외판데 모여앉아 수군수군 주고받던 이야기속에서 **김일성**장군님이라는 존함을 들은 기억이 편뜻 떠올랐다. **김일성**장군님의 신기한 축지법에 왜놈들은 맛다들기도 전에 혼곶해서 와들와들 떠다고 하지 않았던가.

《선생님, **김일성**장군님께서선 큰칼을 차시구 훨훨 하늘을 날아다니신다는게 정말인가요?》

《이제 주명이라도 잘 알게 될거예요.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시는 부대에는 주명이처럼 나어린 용감한 대원들도 있답니다.》

《야—아!》

이렇게 탄성을 터친 주명의 입안에서는 《선생님, 그럼 불여우 양지주같은 놈들을 당장에 때려잡을수 있게 나도 유격대원이 될수 없을까요?》라는 물음이 뱅뱅 맴돌이쳤으나 꺼낼념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을 녀선생은 환히 꿰뚫어보는 듯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주명이라도 물론 **김일성**장군님의 전사가 될수 있어요.》

《정말이나요, 선생님?》

《정말이나구요. 그러자면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해요. **김일성**장군님께서선 왜놈들을 내쫓구 지주, 자본가놈들을 쳐부시자면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주명이,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루 많이 알자면 우선 우리 글부터 착실히 배워야 해요.》

《예.》

《그럼 공부를 시작하자요. 가만, 여기보담 밖이 더 좋을것 같군요.》

이렇게 말하고 녀선생은 곧 초막을 나섰다. 그는 잔디가 퍼렇게 덮인 메마른 땅을 골라잡아 치마를 포개고 단정히 앉으며 주명이라도 곁에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자주색보자기를 풀어헤치고 책한권과 길죽하면서도 네모진 작은 양철곽을 꺼내놓았다. 그가 뚜껑을 여니 좁은 곱안에는 연필이며 지우개와 쓰다남은 콩다리먹, 참대자루에 털끝이 초불꼬리처럼 생긴 붓이며가 빼곡이 들어차있었다. 그는 먼저 연필 하나를 집어들고 상긋이 웃으며 말문을 풀었다.

《자— 내가 이 책에다 쓰는 글자를 똑똑히 눈에 익히라요. 자— 보라요.》

무릎우에 공책을 펴놓고 글자를 새기던 야학선생은 웬일인지 주위를 두리번거리었다. 하더니 얼른 일어나 저쪽에 박혀있는 웃면이 반듯한 빨래판모양의 큰 돌을 빈 가마와도 같이 닦아 들여왔다.

《이걸 책상이라고 생각하자요.》

소리없이 웃어보이며 녀선생은 돌판우에 묻은 흙먼지와 티검불을 훌훌 불어치운 다음 책에다 계속 푼툭툭툭 글을 써나갔다. 글자들을 책장에 가득히 채우고나서 그는 연필끝으로 첫글자를 짚으며 설명을 달았다.

《주명이, 보라요. 신통히도 낫을 세워놓은것 같은 이 글자가 뭔지 알아요?》

《...》

《기옥자예요, 기옥. 그리고 반대로 낫을 눕혀놓은것 같은 이 글자는 니은이예요, 니은. 그다음 두개의 낫날은 겹쳐지고 낫자루는 마주되게 놓은것처럼 생긴 이 글자는 디은이예요, 디은. 어디 내 하는대로 따라 외워봐요. 기옥, 니은, 디은.》

《기-으옥, 니-으, 디-국.》

《니옹이 아니라 니은, 디국이 아니라 디은이예요. 자, 다시...》

주명은 자꾸만 가드라드는듯 한 허를 급하게 눌러 녀선생의 발음을 따라외우느라 등골에 진땀이 다 흘렀다.

《됐어요. 그럼 이제 글을 써가면서 외우자요. 자, 이대로 한자한자 써봐요. 덤비지 말고 차근차근...》

주명은 녀선생이 넘겨주는 연필을 꼬나쥐었다. 난생처음 손에 든 연필이다. 그래서인지 녀선생이 쓴 글을 그대로 옮기려고 손을 막상 움직였으나 좀처럼 연필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고역에 힘쓰하게 갈라터진 손이 풍을 만난듯 부들부들 떨리기만 했다. 거미줄로 바줄을 꼰대도 이렇게는 힘들지 않을거라고 생각되었다.

《침엔 누구나 다 그래요. 진흙을 빚어 마감엔 보기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듯이 차츰차츰 제대로 되는거예요. 자, 주명이, 나와 함께 써보지요.》

녀선생은 연필친 주명의 손을 따끈따끈한 자기의 오른손으로 덧감싸쥐고 글자의 획을 순서대로 또박또박 새겨나가기 시작했다. 손가락마디에 쥐가 일도록 한참 그런 식으로 반복하고나니 혼자서도 꽤 쓸것 같은 신심이 생겨났다.

《자, 쉬지 말고 연거퍼 다섯번을 쓰라요. 자신 있지요?》

주명은 히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하고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적삼소매자락으로 쓱쓱 문대었다. 그리고는 연필끝에 침을 발라가며 써보려는데 불시에 녀선생이 그의 적삼소매를 붙잡았다.

《주명이, 잠깐 이 옷을 벗어달라요. 내 얼른 기워줄게요.》

녀선생은 상냥한 웃음을 짓고있었다. 그러나 주명의 얼굴은 대번에 화끈 달아올랐다. 어떻게 녀선생앞에서 적삼을 훌쩍덕 벗겠는가.

부끄러움이 왈칵 앞섰다. 때를 씻지 못한 가슴이며 잔등을 그대로 보이면 녀선생이 얼마나 놀랄텐가. 그가 고개를 외로 틀고 우물쭈물하자 녀선생의 꼭진한 목소리가 울렸다.

《주명이, 나를 누나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돼요. 친누나라고!...》

순간 주명의 목안으로는 후더운 덩어리가 빠른하게 치밀어올랐다. 친누나!... 늘 혈육처럼 따듯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야학선생을 두고 오죽이나 그렇게 부르고싶었던가, 누나라고. 그런데 바로 지금

그가 주명에게 친누나로 여기라고 스스럼없이 말해주지 않는가. 주명의 두눈에는 핑그르르 눈물이 어러돌았다. 그는 활활 적삼을 벗었다. 그때에야 주명은 자기의 적삼이 옷이 아니라 녀나나 다름없는 한심한 허드레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하기야 여직껏 옷이 찢어져도 그만, 꿰져도 그만이었지 어느 누가 빨아 길거나 손질을 해주었던가. 녀선생은 어느결에 탐탁스런 무명천조박과 가위와 바느질을 꺼내놓았다. 그 자주빛보꾸레미안에서는 참말 별의별것이 다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눈물을 보일가봐 주명은 얼른 공책에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세웠다.

《기-으, 니-은.》

입속으로 소리를 내면서 글자들을 힘주어 썼다. 이제 나도 직심스레 배워야 해. 글을 죄다 깨친 다음엔 책에다 누나라는 글을 맨먼저 새길테다. 누나라는 제일로 살뜰한 글울!... 글자를 새기기에 긴장한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굴리며 비뚤비뚤하게나마 획을 그어가는데 돌연히 딱 소리를 내며 연필심이 부러졌다.

주명은 속이 덜컥했다. 불안한 그의 눈길은 얼핏 녀선생에게로 향했다. 그런데 녀선생은 아까부터 글쓰는 그를 이따금씩 여겨보고있은듯 주명의 당황한 시선을 받자 다감한 미소를 지으며 보자기를 눈짓으로 가리켜보였다.

보꾸레미에는 한뼘이 뒹직한 맵시나는 빼또칼이 놓혀있었다. 후- 숨을 내쉬 주명은 얼른 빼또칼을 집어들었다. 녀선생이 적삼을 다 길고 마지막실밥을 입으로 톡 끊는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주명이 도 다섯번째의 쓰기를 끝마쳤다. 하지만 가까스로 회수를 채웠을뿐 주명이 보기에다 란잡하기짜이 없는 엉망글이었다. 글자마다 크기가 다르고 줄은 지렁이가 기여가듯 구불구불했다. 주명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녀선생의 꾸지람을 기다렸다. 그러나 녀선생은 책장을 번질적마다 칭찬을 잇달았다. 무던히도 기뻐했다. 한편 녀선생이 넘겨준 적삼을 몸에 걸치는 주명의 얼굴에도 희색이 넘실넘실했다.

간간한 숨씨로 꿰지고 찢어진데를 남김없이 알뜰하게 기웠을뿐더러 적삼안에는 큼직한 주머니까지 만들어대었으니 보기만 해도 흐뭇했다. 그 주머니에는 실을 꼬아서 연필대가리를 동여맨 가늘고 긴 끈을 달아놓았기때문에 책과 함께 넣고다니다 아무때건 꺼내 쓸수가 있게 되었다. 연필이 떨어지거나 잃어버릴 녀려는 아예 없을것이 아닌가. 주명의 기분은 당장에 하늘로 훨훨 날아오를듯싶었다.

5

《누나, 좀 쉬어갈까요? 힘들지 않아요?》

참나무, 고로쇠, 단풍, 물푸레, 자작나무들이 엮인데다 경사가 심해서 오르기가 어지간히 말쑥 곳을 빠져나가자 주명은 다시금 뒤를 돌아다본다.

《아니.》

그의 뒤를 바투 따르던 야학선생은 흠어진 이마의 머리카락을 치켜올리며 고개를 흔들어보인다.

미소가 어린 그의 우선우선한 얼굴에는 정말로 지친 기색이란 꼬말만큼도 없다. 평지를 걷는 사람처럼 혼연하다.

(?!...)

주명이 더욱 놀란다. 혹시 야학선생이 축지법을 쓰시는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는 아닐까. 보통녀인이라면 벌써 땀벌창이 되었을게다. 그런데 치마저고리에 코고무신차림의 야학선생은 산발타기를 식은 죽먹기로 여기는 주명이를 찔끔먹게 펄펄하지 않는가.

몇분전에 있는 일이었다. 주명이가 파제로 받은 다섯번 옮겨쓴 글자들이 가운데 잘못된 점들을 세세히 바로잡아주고나서 야학선생은 마을로 내려가려고 보꾸레미를 썼다.

《래일 또 오겠어요. 그동안 오늘 배운걸 자꾸 반복해써보라고. 할만 하지요?》

《예.》

대답은 제격 했으나 마음속이 허전해졌다. 미안스러웠다. 야학선생이 나를 위해 먼길을 걸어와 열심히 공부를 시켜준것만 해도 비할데없이 감사한데 허드레못마쳐 알심있게 손질해주지 않았는가.

게다가 주명이 글쓰기에 열중했을 때 어느새 초막안의 보리자루를 내다가 돌이며 티검볼을 전부 골라내어 말끔히 다듬어놓기까지 한 선생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할까. 이런 애모쁜 생각에 사로잡혀서인지 주명의 입에서는 부지중 엉뚱한 말이 튀어나갔다.

《누나, 범을 봤나요?》

《범을?》

《산짐승왕 호랑이 말이야요.》

《호호... 다른데서는 몇번 봤지만 여기 와선 못 봤어요. 왜요?》

《내 이제 굉장히 큰 범을 보여줄테니 함께 가자요.》

《호호... 그럼 어서 가보지요.》

야학선생은 호기심많은 소녀처럼 명랑한 웃음소리를 내며 제격 응해나섰다. 그바람에 강주명은 기가 우쭐 동해올랐다. 신기하기가 이를테 없는 돌범을 보면서 자못 즐거워할 야학선생을 그려보자 벌써부터 흥에 뜨는것이였다. 그는 떠날 차비로 자루가 찢막한 작은 도끼를 서둘러 찾아 손에 쥐였다. 산에 들어갈 때마다 늘 지니고다니는 보신용무기나 다름없는 도끼였다. 야학선생도 돌판우에서 보꾸레미를 집어들었다.

《누나, 그걸 여기다 감춰두고 갔다오면 안되나요?》

《아니, 난 이것만은 언제나 몸에서 떼놓지 않아요. 주명이, 어서 가자요.》

《!》

주명은 밝은 미소가 어린 야학선생의 얼굴을 마주보며 알만 하다는듯 벌췌 웃고는 수림속을 향해

성큼성큼 발길을 내짚었다.

...그들은 삼치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깊지 않은 골짜기 하나를 단참에 꿰질렀다. 철쭉과 더불어 무성하던 개암나무와 떡갈, 박달나무숲이 차츰 산정으로 올라가면서는 성글어지고 미출하게 키높이 솟은 이깔이며 분비, 가문비, 봇나무들이 뻗뻗하게 앞을 막아섰다. 이제는 갖가지 새들의 지저귐도 들리지 않았다. 한여름이지만 밀밭속은 서늘했다. 눈부신 해살은 연록의 또는 검푸른 나무잎새들 사이를 눈부시게 비집고 이끼와 묵은 락엽이 덧갈린 푸르죽죽한 땅우에 엷비듬히 내려쬰지였다. 밝으면 푸석푸석 꺼지는 죽어넘어진 진대나무통도 가끔 눈에 띄었다.

《누나,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아, 그래요?》

과연 얼마쯤 지나자 산세가 완완 달라지면서 신비로운 정경이 드러났다. 것처럼 울창하던 거목들은 속아내기라도 한듯 듕성듕성해지고 새초와 잡관목이 들어찬 그닥 넓지 않은 번번한 지대가 펼쳐졌는데 그 복판에는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웅장하게 우뚝우뚝 솟아있었다. 바로 저기였다! 삼시에 얼굴이 환해진 주명은 여러 바위중 덩지가 유난히 큰 바위앞으로 썩 달려나갔다. 하고는 돌을 하나 집어들고 못을 박듯 두세번 뽀뽀 두들겨댔다. 검스런 바위에서는 반짝반짝 불씨가 튀겨났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돌범을 침 보지요, 누나?》

《그래요. 아- 정말 대단하군요. 정말 어쩌면 이렇게도!...》

야학선생은 바위에서 좀처럼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탄성만 내질렀다. 그 모습을 보느라니 주명은 막 사기가 났다. 실로 집채만 한 바위는 배불리 먹은 갈범이 위엄기 풍기는 등근 대가리를 두발통우에 편안히 얹고 무엇인가 슬그머니 노리면서 웅크리고있는 신통스런 모양이였다. 야학선생은 다른데서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을 대청산고유의 진귀한 산물이라고 곱씹어 뇌이였다.

이윽고 야학선생은 환희롭게 말을 하였다.

《주명이, 아마 사람들은 이런 희한한 바위범이 여기에 숨어있다는걸 알면 너도나도 구경을 올거예요.》

《산이 험하구 아찔하게 높은데두요?》

《그렇잖구요.》

범바위의 주위를 한바퀴 빙 돌면서 신비로움에 흠뻑 잠겨들었던 야학선생은 왜 그런지 바위후면으로 주의깊은 시선을 보내었다. 거기에는 엷드린 웅대한 범을 믿음직히 지켜주기라도 할듯 수십년 자랐을직한 왕소나무들이 검붉은 밑동을 해빛에 번뜩이며 주변의 이깔들마저 무색하게 싱싱한 모양을 뽐내고있었다.

《주명이, 다른 산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런 산정에 소나무들이 이처럼 특이한 풍치를 돋구며 들어찬 곳은 흔치 않아요. 정말 굉장히 멋있구만

요. 아—참, 저기 꼬부랑소나무들을 좀 보라요. 어찌면!...》

너선생이 경탄을 금치 못하며 가리키는대로 주명은 이내 눈길을 보내었다. 하늘중천에 굵직굵직한 가지와 끝이 날카로운 검푸른 잎새를 구름처럼 떠이고 선 아름답리소나무들과 얼마간 사이를 두고 무척 기이한 모양의 소나무 두그루가 섞여있었다. 다른 소나무들보다 절반이나 키낮은 그 나무들의 줄기는 어찌선지 곧추 뻗어오르지 않고 땅에 닿을 듯이 휘어져내려 구부러지기도 하고 매듭이 지기도 했는데 마치 맥이 진해서 더 크기를 단념해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하나는 든든한 나무기둥에 받쳐진 푸르른 대형접시같이 보이고 다른 하나는 것이 엄청나게 큰 난쟁이버섯을 편상케 했다. 언젠가 이곳을 지나며 돌범에만 눈이 팔려 탄복해마지않은 그가 너선생의 말을 듣고 찬찬히 사위를 둘러본즉 그야말로 기막히게 절묘한 풍경이 아닌가. 범상치 않은 돌범의 뒤배경을 황홀히 여겨보며 찬탄을 거듭하던 너선생은 한발작한발작 소나무들밀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얼굴표정은 아까와는 다르게 자못 숙연한 빛으로 변해갔다.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긴장해진 주명은 조심스레 그의 뒤를 따랐다. 너선생은 한참이나 소나무들앞에 서있었다. 이윽고 그는 주명이쪽으로 한손을 펴들었다.

《주명이, 그 도끼를 좀 쥐요.》

《?》

주명이가 어정쩡해 내밀어주는 작은 도끼를 받아든 너선생은 미끈한 소나무 한그루를 골라잡더니 중등이예다 도끼날을 가볍게 내리먹이었다.

탁— 탁— 껍질을 찍어내는 도끼질소리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두툼하고 더실러실한 나무껍질이 툇달아 땅에 떨어져내렸다. 도끼질숨씨가 어찌나 능란하고 켜싼지 삼시간에 소나무의 누릿한 속껍질이 길둥그렇게 내보이었다. 그러자 너선생은 급히 보꾸레미를 풀어헤치고 빼또칼을 집어내여 얇은 속껍질을 채치있게 벗겨나갔다. 흰 종이를 올려서 아래로 길게 내려붙인듯 한 속살이 차츰 말쑥하게 드러났다. 그 흰 종이우에는 향긋하고 신선한 냄새를 피우는 잔조롭한 송진방울들이 구슬마냥 반들거리며 내뿜혔다.

의아한 생각에 주명은 물었다.

《누나, 이렇게 나무껍질을 벗겨선 뭘 하나요?》

《글을 쓰려는거예요.》

《글을요?》

주명은 어리둥절해졌다. 무슨 글이길래 나무에다 쓴단 말인가. 놀람과 의혹이 컸다. 하지만 어떤 글인가고 캐묻기를 망설이었다. 일손에 방해가 될까 봐서였다. 다른 나무으로 옮겨가 도끼질을 계속하던 너선생은 영문 몰라하는 그의 내심을 속속들이 짐작하는듯 주명이한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이내 말없이 경건한 눈길을 들어 하늘가 멀리를 그윽히 바라보는것이였다.

(?!...)

주명은 마른침을 꿀꺽 넘겼다. 잠시후에 너선생은 못내 진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주명이,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엔 얼마나 자랑할만 한 명승지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나라가 해방되면 땅과 바다, 산과 강이 모두 인민의것이 될거예요. 그땐 술한 사람들이 이런델 찾아올거예요, 천하에 없을 이 돌호랑이랑 특별히 뛰어난 이 높은 산 소나무숲경치랑 보고싶어서요. 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느분을 받들고 무엇때문에, 어떻게 피흘려 싸웠는가를 꼭 알리고싶어요.》

《!...》

너선생의 절절한 이야기는 마디마디 주명의 가슴에 연연한 감흥의 물결을 일으키며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불현듯 그의 머리속에는 (누난 확실히 김일성장군님의 부하가 분명해!) 하는 확신과 동시에 한시바삐 글을 쓰는 누나를 돕고싶은 생각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누나, 나도 벗기겠어요. 도끼 나한테 주고 누난 칼로 속을 맡으랴요.》

《고마와요. 그렇게 하자요.》

《에—참, 누나두 나처럼 고맙다는 말을...》

주명은 짐짓 시뻘한 기색을 보이고 제잡담 도끼질에 달라붙었다. 너선생은 나직이 호호 소리내여 웃으면서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훑치었다. 산발을 오르면서도 내배지 않던 땀이 흐르는걸 보게 되니 그가 나무에 쓸 글자리를 마련하는데 얼마나 류다른 힘과 정성을 쏟는가를 주명은 대변에 알수가 있었다. 아홉번째 나무의 손질을 완전히 끝냈을 때 너선생은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내 얼른 내려갔다올게요. 먹을 갈 물을 떠와야 할테니...》

《아니, 내가 가겠어요. 물있는데는 내가 잘 알아요, 누나.》

《나두 삼치물을 봤어요, 아까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한 너선생은 주명이가 어쩔새없이 올라온 수림쪽으로 달리듯 걸음을 재우쳐갔다.

(물 떠올 그릇은 어떻게할려고?)

이런 생각은 뒤늦어서야 떠올랐다. 주명이가 내려간다면 천이 다 해진 신발이라도 한짝을 벗어서 물을 담아올테지만 누나는 어찌할까? 닳아빠진 헌 바가지가 있는 주명의 초막까지 갔다오는 경우 시간은 어방없이 걸릴텐데...

안절부절 못하던 주명은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손에 도끼를 들었다. 나무 한그루를 새로 선택하여 결괏있게 도끼질, 칼질을 번갈아 해대었다. 다른 나무보다 썩 실한 나무에 넓다란 글자리를 시원스레 만들어놓고 그가 천천히 물러서는데 홀연히 너선생이 나타났다. 주명의 입은 형벌어졌다.

(벌써?!)

《참, 그새 두대나 더 벗겼구만요. 수고했어요.》

가쁜숨을 몰아쉬면서도 녀선생은 오히려 주명이 청찬을 알세웠다. 상기된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러나 서글서글한 눈과 입은 소리없이 하냥 웃고있었다.

《에—누나두, 내가 잤다온다는데두...》

이렇게 민망스러워하는 주명의 시선은 아까부터 녀선생의 손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녀선생은 물기가 지르르 땀 푸른 땀갈나무잎으로 두툼히 감싼 무엇인지 모를 둥근 덩어리를 두손 벌게 마주쥐고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나무잎에다는 담을수 없겠는데 어떻게 물을 날라온것인가. 녀선생은 축축히 젖은 땀갈나무잎뭉치를 조심스레 땅에 내려놓더니 양철 팍뚜경을 열고 콩다리먹을 꺼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무잎사귀들을 살그니 젖힌 후에야 주명은 《야!—》 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야학선생은 자주색보자기를 삼치물레다 흠뻑 적서 가지고 올라온 것이었다.

(어쩌문 이런 묘한 궁냥을 다...)

주명이 그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감심을 하는데 녀선생은 서두르며 양철팍뚜경을 뒤집어놓고 나서 거기에 보자기를 비틀어짜 방울방울 적당히 물을 떨군 뒤 콩다리먹을 힘주어 갈기 시작했다. 맑은 물이 순식간에 새까맸다.

이윽하여 그는 붓촉을 먹물에 흠뻑 잠그고 주근 주근 탄력을 시험해보고는 건듯 꼬나들어 나무의 《흰종이》 위에 한자한자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붓놀림이 보통 활달하지 않았다. 주명은 숨을 딱 멈춘채 척척 기운차게 달리는 녀선생의 붓길을 쫓아 시선을 날래게 움직였다. 허나 아직 글을 다 배우지 못한지라 녀선생이 쓴 글이 무슨 뜻인지를 감감 알수가 없었다. 바질거리는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안다는듯 녀선생이 또박또박 소리를 높여가며 읽어주었다.

《김일성장군은 민족의 태양이시다》

주명은 한마디라도 흘릴가봐 급급히 입속으로 따라와왔다.

(김일성장군은 민족의 태양이시다.)

심장이 견잡을수 없게 울렁거렸다. 간악한 일본놈들을 뱀다 족쳐대는 통쾌한 전장에서 번뜩번뜩 칼을 휘두르며 전투를 지휘하실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이 저절로 환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조선항일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앉아 한탄 말고 일어나 싸우자》

《아름다운 우리 나라 도로 찾자》

얼핏 보기만 해도 기백넘치는 붓글이 단숨에 다섯 나무에까지 새겨졌다. 차례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주명은 먹그릇을 인츰인츰 날라가기도 하고 손가락을 꺼렇게 적시며 씹씹 먹을 갈아대기도 했다.

그런데 여섯번째 나무에서 그만 먹물이 떨어졌다.

(?!...)

주명은 마치 제 잘못으로 먹이 거덜난것처럼 자

못 딱한 얼굴로 나무와 녀선생을 죄스럽게 쳐다보았다. 뜻하지 않게 두글자만을 새기고 중단되어 난감해진 녀선생은 《흰종이》를 손바닥으로 몇번 쓰다듬다가 주명의 착잡한 표정을 일별하고는 상긋이 미소를 지었다.

《미리 구호생각은 못하고 콩다리먹을 그냥 가지고온 내 불찰이예요. 주명이, 래일 마저 쓰자요. 난 이 나무에다는 〈항일대전승리 만세〉라는 구호를 쓰려했어요. 다섯나무에는 썼으니 〈항일〉 두글자만 새긴 이 나무를 포함해서 여섯그루가 아직 남았어요. 모두 열한그루니 절반나마 못 쓴셈이예요. 여섯을!》

《누나! 래일엔 내가 더 많은 나무껍질을 벗겨놓겠어요. 껍질이 잘 벗겨지는 분비나무도 일 없지요?》

《그래요. 더 쓰자요.》

녀선생은 차분한 미소를 머금으며 대견스레 주명을 바라보았다.

허나 이튿날에 꼭 범바위굴을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나간 녀선생은 다시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가슴밑바닥이 짹짹 갈라터지는듯한 번뇌속에 기다리고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주명은 녀선생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들리는 소문에는 범바위굴에서 내려간 그날 밤 경찰놈들이 달려들어 녀선생이 어디론가 멀리로 몸을 피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날에 불행히 놈들에게 체포되었다는 분명치 않은 말도 쉬쉬 돌았다. 그중에 한가지 확연한 점은 야학선생이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시는 유격대의 녀대원이 틀림없다는 사실이었다.

허둥거리는 마음을 불안은채 야학선생의 소식을 얻어들으려 사방 다니던 주명은 어느날 기진하여 대청산 범바위굴의 소나무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주명이 마지막으로 야학선생과 만났던 잇을수 없는 곳이었다.

(누나, 누나는 지금 어디 있나요?...)

주명은 목터지게 먼 산발을 향해 웨쳤다.

《누나!—》

대답대신 우중충한 산발만이 눈앞에 다가들었다.

주명은 친누나같고 어머니와도 같은 따스한 인정의 품을 졸지에 잃어버린 것이다....

6

중대지휘부귀틀집안에는 중대장과 정치지도원 그리고 편대에서 어제 내려온 편대정치위원이 앉아있고 열려진 창문가에는 대원 강주명이 차렷자세로 서있었다. 방금 주명이가 임무수행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끝낸 뒤였다.

두 젊은 지휘관과 편대정치위원의 얼굴들에는 한결같이 흐뭇해하는 빛이 어려있었다.

《주명동무, 수고 많았소. 병실에 가서 푹 쉬시

오. 동무들이 수대 기뻐들할거요.》

빙글거리며 중대장이 주명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이때였다. 주명이 거수경례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런대정치위원이 손짓으로 밀막았다.

《강주명동무, 동문 돌아올 때 대청산줄기를 탔다고 했지?》

《옛, 그렇습니다. 정치위원동지.》

주명은 다소 내심의 긴장을 느끼며 상대방을 똑바로 주시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탕개를 늦춰주려는듯 중대정치지도원이 얼른 끼어들었다.

《주명동문 원래 대청산을 끼고있는 송암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양가성을 가진 악착한 지주놈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때문에 주명동무 역시 뼈저린 머슴의 멍에를 넘겨받지 않을수가 없었지요. 정치위원동지, 이 동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해전에 우리가 대청산 왜놈목재소를 습격했을 때 몇몇 청년로동자들과 함께 우릴 따라왔습니다. 이 동문 그날 양지주가 목재판에 팔아넘기는 소들을 몰고 왔었는데 마침 우릴 만났지요.》

《그럼 주명동문 범바위골이란데를 알겠소?》

정치위원의 몸가짐은 여전히 침착한데 어쩐지 목소리엔 알릴가말가한 흥분이 느껴졌다. 범바위골이라니,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귀익은 지명을 들으니 마음이 후두둑 떨려왔다.

《정치위원동지, 범바위골은 제가... 제가...》

말마디를 재게 끊으며 흥분하는 그를 도우려는듯 또 중대장이 슬쩍 앞을 질렀다.

《주명동문 늘쌍 범바위골자랑입니다. 하하...》

그렇지만 정치위원은 웃지 않았다. 그는 퍼그나 깊은 실망과 랑패감에 잠긴 어조로 무겁게 입을 떼었다.

《그런줄 알았더라면 이번길에 동무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는건데.》

(?!)

정치위원이 확실히 범바위골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있음이 틀림없다고 주명은 단정했다.

밖에서 오락회를 벌리는 중대원들의 흥뜬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열려진 창문으로 들려왔다. 떠들썩한 말소리도 끼뭉어 쟁쟁하게 날아들었다. 그러나 런대정치위원은 그 모든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것 같았다. 잠시 골똘한 생각에 잠겼던 그가 나직이 말문을 열었다.

《몇년전에 우리 런대 직속소대의 한 녀동무가 정치공작임무를 받고 송암리일대에서 활동했던적이 있소. 조직에서 주는 과업을 매번 제때에 원만히 수행하는 능숙한 공작원이었지. 그런데 그 동무의 신변에 위험이 조성되어 우린 그를 갑자기 소환하지 않으면 안되었소. 내가 주명동무에게 범바위골에 대해 물은건 바로 그 동무가 거기 외진 산중의 여러 나무들에 구호들을 새겨놓은것이 있기 때문이요.》

주명이뿐아니라 다른 두사람도 뜻밖의 격동적인 사실에 접하여 몸들이 굳어졌다.

주명은 웨치듯 물었다.

《정치위원동지, 그... 그 공작원동지 이름을 어... 어떻게 부릅니까?》

불을 삼킨듯 전신이 화끈 달아오른 그였다.

《함옥현이라고 하오. 동무가 아오?》

《옛, 잘 압니다. 저의 누나였습니다. 선생님이 기도 하고...》

《누나?!》

《정치위원동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누나가?》

정치위원의 슬진 눈썹이 움찔했다.

방안에는 침묵이 서리였다. 이윽하여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빛이 퍽퍽했다.

《우리... 우리 함옥현동문... 얼마전 ××전투에서 희생되었소. 정말이지 아주... 훌륭한 동무를 잃었소. 마지막순간에 그는 나에게 범바위골 구호나무에 대해 말을 남겼소. 미처 글을 쓰지 못한 나무가 몇그루 남아있는데 그제 늘 마음에 걸려있다고, 우리 동무들중에 누가 혹시 그쪽방면으로 나가게 되면 꺾질벗긴 나무들에 꼭 구호를 마저 써달라고 말이요. 난 그후 옥현동무의 마지막부탁에 대해 늘 생각을 하곤 했소. 사실 누구도 그에게 범바위골산정에 구호를 쓰라는 임무를 준적은 없소.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스스로의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구호를 정성다해 한자한자 새겨놓았소. 그리고 쓰다가 채 못 쓴 그것을 자기 임무수행의 공간으로 항상 마음속에 아프게 안고있었던 말이요. 운명의 마지막순간까지도 마음속에 아프게...》

(누나!- 아아!-)

거세찬 걱정 of 돌풍이 주명의 가슴속을 휩쓸었다.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듯 했다. 그는 지휘관들의 물음에 자기가 어떻게 되어 함옥현동지를 알게 되었는지를 눈물을 머금고서 떠듬떠듬 대답하고는 황황히 밖으로 나왔다.

주명은 지휘부귀틀집결에 보조병처럼 우뚝 서있는 아름드리 이깔나무에 부딪치자 저도 모르게 짹그려안았다. 마치 대청산마루 바위터의 소나무인듯 터실터실한 이깔껍질을 손바닥이 아프게 대구 쓰다듬었다. 더운 눈물줄기가 그의 두볼에 진한 자욱을 새기고있었다.

유격대에 입대하여 곧 글을 깨우친 내가 왜 진작 범바위터에 쓰지 못하고 남긴 구호나무생각을 못했단 말인가.

매늦은 회오의 드센 파도갈기가 그의 흥벽을 뒀이어 후려갈겼다. 다음순간 강주명은 심장이 통채로 차디찬 얼음물에 잠기는듯 한 새로운 호된 충격으로 흠칠했다. 이번에 단독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 교활한 일본놈들이 깊숙한 산골짜기에다 은밀히 특수공사를 벌리는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과업을 받지 못했다고 홀 지나쳐온 내가 아닌가. 만일 옥현누나였다면... 바로 그였다면...

비료 쏟아지는 날

최 정 용

흰눈처럼 내리는 저 비로
온몸에 한껏 맞고싶어라
하늘하늘 내리는 첫눈을
머리를 젖히고 입술과 얼굴에 반겨맞던
그 어린시절처럼

봄순이
함께 뛰어들지 않으려나
명절같은 이런 날에야 뭐라나
비료폭포에 마음적시며
우리 서로 약속한 가슴속 비밀을
사람들앞에 더놓은들

축복해줄거야 진심으로
말은 일들은 서로 달랐어도
언제나 한뜻으로 살며
시련도 고난도 이겨내며
함남의 불길높이 오늘에도 달려온
미더운 동지들인데야

봄순이
이런 날엔 모든것이
줄집게만 추억되는구나
온몸이 뽕뽕 얼어들었어도
기증기운전대를 놓지 않아
애를 태우던 그밤의 일도

그밤 이악쟁이 너는
웃으며 말했지
비료가 뽕뽕 쏟아질 그날을
단 하루라도 당겨올수 있다면
이 하늘초소를 지켜

한몸 굳어진대도 행복할거라고

철판에 손이 딱딱 달라붙던
그 모진 강추위속에서도
배판을 늘이고 합성탑들을 일떠세우던
못 잊을 그 나날들에
낮과 밤을 이어 틀어잡았던 용접기
순간이라도 놓으면 손이 허전하던
그 불같은 나날들에
진정 우리 가슴 무엇으로 뚫어번졌던가

우리 농민들
비료를 마음껏 뿌리며 농사짓게 하시려고
한해에도 두번세번
우리들을 찾아오시던
아버이장군님의 모습
그 뜨거운 진정의 세계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산 우리

참으로 장군님뜻 받드는 그 한길에서
몸과 몸 그대로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싶던 우리
그 만단사연 안고내리는 저 비로는
세상 귀한 보물처럼 뜨거운 주체비료

이 땅이 떠실을 나락의 무게
인민이 받아안을 행복의 무게
기쁘게 헤아리시며
우리 원수님 만족해하실 이런 날에야
나서자꾸나 봄순이
사람들앞에 우리 자랑스럽게
축복의 꽃보라로 받아안으며

옥현누나가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것이
였다.

《주명이, 조선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혁
명의 길에 나선 우리들이니만큼 어떤 임무를 받았
든 받지 않았든 혁명에 리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린
언제나 그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여기고 기꺼이 말
아나설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스스로의 그 과업을
끝까지 반드시 완수해야 하고...》

누나의 준절한 목소리... 목소리...

아아, 사무친 그 목소리와 더불어 그지없이 애
한 다른 음향도 쟁쟁히 들리어왔다. 짤라랑... 짤라
랑... 짤라랑...

소방울소리였다.

이튿날.

단출한 행상차림의 한 젊은이가 대청산쪽으로
뻗은 산속길을 씩씩한 걸음으로 부지런히
다그쳐가고있었다. 그가 전대처럼 둘러멘 피
나리보짐안에는 위장용 문방구들과 함께 따로
꼼꼼히 포장한 한번도 써보지 않은 참떡과 끝
이 뽕죽한 참대북이 들어있었으며 깨끗한 무
명천으로 정히 감싼 윤기나는 새노란 조그만
소방울도 들어있었다. 그 젊은이는 유격대원
장주명이였다.

별들이 웃는 밤에

박 혜 란

새해의 이밤 나는 불밝은 창전거리를 걷고 있다.

새집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첫 신년사를 받아안으며 새해를 맞은 기쁨이 넘친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하늘을 꿰뚫을듯 아스라하니 솟아오른 살림집의 불빛들을 바라보느라니 마치도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저 하늘의 별들처럼 안겨온다.

머리위에 펼쳐진 별빛의 세계, 거리에 수놓아진 불빛의 바다에 몸을 잠그고있노라니 어린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걷던 추억의 한토막이 떠오른다.

《엄마, 저 별들이 왜 자꾸 깜빡이나?》

《그건 별이 기뻐서 웃는거란다.》

《별이 왜 기뻐하나?》

《해님이 품안아준것이 기뻐서란다. 해님이 아니었다라면 저 별들은 어떻게 빛을 뿌릴수 없단다.》

그밤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철부지 소녀애는 다 자란 오늘에야 별이 웃는다는 말의 의미를 벅찬 시대의 흐름속에서 절감하게 되었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니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창전거리의 복받은 살림집창가에로 향해졌다.

...바로 저 집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직포공으로 일하는 로력영웅 문강순동무가 살고있다.

그의 가슴에서 금별메달이 빛나고있지만 사실 그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평범한 처녀였다.

유복녀로 태어난 그에게는 불치의 병으로 늘 자리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있었다.

조국을 위해 아무런 보탬도 못 주는 어머니였건만 나라에서는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아낌없이 안겨주었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그 품을 생각할 때면 소녀는 잠들수 없었다. 그런 밤이면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에 앞날의 고운 꿈을 실었다.

(난 꼭 방직공이 될테야.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을

내가 짠 천필우에 새겨넣을테야.)

어머니마저 잃었지만 그는 어릴적 그 꿈을 지켜 부모들의 뒤통까지 합쳐 두배, 세배의 천을 짜리라 마음다졌다.

이런 소박하고 진실한 처녀의 소원을 귀중히 여겨준것은 조직과 집단이었다.

교대를 마치고 돌아오면 힘들어할세라 포근한 잠자리도 퍼주고 생일날이면 합숙방에서 외로움을 느낄세라 저저마다 맛있는 음식을 들고 찾아오던 다정한 동무들의 사랑속에 평범한 직포공처녀는 공장이 자랑하는 다기대기능공으로 자라났다.

몇해전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해놓은 일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전세대 영웅들과 나란히 곁에 세우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고 사랑의 금반지까지 안겨주시었다.

그 행복한 순간에 처녀는 심장의 목소리를 터쳐 목메여 불렀다.

《아버지!》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은 이렇듯 이름없던 직포공 처녀를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었다.

태양의 품에서 밝은 빛을 뿌리는 시대의 별이 된 처녀는 3대혁명소조원청년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수도의 한복판에 홀룡히 일떠선 창전거리의 새집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폈다.

받아안은 그 사랑이 꿈만 같은데 또다시 큰복이 찾아왔다.

시부모들도 아직 와보지 못한 그의 집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태양의 빛발을 안고 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도 보아주시고 신혼부부의 살림방들도 돌아보시며 다심한 친어버이심정으로 하나하나 물어보실 때 그는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었다.

나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고...

그밤 그는 어릴적에 꿈을 실어주던 별을 찾아 속삭이였다.

(별들아, 나를 축복해다오. 나도 너처럼 태양의

아기의 출생증을 받아들이고

김 경 석

소중히 받아든
아기의 출생증
밖에 나서며 펼쳐드니
축복의 꽃보라인양
소리없이 내리는 눈송이 눈송이

내 머리들어 바라보니
하늘가에 웃는 창문들
창전거리 새집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출생을 알리는 증서여서
하늘도 아낌없는 축복을 보내는가

아가야 너는 아직 모르리
이 증서의 글발속에
얼마나 후더운 사랑
얼마나 고귀한 헌신의 한평생이
눈물겹게 비껴있는지

내가 태어나기전
궁궐같은 보금자리
꿈같은 새생활이
오늘처럼 너를 감싸게 하시려
눈보라한생의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오신분이 있었다

인민에게 더해줄
한가지 기쁨을 위해서도
천리길 만리길을 헤쳐가신 어버이
생애의 마지막 그날까지도
야전렬차를 내리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의 그 품속엔
오늘의 너도 안겨있었으니

아가야 너 어찌 알라
아버지 나도 모른 그 사랑
나를 기다려 너를 기다려
길이길이 누려갈 만복의 세월이
고스란히 실려있는 이 출생증이다

너는 복받은 행운아로
나는 복받은 행운아의 아버지로
다같이 새로 태어났음을 새겨준
이 출생증

아, 소중한 이 증서우에
송이송이 축복의 눈은 내리고
젖어드는 마음 우러르는 만수대언덕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미소
해빛처럼 너와 나를 축복해주시여라

빛발을 가까이에 지닌 시대의 밝은 별이 되었던다.
우리 약속하자. 너희들은 하늘에서, 나는 땅우에서
영원토록 태양의 빛을 안고 빛나는 별이 되자
꾸나.)...

내가 문강순동무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황홀한
불빛의 바다를 이룬 수도의 밤하늘을 바라보니 별
들이 보석인양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정녕 태양이 우주의 크고작은 행성들에 빛을 주
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궁지롭고 아름다
운 생활을 별에 비겨 노래할수 있을가.

그리고 별처럼 깨끗하게, 빛나게 살겠다고 말할
수 있을가.

생의 순간순간을 별처럼 아름답게 빛내이도록 해
주시고 영원한 태양의 빛발을 안고사는 이 세상 가

장 행복하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키워주시고 내세
워주시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걸어온 궁지로운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원수님께서 온 나라 가정들에
화목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신 그 축복을 안고 사
람들은 밝은 웃음속에 거리를 활보한다.

저들의 모습, 그 모습들이야말로 반짝이며 웃는
별의 모습이다.

우리의 머리우에서 반짝이는 별들!

태양의 빛발에 우리 천만군민이 운명을 맡기고
살기에 평범한 사람도 노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밝은
별로 자라났으니 그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수천수
만의 별들은 끝없이 빛을 뿌린다.



오 광 천

1

스쳐보낼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김연화지배인은 문제를 날카롭게 세웠다.

《저는 자재과장 리명숙동무에게 책벌을 줄것을 초급당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금방 사업인계를 받은 김영학초급당비서에게 지배인이 한 말이였다.

일은 한달강습에 참가했던 연화지배인이 공장에 돌아온 그날부터 시작되였다. 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장직장에 들어선 지배인은 한창 출하중에 있는 된장을 찍어 맛을 보았다. 어째선지 그의 미간이 좁아졌다. 한번 더 장맛을 본 지배인은 뒤따라 들어서는 장직장장에게 엄한 눈길을 보냈다.

《장에 콩함량이 작아졌군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장직장장 한명수는 서늘한 지배인의 눈길을 피하면서 애써 대수롭지 않은듯 한 표정을 지었다.

《거... 그건... 강냉이가 좀 섞였습니다.》

《이달에는 계획분의 콩이 전량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거, 살아가느라면 융통이란것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직장장은 어째선지 머뭇머뭇하다가 사연을 설명했다.

일인즉은 이러했다. 원래 일욕심이 많은 연화지배인은 이달에 들어와서 공장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한계단 높일 목적밑에 돼지목장확장공사와 버섯

재배장건설을 한꺼번에 벌려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지 않은 건설을 인원이 삼십여명밖에 안되는 경리부서가 맡아안은것이였다. 현존생산만 해도 눈코뜰새가 없이 드바쁜 직장들과 련관부서들에서 로력을 보충해줄수 없는 형편이다보니 건설은 시작부터 앓은뱅이걸음을 하였다. 이럴 때 리명숙자재과장이 끝끝한 장정로력을 수십명이나 데리고 척 나 타났다. 어느 한 기업소에 찾아가서 해결받은 건설로력이였다.

《우리들중에 기초식품의 신세를 안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한테 이쯤한거야 식은죽 먹기지요.》

이들이 발벗고 도와나서자 건설은 눈에 띄이게 진척되여갔다. 그런데 문제는 리명숙자재과장이 수력건설로동계급에게 계획분외에 더 보내주었으면 하는 수백키로그램의 장이였다.

직장장에게 명숙자재과장이 말하였다.

《그건 걱정놓으십시오. 우리 집에 강냉이가 좀 있으니 그것으로 보충합시다.》

《강냉이를 섞으면 장질이 낮아지겠는데...》

《아, 매달 수십톤의 장을 생산하는 이 직장에서 그것쯤이야 새밭의 피가 아닙니까. 직장장동지, 공장을 위해서 아글타글하는 지배인동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번만은 눈감아주십시오.》

후에 알고보니 명숙과장은 자기 집에 있던 여우분의 강냉이를 모두 내놓았었다. 명수직장장은 공장을 위해서 뛰고 또 뛰는 자재과장의 헌신성에 감동되여 계획외의 장생산을 조직하였다.

장직장장의 이야기를 듣고난 연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뒤집을 진 손을 쥐었다놓았다 할뿐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긴장해졌다. 지배인의 저 손세가 가슴속 불안이나 분노, 울분의 외적표현임을 그들은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무슨 불호령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는지...

김영학초급당비서가 출하장으로 들어선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좌중에 흐르는 어성버성한 분위기를 감촉하고서 문옆에 멈춰섰다.

《가서 명숙동물 데려와요.》

《예.》

지배인의 어조는 조용했지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라목을 해가지고 눈치를 살피던 회계원처녀는 흠칫 놀라듯 하며 문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 그를 직장장이 멈춰세웠다.

《자재과장은 순천에 세멘트집수를 갔습시다.》

《그렇지...》

지배인은 고개를 숙인채 한동안 무슨 생각인가를 하는듯 하다가 이내 결심이 선듯 머리를 들면서 된장계량기를 가리켰다.

《오늘부터 장관매를 중지해야겠어요. 불량장은 탱크에 넣고 기준수치에 이를 때까지 다시 숙성해야겠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유독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물현상에 대한 판별능력을 잃은듯 무표정을 지은채 출하장의 어느 한곳만을 여겨보는 명수직장장뿐이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직장은 이달생산계획을 미달하게 되겠는데...》

어망결에 말을 하던 회계원이 지배인의 눈길과 마주치자 손으로 입을 가리켰다.

《이 장에는 우리 공장 로동계급의 량심이 깃들여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식료품 하나하나는 생산물이기 전에 인민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에는 에너리가 있을수 없어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직장장동무...》

지배인의 눈길을 받자 명수는 고개를 돌리면서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렇게 하는것이 옳긴 한데...》

그러다가 당비서를 띄어보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지배인동무가 지시한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숙과장도 공장을 위해서 한 일인데...》

연화지배인은 직장장의 말에 응대가 없이 출하장을 나섰다.

김영학당비서는 자기 방에서 지배인과 마주했다. 이 자리에서 지배인은 리명숙자재과장의 책벌문제를 논의에 올렸다.

영학당비서는 심중해졌다.

우선 사업상면에서 본다면 리명숙과장은 지배인의 오른팔이라 말할수 있는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었다. 자재과장의 손끝에서 공장운영에 필요한 모든 원료와 자재가 움직이는데 활동적이면서도 근기있고 정열적이면서 헌신적인 그의 역할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북창기초식품공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이는 공장종업원들모두가 인정하는 그의 공로였다. 그래서 이번 당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그에게 훈장을 내신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다음으로 인간적인 관계면에서 본다면 김연화지배인과 리명숙자재과장은 동서지간이었다.

문득 영학의 머리에는 공장에 배치받아와서 들었던 연화지배인의 사랑이야기가 떠올랐다.

...연화지배인이 평양기계대학을 졸업하고 이 공장에서 3대혁명소조생활을 할 때의 일이다.

어느날 연화소조원에게 한 처녀가 찾아왔다. 연화를 친언니이상으로 따르는 당과직장(당시)의 제품검사원 리명숙이었다.

《소조원동지, 이런 속상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연화는 몸매며 얼굴, 눈, 코 등 인물의 모든 면이 다 동실몽실한것으로 하여 복스러움을 자아내는 명숙에게 웃음을 지어보였다.

《왜?... 불량제품이라도 나왔니?》

《그런거라면 말도 안하겠어요. 글썄 한 남자가 날 자꾸 따라다니네요.》

《그렇다면 좋은 일로구나. 아, 혼기에 잡힌 처녀에게 총각이 따라다니는거야 당연한거지.》

《아유, 총각인지 아이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연화는 울상을 한 명숙이를 정색해서 바라보았다.

《글썄 한달전부터 내가 퇴근길에 오르기만 하면 뒤따르는 남자가 있는데 집에 다달으면 사라지군 하지요 뭐. 속씨원히 얼굴이라도 보았으면 마음이라도 조마조마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어제는 마음을 강저먹고서 마주잡지요. 뭐, 나를 죽이기가 하겠나. 총각인지 할아버지인지 내가 마음들어 따

라다니는건 분명한데 어디 맞서보자… 헛참, 그런데 그 사람이 비실비실 쫓기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리쳤지요.

〈동무, 그림자처럼 뒤따르지만 말고 앞에 나타나세요.〉 하나까 어둠속으로 사라지면서 뭐라는줄 알아요?

〈내 얼굴은 두꺼비잔등같아서 동무가 보면 깜짝 놀라겠기에 못 나타나겠소.〉 하더군요.〉

연화는 폭소를 터쳤다. 명숙이처럼 성격이 다기찬 처녀만이 연출할수 있는 희극이었다.

《에, 남은 속상해죽겠다는데 웃기만 해요?》

《하하, 이런 일을 두고도 웃지 않으면 병신이 지… 그래 어찌할 생각이야?》

《글쎄 목소리는 사내답게 우렁우렁한데 담은 왜 그리 없는지…》

《호, 넌 벌써 그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게지. 그럼 내가 체포해줄가?》

《어떻게요?》

《간단하지. 너의 뒤를 따라가다가 붙들면 되는 거야.》

다음날 저녁에 그림자같은 남자는 두 처녀에게 체포되고말았다.

알고보니 그는 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좁은 하판에 우뚝 선 코날, 초리가 올리불은 가는 눈, 흰칠한 몸매, 명숙이와는 달리 예리하고도 칼칼해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결불안이란 말과 달리 마음은 왜 그리 여리어 처녀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는지…

《명숙동무를 처음 알게 된것은 그가 우리 발전소에 경제선동을 나왔을 때였습니다. 첫눈에 벌써 끌리는데가 있더군요. 그래서 두루 알아보니 글쎄 그 동무가 우리 기업소 생산부지배인동지의 딸이 아니겠습니까. 랑패라는건… 난 부지배인동지의 눈밖에 난 사람이니까요. 작년에 내가 공무직장의 심선절단기를 개조해보려고 손을 댔다가 사고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지배인동지가 노해서 하는 말이 전문교육도 받지 못한 주제에 중뿔나게 나서지 말고 말은 일이나 잘하라는거지요.… 그러고 보면 명숙동무는 내가 오를수 없는 나무이지요, 바라볼수만 있고… 아마 바랄수 없으면서도 바라는것이 짝사랑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하루중에 뒤에서라도 명숙동무를 배려워줄수 있는 퇴근때가 제일 즐거운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허전하고 괴롭지마는…》

청년의 심중의 고백을 들으며 연화는 가슴노리로 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휘감는 후덥고도 찜르르한 그 무엇을 느끼었다. 감정적동화인가 아니면 인간

적의협심인가… 하여튼 가슴을 따스히 풀어주는 부드러운감기도 하고 풀떡풀떡 들구뛰는 강렬한 박동감기도 한, 연화가 지금까지 모르던 미묘한 느낌이었으며 강렬한 충동이었다.

《정식동무는 다른데선 모르겠지만 사랑면에서만은 줄장부예요. 왜 사랑을 소원하기만 하고 쟁취할 생각을 못하나 말이에요.》

어쩐지 선임자같은 혼시였다. 그런데 이성간의 사랑에서는 아예 초학도인 처녀의 혼시라고 생각한다면… 연화는 말을 해놓고서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끼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체험적고전을 초월한, 고상한 감정에 대한 공감과 동조, 순결한 것에 대한 찬동이 있었다.

정식이가 머리를 저었다.

《그와 나는 처지가…》

《왜요, 명숙이는 간부집 딸이란거지요. 동무는 정말 현시대청년같지 않군요. 인간은 사회에 이바지할 독자적인 자신의 몫이 있어요. 동무는 지금 공장대학에 다닌다는데 현실속에서 배우고 창조하잔 말이에요. 아마 동무가 심선절단기개조를 성공한다면 명숙동무의 아버지도 리해할거예요. 나도 적극 돕겠어요.》

그후 정식의 적극적인 노력과 연화의 사심없는 방조에 의해서 심선절단기개조가 성공하게 되었다. 성공의 그날 연화는 명숙이와 정식의 혼사문제를 가지고 명숙이 아버지를 만났다. 그도 정식의 남다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중이었으므로 연화의 제의는 단번에 접수되었다. 그후 정식과 명숙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연화는 소조원생활을 마치고 평양에 올라가게 되었다. 떠나가는 그날 정식의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했다.

《임자같은 처녀를 며느리로 삼는 집은 얼마나 좋을가.》

…그로부터 얼마후 졸업배치를 앞두고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있는 연화에게 중위의령장을 단 한 군관이 찾아왔다. 흰칠한 키에 좁은 하판, 초리가 올리불은 눈매, 짙 버그러진 어깨.

낮이 익은 모습을 대하자 연화는 무턱대고 반가움이 앞섰다.

《혹시 동무의 고향이 북창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식이의 형 리정석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하니 본론을 말하기에 앞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군인입니다. 예돌줄을 모르지요. 내가 여기에 온 목적

은 동무에게 정식 청혼을 하자는겁니다.》

처음에 연화는 어리둥절해졌다. 낯도 처음 익히는 처녀에게 청혼이란 말을 그렇게도 혼연스레 하는 남자도 있는가.

《정석동무는 룡담이 지나치군요.》

《이런 말도 룡담을 합니까. 전 군인입니다. 애초에 룡담이란걸 모릅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진실한것을 추구합니다. 하긴 이런 일생문제는 깊고 폭넓은 파악이 필요하다는걸 압니다. 그러나 저에겐 이런 사랑의 서사시를 첫페지부터 차례차례 번쳐갈 시간적여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표창휴가로 집에 가니 어머니는 동무에 대하여 감탄하면서 머느리로 삼고싶다고 몇번이나 말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꼭 동무를 우리 집 머느리로 데려오겠다고... 나는 홀몸으로 우리 형제를 키우느라 고생 많으신 어머니가 바라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석이가 진심의 말을 한다는것을 느끼자 연화의 가슴은 두방망이질하기 시작했고 화로라도 안은듯 온몸은 뭉뭉 달아올랐다.

형제간에 이렇게 성격이 판이할수 있는가. 한명은 너무나도 소심해서 우유부단하며 처녀의 뒤편 따랐다면 한명은 너무나도 직선적으로 정면에서 처녀에게 육박해오지 않는가. 아, 이럴 땐 어찌면 좋담.

《전... 그런 일은 우리 부모님이...》

정석은 히죽 웃었다.

《그런건 걱정놓으십시오. 이미 동무의 부모님에게 반송낙을 받았으니... 이젠 동무만 동의하면 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놓았다. 연화의 눈이 화동잔만 해졌다.

《동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무슨 망신을 시키자고... 정말 무례하군요.》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넓고도 좁은게 세상이라더니 동무가 김성환아버님의 외동딸일줄이야... 동무의 고향가까이에 우리 부대가 위치하고있지요. 뭐, 그렇다고 강요하는것은 아닙니다. 전 래일 아침에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의한다면 저녁 7시에 대동문사진판앞에서 만납시다. 그럼 안녕히...》

정석이가 깝뚝이 경례를 하고서 돌아간 다음에도 연화는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어 서성거리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편지가 눈에 띄어서 펼쳐들었다.

《너도 아마 들은적이 있을게다. 우리 옆집에 화

제가 났을 때 그 불길속으로 서슴없이 뛰여든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바로 이 편지를 가지고가는 리정석정치지도원이란단. 군관학교를 졸업하고서 군관이 된 그가 우리앞에 나타나서 네가 마음든다고 할 때 네 아버지나 나는 이게 웬 떡이나 하고 생각했단다.... 하긴 본인당자가 기본이지. 그러니 너의 결심을 우리는 지지하련다.》

연화의 입가에 얹은 미소가 건너갔다.

《억지군같은거...》

그날 저녁에 연화가 사진판으로 간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 일이 다 성사된 다음에 알고보니 정석은 정식의 동생이었다.

연화는 억이 막히여 성을 냈지만 그건 벌써 다정한 사랑의 다툼이었다....

이 이야기가 남의 혼사문제에 나섰다가 자기 결혼에까지 이어진 연화지배인의 사랑담이었다. 이처럼 리명숙자재과장은 지배인과 사업상으로, 인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연화지배인은 자재과장에게 책벌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책벌을 주는것이 과연 옳바른 처사이겠는가. 만약 그로 인해서 한 일군의 사업의욕과 사업권위를 떨어뜨린다면...

당비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량수책상을 두고 마주앉은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그도 묵묵히 말이 없었다. 영학당비서가 먼저 침묵을 깼다.

《책임으로 말하면 나를 비롯해서 일군들에게도 있습니다. 우선 저부터가 상급당에 자기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책벌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연화지배인과 당비서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실확한 몸매에 유하면서도 틀진 몸가짐, 차분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무엇인가가 씩씩이 일렁이는듯한 눈매, 어찌보면 중년부인의 유순하고도 고상한 품모가 안겨오는것 같은데 다시 여겨보면 바위같은 무게가 느껴지는것이 지배인의 인물상 특징이다.

영학이가 이 공장에 당비서로 임명받아올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었다.

《기초식료지배인은 일욕심이 하늘갈다네. 녀결이야. 하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간단한가. 지배인의 걸음걸이를 맞추자면 좀 빠근할걸세.》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영학은 그 말의 사실여부를 실제로 느끼었다. 치밀한 타산, 켜인 조직사업, 완강한 전개력, 흠잡을데없이 깨끗한 뒤처리...

연화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당비서동지는 얼마전ैया 우리 공장에 오셨지

요. 비서동지의 말처럼 결합은 본인당자에게만 있지 않으며 명숙동무는 공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제날의 공로가 오늘의 실적을 대신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로운 일이지만 명숙동무에게선 인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어가고있습니다. 식료가공부문의 일군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였단 말입니다. 우리 공장이 어떤 공장입니까. 연혁사의 갈피갈피, 구내길의 굽이마다와 제품의 포장지 하나에도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깃들어있지 않습니까. 인민을 홀시하면 그는 우리 당의 정책관철자라 말할수 없습니다. 나는 공장의 일부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강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영학당비서도 생각이 자못 깊어졌다.

며칠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리명숙자재과장의 결합이 집중비판되었다. 리명숙자신은 묵연한 자세로 일언반구 없었는데 대중의 반응은 각이했다. 예상 밖의 일은 그후에 벌어졌다. 리명숙자재과장이 다음날부터 버섯재배장건설에 스스로 동원되었던 것이다. 자책인가, 반발인가...

3

오늘 아침 영학은 일찌기 버섯재배장건설장으로 향했다. 요즘에 와서 건설은 활기를 띠고 진척되었다. 어제 경리과장이 영학을 찾아왔었다.

《사실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공장의 후방사업을 책임진 일군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우는소리만 하다나니 자재과장동지가 그런 결합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일을 통하여 깨달음도 많고 채심도 하였습니다.》

건설에 동원되었던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로력을 보내고서 우거지상을 하고있는 경리과장에게 지배인은 욱 절반, 타이름 절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일군의 능력은 무슨 일에서나 대중자신이 그 일의 주인이 되게 조직동원하는데서 나타나야 해요. 왜 눈앞에 있는 로력만 생각해요? 가족로력까지 합쳐봐요. 그럼 현존인원의 두배는 넘을거예요. 아마 과장동무부터가 모범이 된다면 종업원모두가 따라서지 않을라구.》

그다음부터 경리부서직원들의 안해들과 남편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떨쳐나서 건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벌써부터 작업장은 불도가니 끓어번지듯

했다. 그속에는 늙은이도 있었고 아이들도 보였는데 작업장에 도착한 영학의 눈에 제일먼저 안겨온 것은 지배인과 명숙자재과장이 맞들이의 앞뒤채를 들고서 달리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맞들이손잡이에 끈을 매서 어깨에 메고서 내쳐 달리는데 그 기세가 혈기왕성한 이십대청춘같았다.

물, 모래, 자갈, 세멘트. 자, 빨리, 박자를 맞추어서 하나, 둘, 셋...

온 건설장이 두 녀성일군의 걸음을 맞추어서 들끓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영학당비서의 손에 들린 삼도 장혼합회전날개 돌듯 했다. 연화가 당비서에게 한마디 했다.

《비서동지의 삼질솜씨가 여간이 아닙니다.》

《군대때 안변에서 익힌 솜씨입니다. 그래도 지배인동지의 일솜씨만이야 하겠습니까.》

옆에서 함께 삼질을 하던 명수가 목덜미의 땀을 훔치며 한마디 껴끼었다.

《웁습니다. 우리 지배인동지의 일본새뿐이 아니고 자재과장동무까지 합쳐 날구뛰는 두 일군을 따라갈라다간 우리 공장에서 년로보장이란 말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몸을 아끼고싶다며 여기에 나오긴 왜 나왔소?》

명숙이가 큰 눈을 디굴거리며 말했다.

《어유, 이 누님이... 끌려나왔지요. 예, 내가 공장까이에 집을 잡은게 잘못이지... 동창이 밝아부터 복작대는데... 그래서 이불속에 들어가 귀구멍을 틀어막았더니 딸이란년은 코구멍까지 눌러막으며 <아버지, 기상. 지배인큰엄마에게서 전화왔어요, 기상시키라구> 하지 않겠소. 어유, 이거야 어디 사람 살겠나.》

지배인을 등진 명수가 금시 우거지상을 하고 능청을 떨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와 웃음을 터쳤다. 연화도 얼굴에 솟은 땀을 훔치며 빙그레 미소했다. 쿵쾅쾅 음악소리, 와하 웃음소리, 구령소리, 삼질소리, 그속에서 버섯재배장건물은 빨리도 키동움해갔다.

...서산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무렵 로동의 하루를 바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있었다.

당비서는 명수직장과 함께 걸으면서 앞서가는 지배인과 자재과장의 뒤모습을 여겨보았다. 아까 일을 할 때엔 패기와 정열에 넘쳐보이던 명숙이지만 지금은 말이 없이 수격수격 걷기만 한다. 지배인도 말이 없었다. 다만 허리춤에 자주 손을 올릴 뿐이었다. 하긴 젊은이들도 빠근해하는데 나이든 그야 오죽 힘들겠는가.

《지배인동지가 나이에 비해서 패기가 있습니

다.》

영학이 말을 건네이자 명수는 눈길을 돌려 잠시 당비서를 바라보다가 덩덤한 어조로 말했다.

《아까 내가 룡조로 말하긴 했지만 그게 룡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배인동무의 걸음새를 따르자면 정말 배춧다리입니다. 하긴 연화지배인은 우리 공장에서 작업반장, 직장장을 거쳐 지배인까지 20여년을 그렇게 뛰어나셨지요. 쇠고개를 바라보는 지금에 와서도 더더욱 왕성한 투지를 가지고 언제나 앞장에서 달리는데 우리가 이제 좀 쉬엄쉬엄 일하라고 하면 지배인동무는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우리가 한걸음을 늦추면 그만큼 시대에 뒤떨어진단다. 지배인동무가 제일 증오하는 인간은 인민을 사랑할 줄을 모르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제자리걸음만 하는 일꾼들이지요. 나도 한번 혼란 일이 있었습시다. 이제는 삼년전의 일인데... 우리 직장에서는 고정원판식곡자기를 선진과학기술이 도입된 회전원판식곡자기로 개조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그때 나는 대학을 방금 졸업하고서 연구과제를 맡은 총각기사에게 이렇게 혼시켰습니다. 물론 회전식원판을 하면 일이 쉽고 균배양이 잘되며 실수가 없다고는 한다, 하지만 팬히 굵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처음 장생산을 시작할 때는 나무통에서 균을 자래웠다, 그에 비하면 지금의 고정원판식회전곡자기는 얼마나 현대적인가, 그러니 산돼지 잡으려다가 집돼지 잃는 그런 타산없는 일은 그만두라. 허, 지금 생각하면 완전한 로파심이고 자기보신이었지요.》

명수직장장은 두눈을 찡뜨리면서 그때의 일을 더듬는듯 했다.

...곡자실앞에 서있던 연화는 다가오는 명수에게 삼을 하나 던져주었다.

얼결에 그 삼을 움켜잡은 명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날 따라와요.》

지배인이 저 먼저 1호곡자실로 통한 작은 문을 열고 그안에 들어갔다.

《이건 무슨 감투끈인지...》

명수는 불이 부어서 두덜거리면서도 하는수없이 따라들어갔다.

《영실이, 원료를 투입해라.》

《저, 지배인동지, 우리가 하겠습니까.》

《어서 투입해.》

출구를 통해서 분쇄된 장원료가 고정원판에 쏟아져내렸다. 지배인이 원추형으로 무드기 쌓아진 분

쇄가루를 원판우에 퍼나가기 시작했다.

《이건 도대체 뭐니까?》

《동무가 회전원판식이 필요없다고 했었는데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를 우리 보잔 말이에요.》

《내가 언제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걸 하자면 많은 자금과 시간이 들고 그보다도 나어진 사람을 믿고 했다가 실패하면 당장 생산이 죽는판인데...》

지배인의 미간에 주름살이 세워졌다. 그는 명수를 한참 쏘아보다가 원로터미에 삼을 다시 박았다. 명수는 더 어찌는수가 없어 일손을 잡았다. 매캐한 미분가루내가 코를 찔렀다. 허리 한번 펼새없이 다그쳐서 일을 끝내고나니 이마에서는 비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온몸이 잦아드는듯 하였다. 그런데 지배인은 재차 2호곡자실로 들어가잔다. 2호곡자실은 방금 숙성을 끝낸 장원료가 있는지라 한층 칸처럼 무더웠다.

《지배인동무, 이제 그만둡시다. 내 잘못했수다.》

《아니, 동무는 아직 몰라요. 이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고를 그리고 맛있는 장을 들며 좋아할 인민들의 기쁨을... 바로 인민에 대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었던 말이에요... 아직 힘든 로동을 남겨놓고도 가슴아파할줄을 모르는...》

이 말을 하던 지배인이 급히 머리를 돌리며 눈굽을 찍었다.

《아니, 지배인동지, 왜 그러십니까?》

연화는 울음을 씹어삼키면서 머리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서 하세요. 일을 하면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어떤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잔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나는 지배인동무앞에서 진심으로 자기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왜 갑자기 눈물을 흘렸는가를 물었지요. 그러자 지배인동무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말을 하느라니 불시에 텔레비존화면에서 뵈은 장군님의 영상이 눈앞에 어려오겠지요. 삼복철의 현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느라 그렇게 힘드시겠는데도 현대화된 공장에서 맛있는 식료품이 줄줄 쏟아져나오는것을 보시며 못내 기쁘시여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모습을 말이에요. 뒤이어 자신의 로고는 아랑곳 없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생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현신이 가슴뜨겁게 어려와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장군님의 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수만 있다면...》 우리 지배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

다. 그래서 제일 믿고 아끼는 자재과장에게 아픈 매두 든것이구요.》

영학은 가슴이 후터워올라 묵묵히 걸음만을 옮기었다. 그러다가 얼핏 생각나는것이 있어 명수에게는 눈길을 돌렸다.

《참, 내가 묻고싶던건데 지배인동지의 세대주가 돌아간 다음에 지배인동무와 자재과장동무가 크게 다투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명수의 인상이 찌프러졌다.

《그런 일이 있지요. 현대 난 그런 말을 듣고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얼가 하구 생각하군 하는데 요전에 나도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지배인은 세대주와 의가 나뉘었다, 자재과장이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 비판을 받은건 바로 이때문일것이다. 헛참, 내 살아오면서 보니 흠이 많은 사람들이 남의 없는 흠도 잡아내지 못해서 안달이더군요. 내 눈으로 본테 의하면 지배인동무와 그의 남편인 정석동무는 금슬이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지켜주며 리해해주는... 정말 돋보이는 가정이었습시다. 글썄 어떤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부부가 다 책임적인 위치에서 분명한 사업을 보았으니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명숙동무와 있는 말다툼도 그럴만한 일이 있었지요.》

명수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연화는 출장길에서 남편의 병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서 황급히 평양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갔다.

이 무슨 소리인가. 엇그제까지만 하여도 인민경제대학을 높은 성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전화로 기쁨에 넘쳐서 말하던 남편이 아닌가. 그런데...

《피로운 일이지만... 현대의학의 힘으로는...》

쥐여짜듯 힘들게 하던 기술부원장의 말.

아니, 그럴수 없어. 그렇게 쉽게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연화는 접수실에서 내주는 위생복을 손에다 든채 입원실에 들어섰다. 창문으로 들어온 따뜻한 해빛이 입원실안을 어루쓸고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고 머리를 돌린 남편이 파스한 미소를 보였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훌쩍해졌어도 눈빛만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연화는 좀전과 달리 자신의 마음이 차분하게 진정됨을 느끼며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가녁에 앉았다.

《몸이 어때요?》

정석이가 눈을 깜짝여보였다.

《허, 이렇게 피병을 하면 당신을 인차 만날수 있겠구만. 내 이전엔 그걸 몰랐거든. 그렇지 않소? 형수님.》

원탁앞에서 사과를 깎던 명숙이가 눈웃음을 지었다.

《이젠 지배인동지가 오셨으니 설향이 아버지가 마음 편안하게 되었어요.》

《아, 형수님이야 집안의 맡며느리인데 한집안에서도 지배인, 지배인하지 마시오. 그러니 저 사람이 가정에 들어와서도 지배인행세를 하려들지요. 이 특급기업소 부지배인한테도 말입니다.》

남편의 익살에 연화는 입술을 비죽이 내밀었다.

《집안의 내무대신은 나기때문에 말을 잘 들겠다고 할 때는 언제인데...》

《그랬던가, 허...》

《호호호.》

즐거운 웃음소리가 입원실을 감돌았다. 웬일인가 하여 창문으로 기웃이 들여다보던 간호원처녀도 미소를 지었다.

이어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던 명숙은 어디 가보아야 할 곳이 있다면서 자리를 피했다. 그가 나간 다음 방안에 정석이 서리었다. 말이 없는 그들 사이에 눈빛만이 오갈뿐이었다. 부드럽게 쓸어주고 따뜻한 애무해주고 뜨겁게 격려해주며... 하많은 이야기를 말없이 주고받는 그런 눈빛이었다.

《힘들었겠구만.》

정석이가 안해의 손을 쓸며 먼저 말을 뗐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두손으로 감아쥐며 머리를 저었다.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니 몸도 마음도 다 편해져요. ... 그래 몸이 아프지요?》

《당신이 오니 방금전에 있던 아픔도 다 사라져버리누만. 아마 한 이삼일만 당신이 내곁에 있어주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것 같소.》

《이제부터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겠어요.》

《정말 있어주겠소?》

연화는 머리를 끄덕이었다. 정석은 그윽한 눈매로 안해를 바라보았다.

《고맙소. 가만, 당신이 요즘 너무 무리한것 같구만. 눈에 피곤이 가득 실리었소. 자, 저 침대에서 좀 쉬오.》

《아니, 난 이렇게 당신곁에 있는것이 좋아요.》

연화는 바닥에 내려앉아 침대가녁에 머리를 기대었다. 정석은 안해의 목덜미며 어깨를 주물러주었다.

자기 몸에 미치는 남편의 손길을 느끼자 연화는 무엇인가 뜨거웠것이 울컥 치밀어오름을 느끼었다. 어쩔새없이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침대에 얼굴을 묻었지만 후두둑 떨어는 어깨만은 어찌할수가 없었다.

《왜 그러오?》

《아무것도 아니예요. 간지러워서 그래요.》

《허, 꼭 아이처럼 논다니까.》

정석의 애무를 느끼며 연화는 저도 모르게 솔곳이 잠에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연화는 남편이 자기앞에서 서성거리고있음을 느끼었다.

(내가 피곤해하니 아침밥을 짓고서 깨우려는게지. 여보, 미안해요. 그런데 일어나기가 막 힘들군요. 조금만 더 자자요.)

정석이 안해의 몸을 흔들었다.

(에참,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부시시 눈을 뜨던 연화는 환자복을 입은채 자기 옆에 서있는 남편을 한참 여겨보다가 후닥닥 몸을 일으켰다. 어디까지가 잠결이고 어디서부터가 현실인지 가늠이 가지 않아 난만 슬벅거렸다.

《다... 당신이 정말 일어섰어요?》

정석은 싱긋이 미소를 지었다.

《내 말하지 않았소. 당신을 보니 병이 다 사라졌다구. 그런데 참 미안하오. 좀더 자게 하였으면 좋겠는데 기차시간이 다 되었길래 깨웠소.》

연화는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녁어스름이 비낀 창유리를 통하여 환히 켜진 장식등빛들이 안겨왔다. 그제야 연화는 자기 정신을 찾았다.

《기차시간이 되었다는것은 무슨 소리예요.》

정석은 침대옆에 있는 장에서 무슨 짍을 끄집어내며 말했다.

《공장으로 가야지. 지금 장식장현대화공사가 한창이라는데 지배인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하겠소.》

연화는 놀라듯 몸을 흠칫 떨었다.

《그러니 북창으로... 아니, 여보, 제가 뭘 잘못한것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 당신이 서있어야 할 위치는 내결에가 아니라 공장이기때문이에요. 여기야 형수도 있고...》

《무슨 소리를 해요. 난 당신의 안해란 말이에요. 여기엔 내가 있어야 해요.》

정석은 서운한 눈매로 안해를 바라보다가 환자복을 들추었다. 아마 본능적으로 담배를 찾으려는것 같았다. 그러다가 병원임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떨

구며 침대우에 주저앉았다. 해쓱해진 그의 얼굴에 땀발이 내뿜었다. 연화는 송구한 마음으로 남편의 팔을 부여잡았다.

《여보, 힘들지요. 어서 누우세요.》

《연화, 나도 당신이 옆에 있어주면 좋은줄을 왜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은 한 가정의 주부이기 전에 먼저 나라의 주부란 말이요. 당신도 알지. 내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연화라는 처녀에게 어째서 그렇듯 반했었는지. 그것은 사회에 대한 당신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에 매혹되었기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당신은... 여보, 당신은 나라의 정책을 맨 앞장에서 관철해야 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아니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공장을 생각해주소. 그게 바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약이 될거요.》

연화는 머리를 수그렸다. 가슴속에서는 거세차고도 후더운 그 무엇이 소용돌이쳤다.

《여보, 고마워요.》

연화의 눈굽에 맑은것이 맺혀올랐다. 정석은 후더운 미소를 지어보이다가 손에 들린채로 있는 짍의 포장을 벗기었다. 《봄향기》화장품통이였다.

《여보, 생각해보니 내가 언제한번 당신에게 화장품을 마련해준것 같지 않아. 그래서 준비했는데 나이가 들고 일이 힘들다고 해서 화장을 소홀히 여기지 마오. 지배인의 얼굴이 고와야 보는 사람의 마음도 명랑해지고 공장도 흰해진단 말이요. 또 생산도 그만큼 늘어날거구...》

연화는 북받치는 오열을 씹어삼키며 남편의 품에 와락 안기었다.

(여보, 쓰러지면 안돼요. 당신이 없으면 난 못살아요.)

그러나 연화에게서 가장 큰 슬픔은 끝내 찾아오고야말았다....

그는 남편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눈물 한방울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놀라운 눈길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랭정해보이는 녀성지배인의 그 가슴속에서 피눈물이 사름치고있음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장례를 치른 후 연화는 자기 방에 홀로 있었다. 책상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마련해준 화장품 짍이 있었다. 연화는 손을 들어 뚜껑을 열었다. 화장품의 은근한 빛과 상긋한 향기가 코에 미치는 순간 남편의 모습이며 체취가 가슴에 안겨왔다. 불시에 뜨거웠것이 울컥하며 두볼을 타고 거침없이 흐른 눈물이 화장품통안에 쏟아졌다. 참고참던 설움에, 애석함에 온몸이 세차게 물결쳤다. 날 두고 그렇게도 쉽게 가다니, 매정해요,

매정해요....

한참후에야 연화는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서 화장품들위에 떨어져있는 눈물방울을 닦아나갔다. 그러느라니 남편이 마지막으 로 해주던 말이 생각났다.

《지배인의 얼굴이 고와야...》

연화는 분통을 열었다. 뚜껑에 붙은 거울속에 눈물자욱이 력력히 남은 자기의 모습이 비쳐졌다. 아니, 거울이 아니었다. 어쩐지 남편의 눈빛에 자기의 모습이 비끼는듯 했다. 후더분한 정이 넘쳐흐르는 그윽한 눈빛... 그 눈빛앞에서 연화는 분이 발린 분침을 얼굴에 가져갔다. 다음엔 연지마개를 열고 입술도 문지르고...

이때 방으로 명숙이 들어섰다. 화장을 하는 지배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아연함이 실리었다. 하긴 그럴수밖에...

《어떻게 왔어?》

연화는 눈길도 들지 않은채 물었다.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자요. 난 언니가 그렇게 도 쾡정하고 찬 인간일줄은 몰랐어요.》

연화는 화장품을 제자리에 놓고서 천천히 눈길을 들었다. 그의 얼굴빛은 침착하고도 온화했다.

《더 이야기해요.》

《난 언니와 30여년세월을 함께 일해왔어요. 언니는 항상 말했지요. 인간을 사랑하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속에 참다운 인생이 있다고. 그런데... 남편의 림종마저 외면한 쾡혈인간이 어떻게 인민을 사랑할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위선, 체면주의자. 내가 이때껏 김연화란 녀자를 친언니처럼 따르고 존경해온것이 부끄러워요. 그래도 설함이 아버지인 침상에 누워있는 전기간 약혼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있었어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조차 사진을 가슴에 품고...》

명숙은 북받치는 오열을 참지 못하여 어깨를 떨었다. 연화가 몸을 일으켰다.

《내앞에서 울지 마. 보기 싫어. 그래, 난 남편을 사랑할줄 모르는 쾡혈인간이야. 위선자고 체면주의자야. 그럼 됐니? 자, 이제 그만하자.》

명숙이가 연화에게 쏘아붙였다.

《이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거예요.》

명숙은 문을 차며 복도로 나갔다. 그가 나간 뒤 연화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명숙은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나서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을 이었다.

《그후 파장동무는 그 일에 대해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만큼 지배인동무를 잘 아는 사람이 또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이란 때로 생활과정에 그 어떤

불가피한 계기를 통해서 감정폭발을 일으키고 이로 해서 리성을 잃을 때가 드문히 있으니까요.》

영학은 머리를 끄덕이었다. 어쩐지 지배인의 새로운 인간미를 보는것과 동시에 그에 대한 존경심이 차올랐다.

그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다그쳐 지배인곁에 나란히 섰다. 당비서에게 친근한 눈길을 보내는 연화의 모습은 서산의 노을빛을 받아 림림해 보였다.

4

건듯 바람에 마지막락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아침이면 들판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는 늦은가을이다.

봄내, 여름내 땀흘려 가꾼 난알을 창자마다, 난가리마다 그득그득 쌓아놓은 농민들이 흐뭇한 마음으로 허리띠를 늦출 때 식료공장사람들은 생산원료 확보로 눈코뜰새가 없이 바빠 돌아간다.

북창기초식품공장도 마찬가지이다. 가깝게는 원료기지와 주변리들에서, 멀리로는 남포, 맹산, 녕원, 덕천, 지어는 대흥에 이르기까지... 이때는 자재일군이 따로 없다. 지배인도 생산직장 일군들과 노동자들까지도 쾡이돌듯 분주히 이악하게 움직인다. 하긴 한해의 생산이 이 절기에 좌우된다고 말해도 파언이 아니니까.

대흥에 룡점수차로 자재과장과 함께 동행한 영학은 불안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북창을 떠날 때부터 진눈까비가 추슬추슬 내리었는데 여기 고산지대에 들어서니 눈이 한자나 내렸었다. 그런대로 대흥에 도착할 때까지는 빈차인데다가 눈이 적게 쌓여서 불편없이 왔는데 수십여톤의 룡을 다 점수하고서 돌아가자고보니 쌓인 눈이 적지 않게 무릎을 넘었다. 이 상태에서 저 가파로운 령길을 꽤 극복해낼수 있겠는지...

언뜻 참모회의에서 지배인이 한 말이 생각났다.

《올해는 례년에 비해 추위가 일찍 들이닥친다는데... 서둘러야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획분의 원료를 무조건 끌어들여야 해요. 남포는 내가 맡겠는데...》

지배인은 명숙에게 눈길을 준채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에게 준 혹독한 비판을 상기한것 같았다. 명숙이가 조용히 일어섰다.

《대흥조에 저를 망라시켜주시시오.》

연화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어리었다.

《그래주세요. 그럼 난 오늘중으로 떠나겠어요. 대흥엔 차가 정비되는 즉시로 출발하세요. 저, 당

비서동지, 공장을 부탁합니다.》

《허, 이왕이면 일선에 서야지요. 저도 대홍조에 망라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사업분담은 끝났었다. 대홍조가 떠나기 전에 전화편락을 받는데 의하면 남포에선 계획본의 원료를 전량 접수해가지고 출발하였는데 삼사일후이면 공장에 도착할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남포조나 대홍조가 거의 같은 걸음으로 공장에 들어설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명숙이가 무엇을 묻는듯 한, 바라는듯 한 눈길을 자주 영학에게 보내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바라겠는가? 양보, 융화 아니면 지지?...

격식없는 론의가 벌어졌다. 중점은 눈이 많이 쌓인 조건에서 대형자동차가 만짐을 한채 그 험한 령들을 넘어갈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으므로 자연 세명의 운전사들에게 언권이 부여되였다.

《이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 맹산령이 얼마나 험한지 압니까? 그러다 차가 굴기라도 하면... 제 의견은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자는것입니다.》

셋중에 나이가 많은 52호운전사 라인성의 말이였다.

《길이 열리자면 짧아서 열흘은 걸리겠는데... 헤, 그러면 우리 처한테 육을 먹겠는데요.》

싱검등이로 소문난 47호운전사 량명선이가 슬쩍 번죽을 울리자 인성이가 오만상을 찌프리며 눈을 부라리였다.

《항상 헤실헤실해서... 여기 골안에 눈이 이만큼 깔렸으면 저 가파로운 맹산령엔 길이 짝 메였는데 그래 이 육중한 차가 넘어갈상싶나? 정 처가 그리우면 걸어서 가거나.》

《체, 걸어서 갈수 있다면 어째서 차가 못 간다는겁니까. 그래도 두발 가진 사람들은 발이 많은 차가 좋아서 그 차를 타고다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차두 자그만치 여섯개의 큰 발을 가지고있는데...》

명선의 기지있는 말대꾸에 모였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쳤다. 하긴 총포탄이 우박치는 전장에서 량만가들이 일을 친다지 않는가. 영학은 입가에 피여오른 미소를 지우지 않은채 명숙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렇다면 이제 자재과장동무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가 좀 머뭇머뭇하는듯 하다가 몸을 일으켰다.

《물론 험한 길인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

엇보다도 중시할 점은 접수한 쿵을 빨리 건조시키지 못하면 인차 썩게 된다는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민들에게 공급할 장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의 어조는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심중해졌다. 명숙이는 좌중을 한번 둘러보고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비서동지, 저의 의견은 접수한 쿵을 한시바삐 공장에 도착시켜야 한다는겁니다.》

영학은 속으로 감탄했다. 어쩐지 결괏있고도 단호한 명숙의 모습에서 연화지배인의 모습을 보기가 쉬웠다. 그래서 힘있게 말을 하였다.

《동무들! 우리가 결심만 하면 무서울게 뭐요? 자, 힘차게 달려보지요.》

사람들이 모두 호응해나섰다. 47호운전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뒤머리를 쓸었다.

《거, 인민관이 없다고 노상 비판을 받으면서도... 아마 지배인동지가 들었으면 한방망이 얻어맞을번 했수다. 까짓거 죽기를 각오하면야... 내 차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아, 죽어두 공장에 가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생산을 보장하지요.》

다른 운전사가 한마디 끼어들었다.

또 웃음이 터졌다.

《이 사람이 항상 통이야.》

52호운전사도 허허 웃어제쳤다. 잠시후 길 떠날 준비가 다되였다. 그런데 발동을 건 차에서 창유리를 열어제낀 운전사들이 말다툼을 벌리였다. 《인성동지, 내가 선두에 서겠수다.》

47호운전사의 말에 라인성이 눈을 부라렸다.

《안돼. 년한이 급수라고 운전기술에선 날 못 당해. 군소리말라우.》

인성은 자기 차를 선행시켜 길의 맨 앞자리에 세워놓았다. 운전사들의 싱갱이질을 미소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영학은 52호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허, 이러단 자리를 떤우겠는걸.》

그런 영학을 명숙이가 막아섰다.

《비서동지, 앞차엔 제가 타겠습니다. 이제는 나도 자신이 설 위치를 압니다.》

영학은 명숙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자재과장동무, 고맙습니다. 그럼 선두차를 맡아주시오.》

잠시후 육중한 차들이 용기를 가다듬듯 온몸을 부르르 떨다가 눈덮인 길을 밟아나갔다.

아침일찍 떠난 차들이 맹산령밑에 이른것은 중났

이 가까와올무렵이었다. 허나 말이 중낮이지 령에는 칼바람이 불어치고 눈보라는 방향없이 들내치였다. 룬딱이 희미하게 안겨오는 령길, 차창을 때려대는 눈알갱이, 저너머로 보이는 불그스레한 태양빛마저도 을씨년스러운감을 더해주었다. 앙양 용을 쓰며 차들은 힘겹게 전진해간다. 47호운전사 명선은 랑손에 번갈아 침을 문혀가며 52호가 밟아준 길을 따라 차를 전진시켰다. 평소에 항상 유모아적인 그가 지금 이 시각엔 보통 긴장하지 않았음이 눈에 알려졌다. 그래도 입만은 아직 명랑하였다.

《52호형님이 용을 쓰는데. 그런데 힘을 작작 써야지 그러다 몸져눕기라도 해서 면회오라면 들고갈게 문제란 말이야.》

영학은 웃음지으며 명선의 어깨를 툭 쳤다.

《남 걱정하기 전에 동무부터 힘을 아끼라구. 이제 집에 도착하면 세쌍둥이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건 옳은 소리입니다. 내 그래서 처하구 이미 약속한게 있는데... 가만, 그런데 앞차가 왜 서니, 무슨 정황이 생겼는가?》

명선은 차를 멈춰세우고서 문을 열고 내려서는 앞차로 다가갔다. 그러던 그가 환성을 질렀다.

《아니, 지배인동지... 비서동지, 지배인동집니다.》

영학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엉거주춤 차에서 내려였다. 뜻밖에도 연화가 환한 웃음을 짓고 서있었다. 그의 머리며 눈썹은 모두 눈가루에 휘둘러 백설로인 같았다.

먼저 달려간 명숙이가 지배인과 얼싸안았다. 어쩐지 두 중년부인의 포옹이 뜨겁고도 열렬하여서 보는 사람의 가슴을 몽클하게 하여주었다. 52호운전사도 그답지 않게 경충경충하며 배낭을 받아준다, 눈을 털어준다 분주량을 피웠다. 연화가 당비서를 바라보며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당비서동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저야 뭐 수고랄게 있습니까? 그저 자재과장동무의 방자역이나 했을뿐입니다. 정말 자재과장동무가 지배인동무의 일숨씨를 꼭 빼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포에서 예까지 어느새 날아왔습니까?》

《로파심이라 할지... 계속 비판을 받으면서도 고치지 못하겠군요. 접수한 원료를 기차방통에 실어 보내구서 곧장 여기로 왔습니다.》

《참, 지배인동무도...》

모두들 지배인을 왁 예워쌌다, 어리광을 부리고 고무도 하며...

《동무들, 힘든 고비는 이제부터예요. 자, 용기

백배해서 이 령을 무조건 넘자요.》

《걱정마십시오. 지배인동지까지 왔으니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좋아요. 내 공장에 가면 우리 집의 돼지를 잡아서 한상 차리겠어요.》

명선이가 눈을 올롱하니 뜨고 지배인의 팔을 붙잡았다.

《지배인동지, 돼지를 잡거들랑 그 거시기를 꼭 내놔주어야 합니다. 늙은이들이 말하기를 세쌍둥이를 만들자면 그게 꼭 필요하답니다.》

눈보라소리를 짓누르며 명랑한 웃음이 령을 올렸다.

《좋아요. 자신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지 않을라구. 자, 이제 떠나보자요. 세쌍둥이를 만들래도 빨리 가야 하나까.》

《알았습니다.》

명선이가 영학의 곁에서 지배인쪽을 슬쩍 곁눈질하며 말했다.

《비서동지, 남포물이 좋은것 같습니다. 지배인동지가 이 며칠새 몸이 난것 같은데...》

영학은 머리를 기우뚱했다. 글썽 숨웃을 입은 지배인의 허리폭이 전보다 넓어보이긴 하지만... 영학은 그의 코를 눌러주었다.

《때없이 통질이야.》

운전사들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48호운전사가 연화의 팔을 잡아끌었다.

《지배인동지, 내 차에 탑시다. 내가 운전술이 제일 어리다고 다들 숙보는데 지배인동지가 곁에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 차엔 자재과 세포비서동무가 탄거구, 자리가 있겠나. 그러니...》

연화는 차들앞에 나섰다.

《내 위치는 여기야. 자 52호, 내가 밟아온 자리를 따라 달려보자요.》

《지배인동지...》

모두들 가슴속 후더움을 감출수 없어 두눈을 습벅이었다.

《자, 출발!》

세찬 눈보라를 맞받아 억척같이 나아가는 지배인, 눈덮인 령길우에 또렷이 새겨지는 그의 발자욱... 그 발자욱을 따라 차들은 전진해갔다.

영학은 슷눈길우에 새겨지는 그 발자취를 내려다보면서 억세고도 담대한 녀인의 체취를 뜨겁게 느끼며 명선의 이마에 내뿜은 땀을 닦아주었다. 그 찰나 땅크발동기 못지 않게 용을 쓰며 육중한 차를

전진시키던 기관에서 푸룩푸룩 숨넘어가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발동이 죽고말았다. 이어 뒤로 지치기 시작하는 차... 명선이 다급한 속에서 제동을 밟았다. 하지만 육중한 차는 멈춰서지 않았다. 영학은 눈앞이 아찔했다. 아래로는 경사급한 낭떠러지.

《빨리... 뛰어내리십시오.》

명선이 턱을 부르르 떨며 사람의것 같지 않은 소리를 질렀다. 영학은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 주먹을 짊 그러쥐고 소리쳤다.

《명선이, 좌로 틀라.》

그러나 명선은 눈만 부릅뜬채 팔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영학은 손을 뻗쳐 운전대를 잡아돌렸다. 인차 쿵 하고 무엇인가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다. 영학이 열린 문을 열고 나가보니 차적재함이 산비탈에 박혀있었다. 후- 한숨이 나가는것과 함께 등골로 식은땀이 쭉 흘러내렸다.

《큰일날뻔 했습니다.》

지배인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영학은 대범스레 말했다.

《각오한 일이 아닙니까. 아마 명선동무가 혼났을겁니다.》

연화지배인은 명선이쪽을 바라보았다.

《명선동무, 별일없구만. 내 생각엔 기관에 이상이 생긴것 같은데 빨리 수리하고 또 달려보자구.》

그런데 명선은 얼굴에 애처로운 표정을 지은채 움직일념을 안했다.

《왜 그러오?》

《이거... 원다리가 퍼지지 않습니다.》

《뭐라구?!》

영학이 올라가보니 제동발판을 밟았던 그의 다리가 파다든채 퍼지지를 않았다. 아마 너무 긴장했던 나머지 다리에 강직이 온듯 했다. 운전사들과 보장성원들이 달려왔다. 이때 지배인이 명선의 다리를 매만지다가 어느 한 혈을 엄지손가락으로 꼭 눌렀다. 그러자 놀랍게도 명선은 다리를 쭉 펴면서 숨을 후 내쉬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바라보는데 명선은 몇번 다리를 굽혔다 폈다해보더니만 벌떡 몸을 일으켜 지배인의 손을 잡았다.

《내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북창기초식품의 장맛이 어째서 제일인가 하니 지배인동지의 이 보배손의 덕이었군요. 그렇지, 동무들?》

《웁소.》

《지배인동지, 이제 그 보배손으로 이 큰 위의 하소연도 좀 풀어주십시오. 먹은 소가 힘쓴다지 않습니다.》

금시 숨넘어가는 인상을 하던 사람같지 않은 그

의 노죽에 사람들은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좋아요. 엎어진김에 쉬어간다구 점심식사들을 하고 떠나자요.》

누군가 점심식사구력을 들고왔다. 그런데 그것을 펼쳐들던 사람들의 얼굴에 랑패한 기색이 실려였다.

《이거 얼어서 완전히 돌이 됐구나.》

명선이 입에 가져가던 주먹밥을 내려다보며 올상을 했다.

지배인의 얼굴에 푸짐한 미소가 어리었다. 그는 숨옷앞섶을 헤치고서 품에 찼던 보자기를 풀어놓았다. 그걸 펼쳐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영학이도 놀랐다. 보자기속에는 아직 파끈파끈한 주먹밥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래서 숨옷을 입은 그의 품이 넓어보였던것이다.

《동무들, 적지만 먼저 요기들을 하자요.》

지배인이 한덩이의 쥬기밥을 둘로 나누어서 들려주었다.

《자, 미래의 세쌍둥이아버지에게는 내 뉘까지...》

명선이며 명숙, 사람들의 눈가에 맑은것이 고여올랐다. 그들은 지배인의 파스한 온기를 가슴으로 느끼며 어깨를 들먹였다.

《지배인동지...》

종업원들속에 싸여 밝은 미소를 짓는 지배인을 바라보는 영학당비서의 가슴에도 후더운것이 감돌았다.

저렇듯 불같은 사랑을 지닌 인간,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안아오고 사랑이 식어가는 가슴들에 사랑의 열을 지퍼주는 이런 일군들이 있기에 이 땅우에 인민사랑의 노래가 영원히 울리고있는것 아니라.

지배인은 언제나 달린다. 장군님께서 그어주신 인민사랑의 주로를 정확히 차지하고 맨 앞장에서 대오를 이끌고 달린다. 한명도 뒤지지 않게 곧바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도 이 대오에 활력을 더 부어주기 위하여 달리자, 하나, 둘, 셋.

드디어 대오는 그 험한 맹산령을 넘어섰다.

일군이며 운전사들, 보장성원들모두가 환성을 질렀다. 웃고 포옹하고 떠받들며...

령길에 눈을 치러 나온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 눈속에서 저 험한 령을 넘어오다니... 정말 영웅들이요.》

그런 그들에게 명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했다.

《우린 북창기초식품공장사람들이요. 우리 장이 맛있거들랑 오늘의 영웅들을 추억해주시요.》

애국의 열정으로 불타는 참신한 성격형상

— 단편소설 《꽃은 열매를 남긴다》를 읽고 —

김 정 평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헌신이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우리의 귀중한 모든것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는 인간, **김정일**애국주의를 체현한 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단편소설 《꽃은 열매를 남긴다》(김철순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 101(2012)년 7호)는 오늘의 시대적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과 생활을 전형화하여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주의문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요구이다.》

단편소설 《꽃은 열매를 남긴다》는 실력을 과학자의 생명으로 여기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최첨단돌파전에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는 선군시대 과학자들의 애국의 신념과 열정에 대한 사회적문제를 내세우고 1만톤프레스현대화체계설계를 맡아나선 청년과학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진리를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밝혀내고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혁신적안목,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자기의것을 최첨단수준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것을 창조하려는 민족적자존심,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애국의 열정이고 의지이다.

현시기 최첨단돌파전에서 우리 청년과학자들이 어떤 자각을 지니고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소설이 제기한 사회적문제의 시대적높이가 있고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소설은 사상주체적과제실현의 요구에 맞게 그 직접적담당자인 주인공 현아에게 뚜렷한 형상과제를 부여하고 그의 성격적특질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이를 위해 현아와 인식의 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깊이 맞물려놓고 그속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대조적인 성격을 통하여 주인공의 모습을 뚜렷이 부각시키고있다.

현아와 인식은 같은 연구소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연구사들이다. 그들은 서로 실력경쟁을 하며 사랑도 꽃피운다.

하지만 이들이 지닌 인생관은 같지 않다. 조국의 과학발전을 높은 실력으로 받들려는 지향은 같지만 그들이 지닌 리상과 목표, 사고방식과 행동, 지어 사랑에서도 차이가 있는것이다.

인식은 현아와 실력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이다.

그는 야심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있는 실력의 작용거리안에 있어야 한다는것, 그것이 리성이고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욕망때문에 실패하여 자존심과 명예가 손상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기에 현아가 주저없이 1만톤프레스현대화체계설계를 맡아나섰을 때 그의 결심을 일시적인 충동으로 여기며 현아가 하고있는 설계외에 연구방향이 완전히 다른 제2설계안이 설정되고 그 과제를 자기가 맡게 되자 공연한 헛고생으로 잃게 될 명예와 시간, 낭비될 정열을 먼저 계산한다.

결국 인식에게 있어서 실력경쟁은 조국을 위한것이라기보다 자기자신을 위한것이었던것이다. 바로 여기에 인식의 성격적약점이 있는것이다.

인식이와는 달리 주인공 현아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명예와 공명을 아무런 사심도 없이, 주저없이 바치는 인간이다.

그는 조국을 위해서 《나》라는것을 깎그리 무시하고 최첨단돌파전의 벽찬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지성세계를 지녔다.

연구소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지만 첫걸음부터 크게 내짚을 결심밑에 관록있는 연구사들도 선뜻 맡아안기 주저하는 하나의 공장파도 맞먹는 거대한 설비인 1만톤프레스현대화체계설계를 맡아나설 용단을 내리는 현아, 자기가 설정한 연구방향과는 달리 투자를 대폭 줄이고 체계개발기간을 훨씬 단축하면서 앞으로의 운영에서 우리 식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향을 설정할수 있다는것을 알고는 자기 설계가 부정당할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2설계안설정문제를 스스로 제기하는 처녀.

현아는 인식의 설계가 보다 우월하다는것을 알

있을 때 주저없이 자기의것을 포기하고 자기 설계의 우점을 인식의 설계에 보충하는 방법으로 수정 완성하여 최종과학심의회에 제출할것을 제기한다. 인식이도 현아의 마음에 감동되어 그를 고향한 자신을 뉘우친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실력경쟁속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행복의 열매를 가꾸며 자기자신을 완성해나가는 우리의 청년과학자들, 이들이 지닌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인가.

이렇듯 소설은 현아와 인식이 사이에 맺어지는 극적인 관계속에서 자기자신보다 조국의 부강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으로 심장을 끓이는 주인공들의 성격적면모를 참신하게 보여주었다.

소설은 인상깊고 특징적인 생활세부와 기발한 극적전환의 수법으로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부각시키고 작품의 사상에술적풍격을 높이고있다.

작품에 펼쳐진 지름길세부와 현아의 기타에서 울리는 선률세부가 이에 대한 뚜렷한 레증으로 된다.

넓고 좋은 길이 있지만 질척거리고 미끌거리는 지름길로 다니는 현아, 인식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평범하게 보이는 이 세부에는 조국의 과학발전을 위해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도 주저없이 걸으며 자신을 바쳐가려는 현아의 마음이 비껴있는것이다.

또한 현아가 타는 기타에서 울리는 좀 빠르면서도 경쾌감보다 열정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곡성이 강한 선률, 그 선률에서 인식은 이전보다 더 강렬한 질주의 감정을 느낀다. 아득히 더 높은 곳에 생

의 목표를 세워주고 빨리 오르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현아의 사랑의 세계에 인식은 감동된다.

그야말로 종자의 요구에 맞게 인물들의 성격적 본질을 집약화하여 인상깊게 보여준 성격적세부들인것이다.

소설은 뒤집기수법을 작품의 형상적특성에 맞게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예술적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소설은 전반에서 인식이 자기 설계안의 결함을 인정하고 자기자신을 돌이켜보는 과정으로 일관시켜오다가 마지막대목에서 사건을 급전시켜 반대로 현아가 자기 설계안을 포기하고 인식의것을 수정완성하는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극적전인력과 예술적흥미를 보장하고있다.

이처럼 단편소설 《꽃은 열매를 남긴다》는 우리 과학자들의 실력경쟁은 개인의 명예나 공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것으로 합쳐질 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애국의 열정을 안고 과학을 탐구해가는 두 청년과학자의 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소설에서 아쉬운것은 성격발전의 타당성을 보장할수 있게 주인공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향을 설정할수 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자기의 애국심에 빈구석이 있음을 깊이 절감하는 생활화폭이 좀 더 진하게 펼쳐졌으면 하는것이다. 또한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단순한 점도 없지 않다.

우리 작가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불씨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힘찬 진군을 고무추동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문학》축전상시상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사업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해서도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101(2012)년 제16차 《조선문학》축전상시상모임이 있었다.

입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단편소설 《위대한 심장》 평양시 평천구역 룡교1동 허문길

단편소설 《영원한 품》 4.15문학창작단 작가 김하늘

단편소설 《아흐레같이》 조선인민군문예창작사 작가 강철

단편소설 《인간의 향기》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 작가 김혜영

시초 《나의 한해》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 실장 최남순

서정시 《숲의 미소》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 위원회 작가 박상민

련시 《제강소여 너와 함께》 조선작가동맹 함경북도위원회 작가 김정삼

시초 《나의 자리를 내어달라》 평양시 락랑구역 충성1동 조광원

론설 《주체문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작가 박춘택

평론 《〈발걸음〉의 메아리는 우렁차고 환희롭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작가 권선철



—한 녀교원의 수기—

김 철 호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잔파도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밤하늘에선 은조각같은 별빛이 반짝이고 창문너머 바다 한가운데서 이따금씩 병긋병긋 등대불이 밝은 빛을 뿌리었다. 교수사업으로 하루종일 달아오른 머리를 밤의 정적속에 잠그어보는것도 이제는 나에게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진듯싶다.

저녁상을 물린 나는 책상에 마주앉았다.

탁상등을 켜다.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있다. 그것은 나무조각품 《돛배》이다.

언제인가 어머니는 나에게 《이 돛배는 먼 후날에 가서 네가 고향마을의 아이들에게 고향바다의 노래를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이 되라는 소원을 담아서 아버지가 직접 깎은거란다.》고 말씀했던적이 있다. 이밤 어째서인지 새삼스레 그 말이 떠오른다.

돌이켜보면 세월은 얼마나 빨리도 흘러왔는가. 하지만 돛배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언제봐도 바람을 한껏 빼문듯이 울룩불룩 배를 내민 돛폭의 형상이 생신하게 안겨오고 툭 툭 빠져져나온 늘씬하고 굽적굽적한 선체의 골격이 두드러져나와 비록 책상우이지만 마치도 큰 멀기가 꿈틀거리고 흰갈기 날리는 거창한 대양을 담차게 헤쳐가고있는 듯싶다.

아버지가 나에게 하얀 돛배를 만들어준것은 아마

도 고향의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처럼 정이 깊고 넓으며 창창하게 크라는 뜻에서였을것이다.

내가 열두살이 되던 생일날이라고 생각된다.

소박한 생일상과 함께 나는 아버지한테서 흰 눈덩이같은것을 받아안았다.

《우리 해연이 생일을 축하하여 아버지가 마련한 거란다. 그래 이게 뭐지?》

《야! 돛배! 이건 흰 돛배예요. 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

나는 호들갑을 떨면서 아버지의 목에 동동 매달렸다.

《해연아, 이건 돛배가 아니라 돛배라는거야, 하얀 돛배!》

《돛배? 하얀 돛배? 나무배를 보고 왜서 하얀 돛배라 하나요?》

《응, 돛배라는건 바람의 힘을 받아 움직이는 배란다. 이긴 큰 돛이구 요긴 작은 돛이지. 돛이라는 건 배에서 날개와 같단다. 눈을 감고 머리속에서 그려보렴. 배는 새의 몸통이, 한쌍의 돛폭은 새의 날개처럼 보이질 않니?》

《야! 정말, 하얀 새!》

《그래그래, 하얀 새나 같지. 새는 날개가 없으면 높이 날지를 못하고 돛배는 돛이 없으면 멀리 갈수 없지.

배는 이 돛을 잘 움직여야 자기가 가닿으려는 곳

까지 무사히 가닿게 된단다.》

고요속에 들려오는 저 잔파도소리의 여운과도 같은 아버지의 목소리...

1

그날은 새학년도의 시작과 함께 나의 교원생활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모교에서의 교원생활이라 생각하니 감정이 참 아릿해났다. 개교모임에 참가한 학생들, 학부형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로 날아오는것만 같았다.

예비종소리가 울렸다.

《중등반 1학년》이라는 패말을 써붙인 교실문 앞에서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부임인사하러 왔을 때 고춘선교장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해연선생, 신입교원에게는 첫 수업이 매우 중요해요. 학생들에게 주는 첫인상이 어떤가에 따라 교권의 무게가 결정돼요. 사진기나 같은 아이들의 눈에 한번 잘못 찍히우면 지워버리기가 조련치 않아요. 매사에 침착해요.》

땡, 땡 시작종이 울렸다.

나는 교실안으로 들어섰다.

새별처럼 반짝이는 눈빛들, 하얀 샤쓰와 뚜렷하게 색대조를 이룬 붉은넥타이의 진한 색이 눈썹리를 자극한다.

나는 출석부를 펼쳤다.

《김장수.》

《옛!》

《리분희.》

《옛!》

챙챙한 목소리들이 튕겨나왔다.

나는 풍금뚜껑을 열었다. 음악시간인것이다. 호흡을 모아 힘을 건반과 발디디개에 주었다.

짜짜짱—

챙챙한 나팔소리처럼 경쾌하게 풍금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 푸른 하늘은 나래치는 내 희망

저 넓은 바다는 설레이는 내 마음

...

푸른 바다위를 구름처럼 날아가는 심정이다. 학생들도 배를 타고 달리는 봉 뜬 기분인것 같았다.

티 한점 없고 수정같이 맑은 순결한 저 세계에 파묻혀 나도 자랐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듯

해났다.

한창 열이 오른 목청들사이로 소곤소곤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애! 애! 장수야, 해연언니의 풍금치는 솜씨가 보통아니다 애.》

《첻! 이젠 언니가 아니라고 하지 않니? 선생님이라 불러.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되면 무엇이냐 다 잘한다고 했어. 정말이야. 풍금만 아니라 아무 악기나 다 칠줄 안대. 대학에서 배웠으니까. 너 이제부터 언니라고 부르면 안돼. 알겠지?》

학교울타리만 벗어나면 큰애들의 꿈무늬에 졸졸 매달려 산에 가면 산으로, 바다에 뛰어들면 바다로 가오리연의 꼬리처럼 따라다니던 조무래기들. 장난꾸러기 《세찬이》로 불리우는 장수, 한번 앵돌아지면 열흘은 말 안한다는 길건너집 분희. 모두의 얼굴에 알쏭달쏭한 미소가 비껴있었다.

《해연선생! 무슨 허튼 생각을 하는거예요, 장수와 분희가 속닥거리는데.》

어데서인가 춘선교장이 꾸짖는것만 같았다. 나는 정신을 바짝 가다듬었다.

《수업시간에 옆동무와 말하면 안돼요!》

장수와 분희가 흠칫 어깨를 들추더니 머리를 책상에 틀어박는다.

나는 속에서 웃음보가 터져나오는걸 가까스로 누 잣히었다.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이 학급을 맡은 담임교원인 정현옥선생이 교무실에서 거듭거듭 부탁하였었다.

《우리 쫄쫄이들 심한 장난꾸러기들이예요. 첫날 수업부터 신발을 잘 신겨야 할텐데... 해연선생,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주세요. 소학반에서처럼 웅석을 받아주면 안돼요. 눈침을 땀째게 봐야 해요.》

나의 중학시절 생물교원. 그 시절 어느 생물시간에 현옥선생이 하던 인상적인 비유 한가지가 생각났다.

《학생들은 새에 비겨본다면 아직 날개가 채 자라지 않은 어린 새라고 할수 있어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자면 날기런습부터 잘해야 하지요? 날기런습을 주는데선 어미새들은 새끼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답니다. 높은 벼랑우에서 무작정 뛰어내릴걸 요구하지요. 무서운것을 모르며 자라나 용감하게 하늘로 솟구칠 때 어미새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짓는답니다.》

신통히도 지금의 날보고 한 말인것 같다. 그렇게 놓고보면 오늘부터 난 하늘을 나는 첫 날개를 편

어른새란 말인가?...

×

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아버지가 바라던대로 사범 대학 예능학부에서 전문적인 음악공부를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야금은 내가 제일 사랑해온 악기였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가야금소리를 남달리 좋아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도에 있는 백화점에서 가야금을 사다주었다.

아버진 바다에서 돌아오시면 저녁상을 물리고는 담배연기를 구수하게 삼키시며 어린 딸의 서툰 가야금소리에도 흥이 나서 코노래를 흥얼흥얼 부르곤 하였다.

내가 점점 크면서 가야금을 더더욱 사랑하게 된 것은 바다를 자기의 살이나 피처럼 여겨온 나의 아버지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불러온 많은 바다의 노래들이 신통하게도 가야금선율에 잘 어울린 데도 있다.

예로부터 배군들이 바다에서 부르는 노래는 많았다. 고전민요 《그물 당기는 소리》로부터 시작하여 《법성포 배노래》, 《바다의 노래》 등 그 가수가 셀수없이 많다.

대학졸업을 앞에 둔 마지막여름방학의 어느날 저녁에도 나는 아버지가 제일 즐겨하시는 곡 《바다의 노래》를 가야금으로 탔었다. 구성진 음향에다가 장단을 타고 울려나오는 가야금의 웅글은 통현가락은 아버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귀동네가 드디어 교원이 되는 날을 보게 되었다는것으로 하여 눈가에 방울방울 맑은것이 피어올랐다...

어느덧 방학도 끝나게 되었다.

집을 떠나기 전날 저녁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박한 음식상을 차려놓고 교장선생님을 청하였다. 진수성찬이라고는 할수 없었지만 성의담긴 음식이여서 오가는 수저나 주고받은 말마디들에 따뜻한 정이 함뿍 실려있었다. 그날 저녁에 들었던 의미심장한 말마디들을 나는 일기장에 꼬박꼬박 적어두었다.

다음날 나는 고향을 떠나오는 열차에서 그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나는 일기장에서 아버지의 석엄한 목소리를 읽었다.

《해연아, 예로부터 바다사람들이 전해오는 말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다에서 살아가자면 배뜻는 법부터 배우라. 그리고 바다물의 짠맛을 알라.〉 이런 말... 이 말뜻을 풀이하면 자기의 삶,

참된 생활을 설계하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부닥칠 고생, 난관, 고난 같은걸 두려워말라고 하는 말하자면 바다생활의 철학비슷한거란다. 명심하여라. 사람이 사는것도 이 바다생활과 같은거란다. ...》

고르로운 열차동음은 끝없이 따라섰다.

이번에는 춘선교장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해연이, 근본에 대해 생각해본적 있어요? 근본이란 뿌리지요. 식물체의 뿌리는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토양의 유일한 특성을 체현하고있지요. 어느 가정에서나 부모는 자식의 뿌리이고 사회적으로 볼때 교원은 후대들의 뿌리로 되지요.

난 해연이의 부모들과 함께 해연이의 성장 전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니 이런 말 할 어느 정도의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왜 많은 악기들중에 하필 꼭 가야금을 사랑하시고 가야금연주를 하는 딸의 모습에서 기쁨을 찾으셨을까?

내가 생각하건대는 아버지가 평생 몸과 닮을 담그고 사랑해오신 바다의 숨결이랄가, 그 폭이랄가 하는것이 가야금의 울림과 많은 면에서 비슷한데가 있는것 같애. 지금까지 나온 많은 바다의 노래들을 봐요. 내 주관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그 많은 노래들을 가야금으로 연주하면 그야말로 바다냄새가 물씬물씬 나는것 같다고 난 항상 생각해왔어.

아버진 바로 자기처럼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되었으면 하는 아니, 대를 이어가며 바다를 사랑하는 많은 아들딸들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연이에게 걸고 살아오시는거야.

해연이, 나서자란 고향땅의 맛과 아름다움, 고향의 질은 정서적색채를 잃어버린다면 그런 사람을 두고 여문 이삭이라 말할수 있을까?...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후 나는 고향 바다가마을의 중학교 교원으로 배치받아왔다.

2

화끈 달아오른 교실안에서 악기련습이 한창이었다. 빠질빠질 이마며 코등에서는 비지땀이 돌아나는데 한쪽에선 파도소리가 귀구멍을 간지럽히었다.

비둘기생각은 항상 콩밭에 가있다더니만 내가 소조실안으로 들어서기 바쁘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졸라댔다.

《선생님, 딱 한번만 저 바다물속에 곤두박질을

좀 해봅시다.》

비위가 좋은 장수, 제일 어린것이 먼저 일어서더니 웅석을 부리듯 능청스럽게 말하였다. 그러자 가뭇철에 갈증을 만난 밀보리밭처럼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술렁술렁 호응이 일어났다.

《선생님! 바다에 좀 가십시오.》

《선생님, 승인해주십시오.》

《안돼요. 놀고픈걸 다 놀고 자고픈걸 다 자고나면 영예의 붉은기학교쟁취에서 한몫 하겠다던 결의는 언제 실현할터예요? 힘든걸 다 이겨내야 해요. 자, 자, 다들 판생각 말고 연습들이나 해요!》

나는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그들의 제의를 생무 우쭐듯이 싹둑 잘라버렸다.

(당장 영예의 붉은기학교 예비관정이 박두한 때에…)

나는 열려진 창문쪽으로 다가갔다. 텅 빈 창문과 마주서니 어데라없이 마음이 허전해났다. 새로 배치되어와서 첫 악기소리를 냈을 때 창문에는 구경하는 아이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떨어질념을 안했는데 요즘은 왜 이리도 조용해졌을가. 소조실문턱에 불이 일도록 드나들면서 겨끔내기로 내비치던 자기 학급 학생들에 대한 학급담임들의 관심사도 이제는 뜸해졌다.

늦은 저녁무렵에야 나는 지친 다리를 끌고 겨우 집문턱을 넘어설수 있었다. 목에서 겨불내가 나고 그날따라 별로 몸이 피곤했다.

《옛다. 몹시 배고프겠구나. 어서 들러무나.》

어머니가 올려온 밥상우에서 연분홍색이 나는 빨간무우조각이 동동 떠다니는 물김치가 구미를 당겼다.

꿀꺽 꿀꺽— 단숨에 한사발 들이켰더니 후— 숨이 길게 내뿜렸다.

《애야, 네가 하는 일에 웬 참견이라만 악기연습하는것 말이다. 애들이 몹시 지루해들 한다고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앉기만 하면 수군덕거리더구나.》

목으로 넘어가던 밥덩이가 그만 툭 멈춰서더니 숨길을 막았다. 팔꼭질이 치밀었다. 쿵, 쿵, 주먹으로 앞가슴을 쥐어박았더니 한참만에야 숨길이 열리는것 같았다.

《야! 정말 숨이 차군요. 나 혼자 그 술한 애들을 배워주는것도 힘에 부치는데 이젠 부모들까지 발목을 잡아당길셈인가?》

《애, 너무 외곾으로 생각말고 차근차근 생각 좀 해보렴.》

자식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나의 마음 한구석을 얼어들게 하였다. 한편으로 손땀이 탁 풀렸

다.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보기는 최근 며칠사이에 처음 느껴보는 일이었다.

섬구이사건은 바로 그 다음날에 일어났다.

《오늘런습은 이렇게 하겠어요. 권성학생! 금관악기조를 데리고 바다가에서 런습해보세요. 어디 파도소리가 세나 나팔소리가 세나 한번 내기를 해봐요. 냇다 뿔어보란 말이에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 좋구나.》하고 교실이 떠나가게 환성이 터져올랐다.

《그만 진정들 해요!》

도중에 이런 주의를 주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계속 이럴판이었다.

《바이올린조와 목관악기조는 학교뒤에 있는 교재림숲속에서. 자, 그럼 모두 자기 위치를 차지해요. 가만! 저녁총화때 선생님이 개별검열을 할테니 그리 알아요. 가야금조만 남고 나가보세요.》

잠자던 수림이 깨어나기라도 한것처럼 한동안 술렁대더니만 교실안은 잠시후에야 조용해졌다.

계획서에는 가야금조 교수로 표기되어있었다.

《전시간에 이어 오늘은 가야금의 특징이 집중되어있는 룡현연주에 대해 보기로 하겠어요.》

나는 룡현주법의 형태와 연주요리를 설명한 후 시범연주를 보여주었다. 궁—두웅—우웅, 우웅—하고 여음이 떨림으로 공명되어나왔다.

《울림통에서 나오는 룡현의 공명현상은 무엇을 런상시키는가요? 누가 대답을 해보겠어요?》

《…》

《자, 그럼 다들 가야금의 밑면을 봐요. 무엇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울림통을 해, 달의 모양을 뒀을가요?》

《?…》

《예, 그건 가야금의 울림을 우주공간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라고 상상을 했던겁니다.

우주를 정복하는것은 우리 선조들의 꿈이었습시다. 그 리상, 그 꿈이 실현되어 오늘은 우리 나라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천년동안 꿈속에서나 그러보던 우주정복의 길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었습시다.》

내 말이 채 끝나기 바쁘게 촉기빠른 분회가 까치처럼 달썩거리며 남먼저 일어서서 대답을 하였다.

《예! 〈광명성1〉 호, 〈광명성2〉 호가 우주로 날아올랐습시다.》

《웁습시다. 우리가 지금 연주하고있는 이 〈은방울〉 가야금도 아버지장군님의 지도에 의하여 개

량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모두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를 <광명성1> 호와 2호가 날아가고있는 저 우주공간에서 울려오는 소리로 생각하면서 소리를 잘 내어보지요.»

또다시 줄을 구르는 여음이 궁글어져나왔다.

이때 다급하게 문을 열고 직일교원이 들어왔다.

《해연선생, 나 좀 잠깐 보지요.》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지금 다들 복습중인데 나팔조학생들은 바다에서 섭조개구이를 하고있으니 이제 도대체 어찌 된거예요? 한시간전에 나팔을 쥐고 정문을 나서는 학생들을 보았더랬지요. 잠전에 도래굴이쪽에서 연기가 나길래 혹시나 하여 가보았더니 어휴! 기가 막혀서... 권성학생이, 글썄 조장이라는게 머리가 제일 커가지고 앉아서서 섭을 따는게 아니겠어요. 내가 나타난걸 보자마자 바위썰에 숨는걸루, 물속에 머리를 틀어박는걸루 야단복닥이예요. 빨리 나가서 수습해주세요.》

이거라구야, 가슴이 등당거려 어데 참을수가 있담. 나는 어떻게 그곳으로 냅다 달렸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어마나! 어찌면 좋을가. 저 꼴들 좀 봐.)

영거주춤하니 서서 나를 맞이한 창수의 입 주변은 온통 솟검댕이투성이고 학생들이나 불무지에 무뚝히 쌓인 섭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짹- 벌리고있었다. 나는 그만 울화통을 터뜨리고말았다.

《다들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겠어요?!》

도래굴이절벽에서 메아리가 일어났다.

《권성학생! 이건 뭐예요, 뭔가 말이에요? 학생은 조장이 맞아요? 그래, 런습은 하지 않고 섭조개구이를 하다니요? 정 이렇게 하겠으면 다 견여가지고 자기 학급으로 돌아들 가요!》

물참봉이 된 몸이 와뜰 놀라 어깨를 들추는통에 물방울들이 후두둑 나의 얼굴이며 옷자락에 날아와 떨어졌다.

《선생님, 사실은 저...》

권성이가 뜨직뜨직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매몰스레 그의 말을 잘랐다.

《무슨 변명을 하려는거예요? 그래 학생은 오늘 파제를 다 쉼버리구 무슨 할말이 있어요?》

그날 저녁총화에서는 금판악기조의 런습실적이령으로 평가되고 권성학생은 호된 추궁을 받고 조장위치에서 제명되었다.

며칠째 권성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다. 나팔조학생들모두가 활기를 잃었다.

교원들속에서 구구하게 말들이 돌아갔다.

한번은 권성의 학급담임교원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해연선생, 아이들의 사기를 너무 문질러버리는게 아니예요?》

《?!...》

나는 진정으로 노여워하는 그 선생의 눈길앞에서 무어라 할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내가 학생들의 악기런습을 보아주느라 늦게 돌아와 저녁을 마치고나자 아버지가 다가앉으며 물었다.

《그래 우리 선생님, 재미가 어떠냐?》

《재미요?!...》

나는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러는가 해서 수염터가 거뭇거뭇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권성이 그너석 말이다. 오늘 길에서 보니 어깨가 축 처져서 다니는게 꼴이 참 안됐더라. 쾌활하구 바다를 좋아하구, 정말 사내싼 녀석인데. 해연아, 내 생각엔 네가 좀 너무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다.

사내들이란게 한창나이뎌 그럴수도 있는거지. 꿈게 책상에만 앉아있어서야 그게 무슨 사내녀석이겠니. 좀 놀기두 하구 그러다가 때로는 재구두 치구 그런거지.

또 바다를 옆에 끼구 자라는 녀석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두 치구 섭두 따구, 그래야 바다와 친숙해지구 바다에 정들어. 섭구이맛두 모르구 자라서야 그게 무슨 바다사내겠니? 안 그러냐?》

나는 아버지의 물음에 무어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다.

아버지는 이제 앞으로 다 알게 될거라는듯 시뭇이 웃었다.

이틀후 저녁퇴근길이였다.

창수네 담임교원 현옥선생이 나의 팔을 잡아당겼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애아버지가 해연선생을 꼭 데려오라고 하잖아? 우리가 부부로 된건 해연선생 아버님 공로라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거든.》

울적해다니던 나는 군말없이 현옥선생을 따라 자박자박 걸음을 놓았다.

그들이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바가 있었다.

...

해군제대군인 진명섭이 릉름한 총각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는 수산협동조합 사들선작업반에 배치를 받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작업반장

을 하고있었다.

《이보게, 명섭이. 요즘 자네의 미인을 만나보군 하나? 헌데 통 무소식이다. 고무줄도 너무 늘구면 끊어지는 법일세.》

명섭은 얼굴을 붉혔다. 제아무리 용감한 바다사나이로 해도 시안에서 명망이 짙한 대학교수선생의 따님을 어찌 호락호락 좌우지한단 말인가.

《내가 보기엔 바다가 시내물을 뒤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누만. 어데다 대구, 어힘!》

아버지가 《어데다 대구, 어힘!》하는 날이면 일이 터지곤 했다.

《시내물은 바다로 깊숙이 흘러들어야 정상이야. 자네 해병의 심장으로 체네 하나 푹 삶질 못한단 말인가? 쫓쫓... 체통이 아깝군, 체통이!》

《반장동지두 참, 처녀 사귀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 별수가 있습니까?》

어좁은 명섭이 뒤더수기를 긁적이었다.

《하긴 군사복무할때기 언제 그런 신경을 다 써봤겠나. 내가 묘안을 하나 대줄가?》

명섭은 귀가 솔깃해졌다.

그후 아버지와 함께 명섭은 읍에 있는 지방산업 유리공장에 선을 놓아 물고기엑침표본을 넣을 유리병을 구해오고 바다밀을 며칠동안이나 살살이 훑어가면서 자기 손으로 제일 크고 잘생긴 쥐치, 검정우레기, 전복이며 생복 등 특이한 십여가지 물고기와 조개류를 골라잡아다가 유리병에 넣었다. 밀봉을 한 병에 표본채집자를 기록하는 란에는 《정현옥》이라고 뚜렷하게 이름을 써넣었다.

드디어 시내물은 바다속으로 깊숙이 흘러들어가었다.

학교의 생물실험실에 바다물고기표본의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고 현옥선생은 몇해사이에만도 5건의 교육경험을 발표한 시모범교수자로, 실력가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

서로가 앞날을 약속하던 그날 명섭은 현옥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현옥동무, 우리의 삶이란 뭐라고 생각되오? 난 말이지, 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삶이 존재하는거라고 생각하오. 바다사람들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닻을 내리는 정다운 항구와 물이라 부르는 땅인거요. 현옥이가 나의 항구, 나의 사랑하는 땅의 주인들을 키우는 선생님이니 이 바다의 심장은 통채로 동무의것이란 말이지요. 하하하!》...

밤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나는 현옥선생의 집문을 박을 나쳤다.

어린 혜정이가 엄마손을 잡고 따라나와 손을 흔들었다.

밤하늘에선 쪼각달과 별들이 이마를 서로 맞대고 무엇이라 속삭이고있었다.

현옥선생이 바래움끝에 나에게 말해주었다.

《며칠전에 장수학생이 아버지 손목을 잡고 한밤중에 집에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섭구이사건은 자기때문에 일어났다고, 자기가 너무 조르는통에 조장형님이 하급반학생들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아요. 난 여태까지 그를 장난꾸러기로만 보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얼마나 어른스럽게 보이는지 내가 다 놀랐어요. 자유주의를 부린 잘못도 뉘우치고 남의 아픈 마음을 다 알지 않았겠어요. 뒤에서 도는 말때문에 너무 마음쓰지 말아요. 다 잘될거예요. 참! 어른과 아이들이 뭐가 다른지 알아요? 칭찬을 특별히 좋아하는게 아이들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자꾸 칭찬해주고 복돋아주는것이 아이들의 의기를 자래워주는결로 되지요.》

나는 그날 밤늦도록 책상우의 돛배를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가없는 난바다에 두둥실 떠가는 나의 돛배.

돛목을 활짝 펼치고 끝모를 수평선으로 훨훨 떠가던 돛배가 그날 밤은 한자리에서 빙글빙글 맴돌이하고있는것 같았다.

돛의 색이 별로 시커멓게 죽어보이고 폭도 쭈그러든것만 같이 느껴진다.

아, 나의 돛배!

바람을 받아 방향을 잡고 하얀 돛폭은 펼쳤으나 키없이 달려온 나의 돛배...

상실감으로 하여 마음이 그지없이 구겨지는것을 나는 밤새 느끼고있었다.

3

도에서 진행된 재교육강습에 참가하였던 고춘선 교장이 돌아왔다.

나는 그가 정말 반가웠다. 그동안 나의 마음속 한 구석이 별스레 텅 빈것처럼 허전하였던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춘선교장의 나에 대한 관심은 류달랐다. 그래서였는지 모르나 그는 하루사업이 끝나고 교사가 조용해지자 나를 불렀다.

《해연이, 오랜만에 우리 바다바람을 쏘여보지 않았어요?》

나는 얼른 차비를 하고 그를 따라나섰다.

가을을 예고하는듯 가없이 펼쳐진 수평선너머에서 선선한 바다바람이 밀려와 옷자락을 들추었다.

《그사이에 수고를 많이 했더군요. 고충도 크고… 내 다 들었어요. 인간을 키우는 일이 말처럼 쉽질 않거든요. 참된 제자를 키우려면 속깨나 썩일 각오를 해야 하는거예요. 마지막 쓰러질 때까지 불타는 초대처럼 말이에요. 오, 참! 해연이, 저길 좀 봐요. 저 바위가 낮익질 않아요?》

나는 그가 가리킨 곳에 눈길을 없었다.

아! 도래굴이에서 제일 높은 저 바위! 내가 저 곳에서 바다를 향해 내리쨌었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해염치기 첫걸음마를 떼어주고 중학반에 올라와서는 담임선생님이 내내 물에 떨어지는 나의 수영동작을 늘 곁에서 지켜보았지.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 바다를 좋아하지요. 아마 그런 애들에게 며칠만 물에 들어서지 못하게 해도 막 발광할거란 말이에요.》

속이 뜨끔해났다. 꼭 짚어서 말은 안했어도 교장 선생이 섬구이사건을 두고 말하는줄 알았다.

《해연이, 물론 아이들에게 악기나 노래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어머니품같은 이 바다와 단 한순간도 떨어져살지 않으려는 그 애룩한 감정의 세계가 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애국의 싹이기때문이에요. 애국의 녀으로 불타는 심장들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있고 또 음악도 문학도 필요한거예요.》

그의 손에 이끌리어 나는 아득한 심연속을 걸어갔다.

기슭에 쌓여있던 하얀 조가비들이 밝히워 바삭바삭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서 작은 조가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으로 목걸이며 팔걸이를 만들던 어린시절이 되살아났다.

춘선교장은 내 어깨에 팔을 다정히 얹으며 나의 마음속을 읽고있는듯 말을 이었다.

《해연이, 작고도 큰 아이들의 동심세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곤 하는데…

아이들의 세계란 얼마나 엉뚱한지 우린 이 점을 특별히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친김에 한마디 하겠어요. 장수학생 말이에요. 그가 음악소조에 넣어달라면서 날 찾아온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지요. 학생은 어째서 음악소조에 들어가려고 하는가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인민군대에 가자면 수영, 룡구, 축구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는 수영소조부터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요즘 형님들이 나팔부는걸 보니 항일유격대의 돌격나팔소리, 아등단나팔소리가 생각나더라, 예술영화 〈피어린 자옥〉에서 나오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동생처럼 나팔을 불고싶다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어디서든 맨 앞장에 서는 진군의 나팔수가 되고싶다나요.

어때요? 우리 학생들의 세계가 바로 이렇게 훌륭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작게만 볼수 있을까요? 엉뚱한 세계, 바로 그속에서 태일의 영웅도 세계적인 발명가나 작가가 나온다는걸 잊어서는 안돼요.》

나의 숨결은 종잡을수없이 설레이며 거창한 바다우를 날아오르고있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나는 알섬분교에 한동안 이동수업을 나가있게 되었다.

바다가에서 나서자란 나였지만 알섬에서의 생활은 마치도 내자신이 바다우에 두둥실 뜬 배를 탄 심정을 느끼게 하였다. 마치도 바다속의 바다에 뛰여든 심정이랄가. 알섬의 아이들도 물의 아이들과는 달라보이고… 나는 바로 그 알섬에서, 섬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진주를 캐내는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되었다.

악기다루기수업을 마무리하던 삼일째되는 날 오후 첫시간이었다.

등대장아바이가 문득 교실로 들어섰다. 분교장련희선생의 남편되는분이다.

《우리 호명이하구 한 약속이야 지켜야지.》

들어서면서 하는 첫 말이였다. 그때 그의 등뒤에서 분교장선생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여보! 아직 수업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뛰어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등대장아바이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오, 그렇지. 수업시간엔 그 누구도 침범을 못하지? 알겠소. 해연선생, 내 기다리겠소.》

수업이 끝나자 등대장아바이가 교실로 들어왔다. 그는 뽀족뽀족 허영게 내똥은 턱수염을 뺨 장한듯이 쓸더니 《옛다! 호명이가 보고싶어하던 이 알섬의 보물이다.》하면서 갈매기알 세알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여 책상우에 내놓았다.

그러자 호명의의 입에서 새된 환성이 터져나왔다.

《야! 갈매기알! 등대장할아버지가 난 제일 좋아!》

호명은 갈매기알을 덥석 손에 집어들더니 호들갑을 떨며 돌아쳤다.

아바이의 얼굴에 금시 흐박진 웃음이 퍼졌다.

《저렇게 좋아하는걸 내가 늦게 알았거든.》

영문을 몰라하는 나의 시선과 마주치자 등대장아바이는 아, 그렇지 하는 인상을 짓고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소학반아이들의 낮은 의자에 영치를 붙이고 나와 마주앉았다.

호명이와 아이들은 갈매기알에 온통 정신이 쏠려있었다.

《해연선생이 분교수업을 온지 꼭 이틀째되는 날 아침이였네. 밤근무를 금방 인계하고 등대탑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서는데 이너석이 빠리릭빠리릭거리며 제 아버지를 찾아 탑실계단을 마주 올라왔네. 난데없는 피리소리에 금시 내 눈앞이 새말개지는것 같길래 〈어허, 요즘 우리 호명이가 영판 사람이 되었는데. 늘쌍 우울해있더니만 오늘은 웬일이냐? 아침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하고 핀잔을 주었네.

그러자 저너석이 〈말시키지 말아요! 씨, 피리런습을 하는데 놀려대면서. 등대장할아버진 거짓말쟁이야!〉 하고 코방귀를 끼는게 아니겠나.

〈이것 보지! 계집애처럼 얌전한가 했더니만 거뿔길 독이 오른 고추 한가지로군.〉

〈체, 거짓말쟁이예요. 난 요즘 매일 아침 바다의 해돋이를 지켜보고있어요. 요전날 수업시간에 음악선생님이 말씀했어요. 수평선에서 솟구쳐오르는 아침해를 지켜보라, 그러면 하루종일 먹지 않고도 새힘이 온몸에서 막 솟구칠거라구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진 이자 뭐라 했나요. 아침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는게 거짓말이 아니냐요?〉 하질 않겠나.

나는 그만 애한테 한코 떴었어.

〈어이쿠! 내가 그만 동쪽에서 뜨는해를 서쪽에서 뜨는해로 잘못 봤구나. 용서를 빈다. 그렇게 하지?〉

〈용서 못해요!〉 이번에는 오히려 저너석이 더 만만치 않게 나온다—

〈그럼 날더러 어찌라는거냐, 응?〉 나는 수그려드는척 했지. 그제서야 앙큼한 저너석이 속심을 터놓았네.

〈할아버지, 나— 갈매기알 딱 한알만 줌… 응?〉 하고 응석을 부리겠지.

〈그건 안돼! 벌써 오자바람에 갈매기알을 넘겨다보면 못써요.〉 하고 엉덩짝을 절씩 두들겨주었네.》

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방글서 피워올렸다. 등대장아바이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영화의 화면들처럼 방불했던것이다.

《그러자 호명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어— 사실은 그렇게 아니예요. 난 여태껏 도시에서

만 자라다보니 갈매기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도 본적 없어요.

난 국어선생님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해방후 조국에 오실 때 갈매기들이 제일먼저 맞아주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갈매기에 대해 잘 알고싶는데 메추리알, 참새알, 오리알은 많이 보았지만 갈매기알만은 본적이 없어요. 한번 구경을 시켜주세요.〉 아, 이러질 않겠소.

난 그만 그 애 말에 탄복을 했소. 어린 소년이라고 우습게 봐선 안되겠구나, 얼마나 궁냥이 깊은가 하는 생각에 난 제꺼덕 말해주었지.

〈오, 그래?! 내가 또 잘못을 저지른번 했구나. 걱정말아. 할아버지가 래일은 제일 큰것으로 가져다줄게. 그러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피리소리를 계속 들려줘야 해. 알겠지!〉

그러자 호명이는 사기가 나서 〈그건 문제없어요!〉 하질 않겠나. 그래서 우린 손가락까지 걸었네.》

나는 그만 뜻밖의 호명의 생각과 말에 감동된 나머지 등대장아바이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이때 갈매기알에만 정신을 쏟고있던 호명이가 우리쪽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갈매기알이 신통히도 우리 집 닭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갈매기새끼들도 꼭 병아리갈겠지요?》

그러더니만 한참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호명의 눈에서 새까만 눈알이 대륙대륙 굴러다녔다. 갑자기 그의 눈이 반짝 하고 빛났다.

《선생님, 우리 섬의 갈매기들도 아버지장군님을 맞이하였던 해방된 조국의 그 갈매기들의 후대가 아닐가요?》

너무나 엉뚱한 질문이었다. 순간 나는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아니, 글썽 무슨 생각을 하나 했더니만 호명이는 갈매기세계를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나의 눈앞에서 밤하늘에 번쩍이는 섬광과도 같이 짧은 그 한순간에 온 우주가 안겨드는것 같은 깨달음이 평곳 내 머리를 쳤다. 동심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그 폭과 깊이가 가늠을 할수 없는것인지 특감적으로나마 느끼게 되던 그 순간이었다. 그 누구는 사막에서 샘물을 발견하고 생의 희열을 느꼈다더니만 나는 그때 드디어 내가 동심세계의 문어구에 서있다는 환희로움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때 호명이가 다시 물었다.

《선생님, 이 알에서 까나온 새끼가 병아리나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사실 나 자체도 갓 까나온 갈매기새끼는 한번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나의 귀전에서는 갈매기새끼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던 호명이의 물음이 떠날줄 모르고 계속 울렸다.

다음날 나는 물으로 나가는 배를 탔다.

군에 있는 교원재교육강습소와 도서관을 왔다갔다하며 애쓴 끝에 드디어 바다새들에 대한 록화물 자료를 손에 넣고난 나는 그만 기쁨에 눈물이 다 글썽해졌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섬에 도착한 후에 찾아들었다. 호명이를 비롯한 섬마을아이들이 어둠이 질어가는 기슭에서 나를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선생님!—》

나를 반기며 에워싸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으며 나는 이제는 나에게도 기다려주는 학생들이 있구나 하는 기쁜 깨달음에 가슴이 한껏 뿔뿔해짐을 느꼈다.

아이들은 눈을 초롱초롱 빛내이며 록화물을 보았다. 그러고나서 호명이가 하던 말—

《선생님, 이제는 알만 합니다. 음— 갈매기후대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제야 깨도가 된다는듯 어른처럼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이는 호명이의 말에 모두가 와— 하고 웃음들을 터쳤다.

그렇게 정이 든 섬아이들과 나는 힘들게 헤여졌다. 한주일동안에 정을 산같이, 바다같이 쌓았던것이다. 학부형들이며 아이들이 가득 모여 내가 탄 배를 바래올 땐 어쩔수없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선생님!—》

창창한 아이들의 부름을 들으며 나는 이제는 내가 이 아이들의 세계를 떠나, 이 바다를 떠나 살수 없다는 강렬한 느낌과 사무치는 정을 느꼈다.

나의 귀환보고를 들으며 춘선교장은 이윽도록 아무 말도 없었다.

한참후에야 그는 나직이 말문을 열었다.

《정말 우리 호명이가 용균요. 무슨 발견을 했나 보지요! 갈매기후대라— 거참,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좀 보세요. 이렇게 순간순간 우릴 깜짝 놀래우니 말이에요. 해연선생이 이제야 교육자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춘선교장의 얼굴은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창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한참동안이나 알섬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어둠속에 잠겨드는 바다 한가운데서 초저녁부터 등대불이 깜박이었다.

퍼그나 평온하고 부드럽게 들리는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어느 생명체이나 수명은 다 정해져있지요. 갈매기의 수명이 15년정도라는데 그것이면 갈매기의 생활도 끝이 나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갈매기의 생이 끝나는것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아니, 난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생명의 개체에는 끝이 있어도 후대와 더불어 이어지는 생명력은 무한대가 아닐까요?》

훌륭한 후대가 자라날수록 삶의 세계에 대한 뜻과 폭은 보다 넓어질게고 내용은 풍부해지기마련이 예요. 우리가 키워내고져 하는 훌륭한 후대란 뭐겠어요. 자기 고향 바다가의 조가비 하나, 갈매기알 하나도 제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착한 마음들이 아니겠어요. 그 마음들이 바로 서로가 성장하면서 품안게 되는 조국이란 커다란 세계의 소중한 한 부분들로 될거란 말이에요. 해연선생, 그래서 난 권성이네 섬구이사건이나 호명이의 갈매기세계나 다 크고 대견하게 생각하고싶어요.》

그는 내 어깨를 다정히 부여안았다.

《우린 좋은 세월에 훌륭한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자라는 멋진 직분을 지니고있어요.》

나의 심장 한가운데서 쿵 하고 폭음같은것이 울려나왔다. 더불어 바다의 난파도우를 헤가르며 날고날오는 갈매기의 모습이 우렁이 떠돌았다.

갈매기!— 이 거창한 바다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한 저 등대섬, 깊은 바다물속에 천연암반으로 억척같이 뿌리를 박고 거연히도 서있는 저 깎아지른듯한 벼랑에 삶의 보금자리를 정하고 수천년동안을 끊임없이 후대를 남기면서 풍요한 이 바다와 함께 변함없이 살아오는 바다새... 눈비도 해일도 태풍에도 끄덕없이 만년을 용감하게 뚫고 하늘높이 솟구쳐오르기만 하는 장한 바다새!

의미심장한 그 무엇인가가 우렁이 안겨오는 삶의 새 세계에 들어서는데 한 느낌으로 하여 내 눈앞은 청청한 가을하늘처럼 맑아졌다.

《아이들은 키울 때 품은 들어도 다 자래워놓고 보면 정말 그보다 더 대견스러운건 아마 이 세상에 없을거예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되면 해연이도 우리 교육자들이 무슨 멋으로 교육사업을 하고있는가를 알게 될거예요.》

복눈이다 쌀눈이다

김 충 기

원수님의 신년사 가슴깊이 새기고
별에 나선 우리들을
새해도 축복해선가
백옥같은 함박눈 꽃보라마냥
머리에 어깨에 내려앉는 새해의 첫눈

첫눈을 많이 맞아야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새해의 눈오는 날
동네방네 들뛰어다니던
어린시절 그 마음 펼쳐진 별인듯
온 분조 온 작업반이 앞을 다투어
별에 나선 새해의 첫전투

머리우에 어깨우에 내려앉은 눈
이해의 눈은 무겁다
아무렴 무거워야 하리
농민의 본분을 마음속깊이에 새겨주는
흰눈 새해의 함박눈

올해는 어떤 해나
애국에 불타는 마음으로
맞아야 할 전승의 큰 명절
빛내야 할 공화국창건 뜻깊은 명절을
쌀로 빛내야 할 우리가 아니나

복눈이라 그저 맞지를 말자
나라의 쌀독에 쌀을 가득가득 채워갈
백옥같은 농민의 애국의 마음 하늘에 비껴
하늘에서 뿌려지는 복눈은
나라의 쌀독에 차곡차곡 채워갈 쌀눈!

복눈이라 그저 맞지를 말자
이 쌀눈을 이고 온 한해 별을 가꾸면
이 눈 가을날 분배장에 뿌려질
꽃보라가 되려니

그 꽃보라 웃는 어깨를 높이고
저 멀리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대원수님들께 인사를 드리자
연백별농민들의 인사야
쌀로 드리는 기쁨의 인사가 되여야 하거니

김정일애국주의열풍에
땅도 들썩이는 이 계절에
어깨에 무거운 흰눈 쌀눈은
나라의 쌀독에 가득가득 채워갈
백옥같은 농민의 마음이란다

~~~~~  
누렇게 익어가는 벼이삭들을 바라보듯 춘선교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한껏 피어났다.

나는 눈길을 들어 알섬쪽을 더듬었다.

갈매기세계와 알섬은 마치도 대양 깊은 곳에서부터  
한치한치 서서히 떠오르고있는 수천억톤이나 되는  
거대한 천연바위처럼 나에게서는 느껴졌다.

드디어 나의 돛배는 사나운 파도에도 흔들림없이  
창창한 바다우를 헤가르며 나아가게 된것이다.

×

나는 언제나 하얀 돛배앞에 마주앉아 제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자주 읽어보곤 한다.

권성이, 장수, 호명이 이들모두가 다 어엿한 조  
선인민군 해군복을 입고 지금 조국의 바다를 지키  
는 전초선에 서있다. 그리고 분회는 국가과학원에  
서 연구사로 일하고...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보며 하얀 돛배추억  
을 거슬러올라가느라하면 한쌍의 날개와 같은 돛폭의  
의미가 더더욱 뚜렷이 안겨온다.

부드러운 어머니품같은 대지가, 무한히도 무르고  
끝없이 정깊고 웅맹스러운 기상이 풍기는 아버지와  
같은 내 고향 바다가 나를 안아키웠구나 하는 생각  
으로 때로는 눈물도 겨웁다.

하얀 돛배를 타고 바다에 나서면 즐거움만이  
아니라 만리폭풍에도 꺾이지 않는 억센 날개인  
양 신념의 돛폭을 달아준 내 삶의 대양이 아니  
던가.

모든걸 다 싣고 하얀 돛배는 또다시 떠난다.

신념의 키를 물속깊이에 든듯히 박고 힘껏 저  
으며 줄곧 태양이 솟구치는 수평선을 향하여 달  
려간다.

푸른 하늘에 나는 백학 한마리, 푸른 대양우에 떠  
가는 하얀 돛배 한척...

# 나의 포전아

## 심 복 실

거름짐 가득 지고 들에 나서니  
눈이불 들치고 쫓는듯싶구나  
같이한 논마다 거뭇거뭇한  
얼굴을 내어밀고 일어서는듯

새해벽두의 들길에 울리는 소영각소리  
앞장서 길을 내며 거름산을 옮기는듯  
프락포르의 경쾌한 발동소리에  
땅이 반기여 품을 벌리는듯

알고있겠지 나의 포전아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말씀  
내 몇번을 외우며 이 들길을 걸었는지

이 나라에 땅이 있고  
이 나라에 농민이 있으면서  
다시아 원수님께 쌀걱정 끼쳐드리랴  
농업전선은 걱정마시라고  
마음속으로 아뢰는 말 너도 들었는게지

그래서 겨울잠마져 잊은듯  
더미더미 쌓이는 거름무지에

배가 부른듯 꺼지게 웃는듯  
내 정든 땅 사랑하는 나의 농장 포전아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말자고  
원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다  
사회주의부귀영화 마음껏 누리자고  
땅아 네우에 휘황한 설계도 펼치셨거늘  
어찌 그 소원 못이루랴

허리띠를 조여매지 말자 다시는!  
농민의 자각으로 가슴에 쏘아새기며  
신들메를 조여매고 나선 새해진군길  
나는 다만 거름짐이 아니라  
정든 포전을 온넋으로 안고나섰다

줄지어 달려가는 프락포르의 발동소리  
발통을 구르며 오가는 소들의 영각소리  
쿵쿵 내 가슴에선 땅울림이 시작되었다  
원수님께서 안겨주실 부귀영화가  
나의 포전에서 시작되게 하련다

아, 포전아 너와 나  
뜨거운 하나의 애국의 불덩어리가 될 때  
원수님 안겨주시는 만복이 우리에게 온다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1호 (루계 제783호)

### 편집위원회

|     |                      |
|-----|----------------------|
| 내 곳 | 문 학 예 술 출 판 사        |
| 인쇄소 |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 인 쇄 | 주 체 102(2013)년 1월 1일 |
| 발 행 | 주 체 102(2013)년 1월 5일 |

7-26727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02